

# 제주대학교 재학생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김 두 화\* · 김 경 순\*\*

## 〈 목 차 〉

I. 서 론	3. 학업문제에 관한 설문
II. 연구방법	4. 행정서비스 및 학교발전에 관한 설문
1. 조사대상	5. 진로 및 취업대책에 관한 설문
2. 조사도구	6. 학생생활연구소에 관한 설문
3. 자료분석	I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참고 문헌
1. 개인생활에 관한 설문	Abstract
2. 학교생활에 관한 설문	〈부 록〉

## I. 서 론

대학은 전인적인 교육의 장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곳이다. 대학생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주로 잘 조직화된 공식적인 대학 교육제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인격적인 성장은 공식적 대학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이 외의 활동(extracurriculum activity)을 통하여 연마되기도 한다. 그 동안 우리대학을 포함한 각 대학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일, 즉 지식의 전달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첨단교육과 기술교육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믿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실은 이 부분에 대한 학교당국의 많은 연구와 투자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인간적인 발달과 인격성장의 측면에서 대학교육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인간발달과 인격성장이 비공식적인 교육과정, 특히 학생들의 대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교수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 자치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제외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마저도 극히 미약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적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생활이란 자아정립을 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준비하며 가깝게는 변화하는 대학의 분위기에 적응하고 개척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더구나 21세기에는 대학교육의 새로운 위상 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 대학교육은 국제화, 정보화라는 21세기 변혁의 흐름에 부응하는 인력공급의 원천이 되어야 하고 학생 개개인이 개성과 소양개발에 힘쓰고 자유로운 전공과 학과의 선택을 제공하여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학생들의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해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이 연구는 신입생들의 제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교육계획의 수립과 학생의 지도에 도움을 주어왔다.

우리 대학의 재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해 가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제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학생들의 실태와 의식,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 및 태도에 관한 자료들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대학생활 영위와 학교당국의 행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조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는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실태와 의식구조 등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현실을 이해하여 학교 당국의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수행, 그리고 학생지도와 교육 개선의 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Ⅱ.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2000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제주대학교 재학생이다. 표본 선정방법은 균등한 표집을 유지하기 위해 학과별 정원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비율층화무선표집(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하였다.

각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각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 분포

〈단위 : 명(%)〉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112	99	145	79	61	100	141	173	11	329	325	267	499	422	921
(12.2)	(10.7)	(15.7)	(8.6)	(6.6)	(10.9)	(15.3)	(18.8)	(1.2)	(35.7)	(35.3)	(29.0)	(54.2)	(458)	(100.0)

## 2. 조사도구

대학생의 의식조사,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 대학생 취업준비도 조사 등에 관해 조사한 선행 연구들의 설문내용을 참고로 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여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총 6개 영역의 72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개인생활에 관한 설문 :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방과 후 하는 일, 한달 동안 보는 교양도서, 학기 중 일주일 평균 음주 횟수, 이성과 사귀어 본 경험, 친구와의 주된 화제거리, 고민이나 중요한 문제의 의논 상대, 컴퓨터 소유 여부, 인터넷 이용정도와 목적, 휴대폰 소유 여부, 학비 조달 및 아르바이트
- 2) 학교생활에 관한 설문 : 대학생활 만족도 및 문제점, 총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 3) 학업문제에 관한 설문 : 전공 선택 동기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 학부제 실시 후 문제점, 전과 및 복수전공, 수강신청, 수업내용 만족도, 상담 및 교수상
- 4) 행정서비스 및 학교발전에 관한 설문 : 행정직원의 친절도, 행정서비스 및 편의시설, 도서관 이용 목적, 우리 대학의 미래전망, 학교 홍보방법
- 5) 진로 및 취업대책에 관한 설문 : 대학졸업 후 계획, 직업선택의 기준, 취업준비, 진로선택시 어려운 점
- 6) 학생생활연구소에 관한 설문 : 이용 경험, 원하는 프로그램 및 특강

##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해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 기준을 위주로 빈도수와 백분율(%)에 따라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개인생활에 관한 설문

##### 1)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졸업 후 진로문제에 65.5%가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10명 중 7명 꼴로 졸업 후 진로문제를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학업 및 학습문제(11.6%), 전공 및 적성문제(5.3%), 가치관 정립(5.0%), 경제적인 면(4.2%) 등의 순서로 응답하여 학생들에게 졸업 후 진로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단과대학별로 볼 때, 졸업 후 진로문제에 대해서 법정대(69.7%), 자연대(68.8%), 공과대(67.6%), 해양대(65.0%), 경상대(64.8%), 농과대(63.9%), 인문대(62.5%), 사범대(59.5%), 의과대(45.5%) 순으로 응답하여, 의과대와 사범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60% 이상의 학생이 졸업 후 진로문제를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학년별로 볼 때, 졸업을 앞둔 4학년(82.4%) 학생이 졸업 후 진로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졸업 후 진로문제에 대해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반면 전공 및 적성문제와 이성문제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볼 때,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남학생(65.1%)과 여학생(65.9%) 모두 졸업 후 진로문제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1〉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진 로	70 (62.5)	69 (69.7)	94 (64.8)	47 (59.5)	39 (63.9)	65 (65.0)	97 (68.8)	117 (67.6)	5 (45.5)	152 (46.2)	231 (71.1)	220 (82.4)	325 (65.1)	278 (65.9)	603 (65.5)
학 업	13 (11.6)	12 (12.1)	17 (11.7)	14 (17.7)	4 (6.6)	18 (18.0)	13 (9.2)	13 (7.5)	3 (27.3)	65 (19.8)	36 (11.1)	6 (2.2)	56 (11.2)	51 (12.1)	107 (11.6)
전공 및 적성문제	9 (8.0)	3 (3.0)	3 (2.1)	6 (7.6)	4 (6.6)	2 (2.0)	9 (6.4)	11 (6.4)	2 (18.2)	35 (10.6)	10 (3.1)	4 (1.5)	20 (4.0)	29 (6.9)	49 (5.3)
교 우 관 계	1 (0.9)	-	1 (0.7)	-	1 (1.6)	-	1 (0.7)	1 (0.6)	-	4 (1.2)	1 (0.3)	-	2 (0.4)	3 (0.7)	5 (0.5)
가치관 정립	7 (6.3)	5 (5.1)	2 (1.4)	4 (5.1)	4 (6.6)	5 (5.0)	7 (5.0)	12 (6.9)	-	20 (6.1)	19 (5.8)	7 (2.6)	21 (4.2)	25 (5.9)	46 (5.0)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가 정 문 제	-	-	-	-	2 (3.3)	2 (2.0)	-	-	-	3 (0.9)	-	1 (0.4)	2 (0.4)	2 (0.5)	4 (0.4)
경제적인 면	5 (4.5)	6 (6.1)	9 (6.2)	2 (2.5)	4 (6.6)	2 (2.0)	6 (4.3)	5 (2.9)	-	18 (5.5)	8 (2.5)	13 (4.9)	30 (6.0)	9 (2.1)	39 (4.2)
이 성 관 계	4 (3.6)	1 (1.0)	7 (4.8)	2 (2.5)	1 (1.6)	4 (4.0)	3 (2.1)	4 (2.3)	1 (9.1)	15 (4.6)	9 (2.8)	3 (1.1)	17 (3.4)	10 (2.4)	27 (2.9)
전 강 문 제	3 (2.7)	-	4 (2.8)	-	1 (1.6)	1 (1.0)	3 (2.1)	3 (1.7)	-	5 (1.5)	4 (1.2)	6 (2.2)	9 (1.8)	6 (1.4)	15 (1.6)
성 격 관 계	-	-	2 (1.4)	2 (2.5)	-	1 (1.0)	1 (0.7)	5 (2.9)	-	7 (2.1)	3 (0.9)	1 (0.4)	6 (1.2)	5 (1.2)	11 (1.2)
기 타	-	2 (2.0)	3 (2.1)	-	1 (1.6)	-	1 (0.7)	1 (0.6)	-	2 (0.6)	2 (0.6)	4 (1.5)	7 (1.4)	1 (0.2)	8 (0.9)
무 응 답	-	1 (1.0)	3 (2.1)	2 (2.5)	-	-	-	1 (0.6)	-	3 (0.9)	2 (0.6)	2 (0.7)	4 (0.8)	3 (0.7)	7 (0.8)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2) 방과 후 하는 일

방과 후 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무계획하게 보냄(16.9%)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우관계(16.3%), 취미생활(15.5%), 전공 관련 학습(13.5%), 아르바이트(6.7%), 보고서 작성(6.1%), 동아리 활동(3.4%) 등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인문대(26.8%), 사범대(19.0%), 공과대(17.9%)의 순으로 방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전공관련 학습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농과대(23.0%), 경상대(22.8%), 자연대(19.1%)는 교우관계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양대(23.0%)는 취미생활에, 법정대(23.2%)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2학년은 교우관계(21.6%), 3학년은 무계획하게 보냄(20.0%)에, 4학년은 취업준비(31.1%)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전공관련 학습(17.8%)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무계획하게 보냄(17.4%), 교우관계(16.2%), 취업준비(14.2%), 전공관련 학습(12.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은 교우관계(16.4%)와 무계획하게 보냄(16.4%)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공관련 학습(14.9%), 취미생활(12.8%), 취업준비(10.0%) 등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표 1-2〉 방과 후 하는 일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교 양 도 서	9 (8.0)	2 (2.0)	5 (3.4)	3 (3.8)	-	3 (3.0)	1 (0.7)	4 (2.3)	-	8 (2.4)	12 (3.7)	7 (2.6)	9 (1.8)	18 (4.3)	27 (2.9)
보 고 서 작 성	6 (5.4)	10 (10.1)	1 (0.7)	13 (16.5)	3 (4.9)	9 (9.0)	8 (5.7)	4 (2.3)	2 (18.2)	23 (7.0)	25 (7.7)	8 (3.0)	29 (5.8)	27 (6.4)	56 (6.1)
동 아 리 활 동	7 (6.3)	2 (2.0)	4 (2.8)	4 (5.1)	2 (3.3)	3 (3.0)	4 (2.8)	5 (2.9)	-	15 (4.6)	10 (3.1)	6 (2.2)	15 (3.0)	16 (3.8)	31 (3.4)
교 우 관 계	9 (8.0)	13 (13.1)	33 (22.8)	5 (6.3)	14 (23.0)	17 (17.0)	27 (19.1)	29 (16.8)	3 (27.3)	71 (21.6)	45 (13.8)	34 (12.7)	81 (16.2)	69 (16.4)	150 (16.3)
취 미 생 활	14 (12.5)	7 (7.1)	26 (17.9)	10 (12.7)	10 (16.4)	23 (23.0)	23 (16.3)	29 (16.8)	1 (9.1)	60 (18.2)	50 (15.4)	33 (12.4)	89 (17.8)	54 (12.8)	143 (15.5)
취 업 준 비	5 (4.5)	23 (23.2)	22 (15.2)	3 (3.8)	8 (13.1)	8 (8.0)	17 (12.1)	27 (15.6)	-	8 (2.4)	22 (6.8)	83 (31.1)	71 (14.2)	42 (10.0)	113 (12.3)
전공관련 학습	30 (26.8)	5 (5.1)	12 (8.3)	15 (19.0)	5 (8.2)	9 (9.0)	15 (10.6)	31 (17.9)	2 (18.2)	43 (13.1)	47 (14.5)	34 (12.7)	61 (12.2)	63 (14.9)	124 (13.5)
아 르 바 이 트	11 (9.8)	11 (11.1)	6 (4.1)	9 (11.4)	2 (3.3)	2 (2.0)	15 (10.6)	5 (2.9)	1 (9.1)	26 (7.9)	23 (7.1)	13 (4.9)	22 (4.4)	40 (9.5)	62 (6.7)
무계획하게 보냄	18 (16.1)	20 (20.2)	20 (13.8)	15 (19.0)	11 (18.0)	17 (17.0)	23 (16.3)	30 (17.3)	2 (18.2)	55 (16.7)	65 (20.0)	36 (13.5)	87 (17.4)	69 (16.4)	156 (16.9)
기 타	3 (2.7)	5 (5.1)	14 (9.7)	1 (1.3)	6 (9.8)	7 (7.0)	7 (5.0)	7 (4.0)	-	16 (4.9)	21 (6.5)	13 (4.9)	31 (6.2)	19 (4.5)	50 (5.4)
부 응 답	-	1 (1.0)	2 (1.4)	1 (1.3)	-	2 (2.0)	1 (0.7)	2 (1.2)	-	4 (1.2)	5 (1.5)	-	4 (0.8)	5 (1.2)	9 (1.0)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3) 한달 동안 자신이 보는 교양도서의 양

한달 동안 자신이 보는 교양 도서의 양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달 평균 1권(44.3%)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없음(30.2%), 2권(14.7%), 3권(5.2%), 5권 이상(3.5%), 4권(2.1%)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이 결과로 보아서 제주대학교 학생의 10명 중 7명 꼴로 한 달에 1권 이상 교양도서를 읽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한달 동안 1권 이상 교양도서를 가장 많이 보는 대학은 의과대(81.8%)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해양대(78.0%), 인문대(77.7%), 법정대(72.7%), 자연대(71.6%), 사범대(69.6%), 경상대(66.2%), 농과대(62.3%), 공과대(6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한달 동안 1권 이상 교양도서를 가장 많이 보는 학년은 4학년(70.4%) 학생이며, 그 다음으로 3학년(69.8%), 1학년(69.3%) 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한달 동안 1권 이상 교양도서를 보는 남학생은 66.7%, 여학생은 73.5%로 나타났다.

〈표 1-3〉 한달 동안 자신이 보는 교양도서의 양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없	25 (22.3)	27 (27.3)	49 (33.8)	24 (30.4)	23 (37.7)	22 (22.0)	40 (28.4)	66 (38.2)	2 (18.2)	101 (30.7)	98 (30.2)	79 (29.6)	166 (33.3)	112 (26.5)	278 (30.2)
1 권	49 (43.8)	44 (44.4)	63 (43.4)	30 (38.0)	25 (41.0)	55 (55.0)	69 (48.9)	69 (39.9)	4 (36.4)	140 (42.6)	153 (47.1)	115 (43.1)	214 (42.9)	194 (46.0)	408 (44.3)
2 권	21 (18.8)	13 (13.1)	15 (10.3)	15 (19.0)	8 (13.1)	14 (14.0)	22 (15.6)	24 (13.9)	3 (27.3)	47 (14.3)	45 (13.8)	43 (16.1)	67 (13.4)	68 (16.1)	135 (14.7)
3 권	10 (8.9)	7 (7.1)	8 (5.5)	6 (7.6)	2 (3.3)	3 (3.0)	5 (3.5)	6 (3.5)	1 (9.1)	21 (6.4)	14 (4.3)	13 (4.9)	26 (5.2)	22 (5.2)	48 (5.2)
4 권	3 (2.7)	4 (4.0)	2 (1.4)	1 (1.3)	1 (1.6)	2 (2.0)	1 (0.7)	4 (2.3)	1 (9.1)	6 (1.8)	6 (1.8)	7 (2.6)	9 (1.8)	10 (2.4)	19 (2.1)
5 권 이 상	4 (3.6)	4 (4.0)	8 (5.5)	2 (2.5)	2 (3.3)	4 (4.0)	4 (2.8)	4 (2.3)	-	14 (4.3)	8 (2.5)	10 (3.7)	17 (3.4)	15 (3.6)	32 (3.5)
부 응 답	-	-	-	1 (1.3)	-	-	-	-	-	-	1 (0.3)	-	-	1 (0.2)	1 (0.1)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4) 학기 중 일주일 평균 음주 횟수

학기 중 일주일 평균 음주 횟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1회(41.2%)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두번(20.7%), 전혀 안 마심(16.0%), 세번(11.3%), 네번 이상(7.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84%(10명 중 8명 꼴로)의 학생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대학은 공과대(94.8%)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해양대(89%), 자연대(85.8%), 경상대(85.5%), 법정대(84.8%), 농과대(80.3%), 의과대(72.7%), 사범대(72.2%), 인문대(6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학년은 2학년(86.6%)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학년(84.3%), 3학년(8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91.2%), 여학생(75.5%)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즉 남학생은 10명중 9명이, 여학생은 10명중 8명 꼴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고 있다. 이 결과로 보아 여학생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술은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음을 알 수 있

고, 이는 남녀평등과 서구적인 개방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며, 여성들 생활 속에도 상당히 음주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횡수에서 성별을 비교해 볼 때, 한번에 응답한 남학생은 36.7%, 여학생은 46.4%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다. 그러나 횡수가 증가 할 수록 남학생의 비율이 높아 여학생의 음주는 일회성이 높고, 남학생은 습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학기 중 일주일 평균 음주 횡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한 번	33 (29.5)	36 (36.4)	69 (47.6)	42 (53.2)	26 (42.6)	35 (35.0)	59 (41.8)	75 (43.4)	4 (36.4)	132 (40.1)	128 (39.4)	119 (44.6)	183 (36.7)	196 (46.4)	379 (41.2)
두 번	18 (16.1)	21 (21.2)	28 (19.3)	2 (2.5)	10 (16.4)	23 (23.0)	30 (21.3)	59 (34.1)	-	68 (20.7)	67 (20.6)	56 (21.0)	132 (26.5)	59 (14.0)	191 (20.7)
세 번	12 (10.7)	13 (13.1)	13 (9.0)	6 (7.6)	3 (4.9)	20 (20.0)	21 (14.9)	14 (8.1)	2 (18.2)	43 (13.1)	35 (10.8)	26 (9.7)	74 (14.8)	30 (7.1)	104 (11.3)
네 번 이상	14 (12.5)	13 (13.1)	12 (8.3)	7 (8.9)	10 (16.4)	11 (11.0)	11 (7.8)	16 (9.2)	2 (18.2)	41 (12.5)	33 (10.2)	22 (8.2)	66 (13.2)	30 (7.1)	96 (10.4)
전혀 안 마심	34 (30.4)	15 (15.2)	21 (14.5)	22 (27.8)	12 (19.7)	11 (11.0)	20 (14.2)	9 (5.2)	3 (27.3)	44 (13.4)	61 (18.8)	42 (15.7)	44 (8.8)	103 (24.4)	147 (16.0)
무 응 답	1 (0.9)	1 (1.0)	2 (1.4)	-	-	-	-	-	-	1 (0.3)	1 (0.3)	2 (0.7)	-	4 (0.9)	4 (0.4)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5) 이성과 사귀어 본 경험

이성과 사귀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가장 길게 사귄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없다(27.9%)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년 이상(19.4%), 3개월(13.5%), 6개월(9.2%), 2년 정도(7.2%), 1년 6개월(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면, 70.5%의 학생(10명 중 7명 꼴로)이 이성과 사귀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이성과 사귀어 본 경험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해양대(80.0%)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상대(76.6%), 법정대(74.7%), 공과대(7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일 경험이 적은 대학은 의과대(44.5%)로 나타났다. 사귄 기간으로 볼 때, 공과대(17.3%)와 의과대(18.2%)는 1년 정도가 가장 많았고, 다른 대학은 모두 2년 이상이 가장 많았다.



학년별로 보면, 이성과 사귀어 본 경험이 가장 많은 학년은 4학년(79.4%)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학년(69.5%), 2학년(68.7%)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이성교제의 경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귀 기간으로 볼 때, 2학년(17.9%)이 3개월 정도가 가장 많았고, 3학년(18.8%)은 1년 정도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4학년(30.7%)은 2년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학년이 증가할 수록 교제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74.1%), 여학생(69.7%)이 이성과 사귀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귀 기간으로 볼 때, 남학생(22.2%), 여학생(16.1%) 모두 2년 이상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1-5〉 이성과 사귀어 본 경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없 다	36 (32.1)	25 (25.3)	34 (23.4)	24 (30.4)	20 (32.8)	20 (20.0)	46 (32.6)	47 (27.2)	5 (45.5)	103 (31.3)	99 (30.5)	55 (20.6)	129 (25.9)	128 (30.3)	257 (27.9)
3 개 월 정도	13 (11.6)	12 (12.1)	24 (16.6)	8 (10.1)	7 (11.5)	16 (16.0)	18 (12.8)	24 (13.9)	2 (18.2)	59 (17.9)	34 (10.5)	31 (11.6)	71 (14.2)	53 (12.6)	124 (13.5)
6 개 월 정도	12 (10.7)	8 (8.1)	15 (10.3)	4 (5.1)	6 (9.8)	14 (14.0)	10 (7.1)	15 (8.7)	1 (9.1)	31 (9.4)	36 (11.1)	18 (6.7)	47 (9.4)	38 (9.0)	85 (9.2)
1 년 정 도	19 (17.0)	17 (17.2)	17 (11.7)	15 (19.0)	7 (11.5)	19 (19.0)	17 (12.1)	30 (17.3)	2 (18.2)	50 (15.2)	61 (18.8)	32 (12.0)	78 (15.6)	65 (15.4)	143 (15.5)
1년 6개월 정도	6 (5.4)	6 (6.1)	8 (5.5)	6 (7.6)	5 (8.2)	4 (4.0)	6 (4.3)	11 (6.4)	-	17 (5.2)	18 (5.5)	17 (6.4)	21 (4.2)	31 (7.3)	52 (5.6)
2 년 정 도	6 (5.4)	7 (7.1)	10 (6.9)	4 (5.1)	3 (4.9)	6 (6.0)	17 (12.1)	13 (7.5)	-	16 (4.9)	25 (7.7)	25 (9.4)	38 (7.6)	28 (6.6)	66 (7.2)
2 년 이 상	19 (17.0)	24 (24.2)	36 (24.8)	15 (19.0)	13 (21.3)	20 (20.0)	24 (17.0)	27 (15.6)	1 (9.1)	51 (15.5)	46 (14.2)	82 (30.7)	111 (22.2)	68 (16.1)	179 (19.4)
부 응 답	1 (0.9)	-	1 (0.7)	3 (3.8)	-	1 (1.0)	3 (2.1)	6 (3.5)	-	2 (0.6)	6 (1.8)	7 (2.6)	4 (0.8)	11 (2.6)	15 (1.6)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6) 친구와의 주된 화제거리

학교 친구들간의 대화에서 주된 화제거리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성 및 친구(30.9%), 미래의 진로(26.1%), TV나 영화 등의 방송내용(14.7%), 전공에 대한 정보(10.0%), 대학생활 정보(8.9%), 정치 및 사회문제(3.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학교 친구들간의 대화에서 주된 화제거리는 법정대(30.3%), 경상대

(33.8%)가 미래의 진로로 나타났고, 인문대(35.7%), 사범대(31.6%), 농과대(31.1%), 해양대(34.0%), 자연대(31.9%), 공과대(28.9%)는 이성 및 친구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의과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미래의 진로는 중요한 화제인데 비해 의과대는 이에 응답한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의과대학의 특성상 어느 정도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에 비해 진로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학년별로 보면 2학년(38.0%), 3학년(34.2%)이 이성 및 친구를 주된 화제거리라고 응답하였고, 4학년(49.4%)은 미래의 진로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미래의 진로(27.7%)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성 및 친구(26.5)를 주된 화제거리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여학생은 이성 및 친구(36.3%)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의 진로(24.2%)라고 응답하였다.

〈표 1-6〉 친구와의 주된 화제거리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대학생활 정보	10 (8.9)	8 (8.1)	16 (11.0)	8 (10.1)	3 (4.9)	8 (8.0)	13 (9.2)	13 (7.5)	3 (27.3)	41 (12.5)	24 (7.4)	17 (6.4)	46 (9.2)	36 (8.5)	82 (8.9)
이성 및 친구	40 (35.7)	25 (25.3)	41 (28.3)	25 (31.6)	19 (31.1)	34 (34.0)	45 (31.9)	50 (28.9)	6 (54.5)	125 (38.0)	111 (34.2)	49 (18.4)	132 (26.5)	153 (36.3)	285 (30.9)
전공에 대한 정보	19 (17.0)	6 (6.1)	6 (4.1)	7 (8.9)	2 (3.3)	10 (10.0)	10 (7.1)	31 (17.9)	1 (9.1)	37 (11.2)	31 (9.5)	24 (9.0)	62 (12.4)	30 (7.1)	92 (10.0)
미래의 진로	16 (14.3)	30 (30.3)	49 (33.8)	23 (29.1)	17 (27.9)	23 (23.0)	41 (29.1)	41 (23.7)	-	44 (13.4)	64 (19.7)	132 (49.4)	138 (27.7)	102 (24.2)	240 (26.1)
TV나 영화 등의 방송 내용	20 (17.9)	17 (17.2)	15 (10.3)	11 (13.9)	15 (24.6)	13 (13.0)	24 (17.0)	19 (11.0)	1 (9.1)	53 (16.1)	63 (19.4)	19 (7.1)	55 (11.0)	80 (19.0)	135 (14.7)
정치 및 사회문제	2 (1.8)	9 (9.1)	10 (6.9)	2 (2.5)	1 (1.6)	3 (3.0)	2 (1.4)	7 (4.0)	-	8 (2.4)	17 (5.2)	11 (4.1)	32 (6.4)	4 (0.9)	36 (3.9)
기 타	5 (4.5)	4 (4.0)	7 (4.8)	2 (2.5)	4 (6.6)	7 (7.0)	6 (4.3)	11 (6.4)	-	19 (5.8)	13 (4.0)	14 (5.2)	31 (6.2)	15 (3.6)	46 (5.0)
무 응 답	-	-	1 (0.7)	1 (1.3)	-	2 (2.0)	-	1 (0.6)	-	2 (0.6)	2 (0.6)	1 (0.4)	3 (0.6)	2 (0.5)	5 (0.5)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7) 고민거리나 중요한 문제의 의논 상대

고민거리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 누구와 의논을 하는지를 물었다. 전체 응답학생 중 71.2%의 학생이 의논 상대로 친구를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선배(11.7%), 형제나 자매(5.1%), 부모(4.7%) 등

의 순서로 나타났다. 고민거리를 의논할 가장 편한 상대로 친구를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학생 생활연구소 동료상담 훈련같은 전문적인 상담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단과대학별로 볼 때 의과대가 친구(81.8%)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연대(78.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보면 학년이 높아 질 수록 의논 상대로 친구에 응답한 비율을 감소하는데 비해, 선배에 응답한 비율은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녀 학생 모두 높은 비율로 친구를 고민거리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논 상대로 지적하였다. 의논 상대로 부모라고 지적한 응답은 남학생(66.7%) 보다 여학생(76.5%)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7> 고민거리나 중요한 문제의 의논 상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친 구	81 (72.3)	64 (64.6)	101 (69.7)	60 (75.9)	39 (63.9)	73 (73.0)	110 (78.0)	119 (68.8)	9 (81.8)	240 (72.9)	236 (72.6)	180 (67.4)	333 (66.7)	323 (76.5)	656 (71.2)
선 배	12 (10.7)	16 (16.2)	16 (11.0)	7 (8.9)	6 (9.8)	12 (12.0)	14 (9.9)	23 (13.3)	2 (18.2)	35 (10.6)	36 (11.1)	37 (13.9)	75 (15.0)	33 (7.8)	108 (11.7)
부 모	4 (3.6)	5 (5.1)	9 (6.2)	1 (1.3)	3 (4.9)	4 (4.0)	6 (4.3)	11 (6.4)	-	15 (4.6)	14 (4.3)	14 (5.2)	27 (5.4)	16 (3.8)	43 (4.7)
형 제 나 자 매	10 (8.9)	5 (5.1)	6 (4.1)	6 (7.6)	1 (1.6)	4 (4.0)	6 (4.3)	9 (5.2)	-	18 (5.5)	18 (5.5)	11 (4.1)	14 (2.8)	33 (7.8)	47 (5.1)
교 수	-	-	1 (0.7)	1 (1.3)	1 (1.6)	-	1 (0.7)	1 (0.6)	-	2 (0.6)	-	3 (1.1)	4 (0.8)	1 (0.2)	5 (0.5)
학교의 해당부서	-	-	1 (0.7)	-	1 (1.6)	-	-	-	-	1 (0.3)	-	1 (0.4)	2 (0.4)	-	2 (0.2)
학생생활연구소	-	1 (1.0)	-	-	-	2 (2.0)	-	-	-	1 (0.3)	1 (0.3)	1 (0.4)	2 (0.4)	1 (0.2)	3 (0.3)
기 타	4 (3.6)	8 (8.1)	10 (6.9)	4 (5.1)	8 (13.1)	5 (5.0)	4 (2.8)	6 (3.5)	-	14 (4.3)	17 (5.2)	18 (6.7)	36 (7.2)	13 (3.1)	49 (5.3)
무 응 답	1 (0.9)	-	1 (0.7)	-	2 (3.3)	-	-	4 (2.3)	-	3 (0.9)	3 (0.9)	2 (0.7)	6 (1.2)	2 (0.5)	8 (0.9)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8) 컴퓨터(노트북 포함) 소유 여부

노트북을 포함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 꼴로(60.9%)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볼 때 의과대(90.9%)가 10명 중 9명 꼴로 가장 많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고, 다른 대학 학생들은 10명 중 5명 꼴로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62.8%)이 가장 많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4학년(61.0%), 2학년(59.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64.7%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남학생(57.7%) 보다 더 높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표 1-8〉 컴퓨터(노트북 포함) 소유 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예	65 (58.0)	58 (58.6)	96 (66.2)	48 (60.8)	34 (55.7)	53 (53.0)	98 (69.5)	99 (57.2)	10 (90.9)	194 (59.0)	204 (62.8)	163 (61.0)	288 (57.7)	273 (64.7)	561 (60.9)
아니오	47 (42.0)	41 (41.4)	49 (33.8)	31 (39.2)	27 (44.3)	47 (47.0)	43 (30.5)	74 (42.8)	1 (9.1)	135 (41.0)	121 (37.2)	104 (39.0)	211 (42.3)	149 (35.3)	360 (39.1)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9) 인터넷의 이용정도

인터넷의 이용정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자주 이용한다가 46.3%, 매우 자주 이용한다가 28.4%, 가끔 이용한다가 23.8%,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9.4%만이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 볼 때, 학년이 낮을수록 인터넷 이용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합하여 보면 2학년(99.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학년(98.2%), 4학년(97.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볼 때,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합하여 보면 여학생(98.9%), 남학생(98.2%)으로 나타났다.

〈표 1-9〉 인터넷 이용정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매일 자주 이용한다	22 (19.6)	20 (20.2)	33 (22.8)	23 (29.1)	15 (24.6)	34 (34.0)	44 (31.2)	65 (37.6)	6 (54.5)	100 (30.4)	90 (27.7)	72 (27.0)	154 (30.9)	108 (25.6)	262 (28.4)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자주 이용한다	53 (47.3)	50 (50.5)	65 (44.8)	42 (53.2)	33 (54.1)	47 (47.0)	63 (44.7)	70 (40.5)	3 (27.3)	142 (43.2)	155 (47.7)	129 (48.3)	208 (41.7)	218 (51.7)	426 (46.3)
가끔 이용한다	32 (28.6)	29 (29.3)	45 (31.0)	13 (16.5)	11 (18.0)	18 (18.0)	34 (24.1)	35 (20.2)	2 (18.2)	85 (25.8)	74 (22.8)	60 (22.5)	128 (25.7)	91 (21.6)	219 (23.8)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5 (4.5)	-	2 (1.4)	1 (1.3)	2 (3.3)	1 (1.0)	-	2 (1.2)	-	2 (0.6)	5 (1.5)	6 (2.2)	9 (1.8)	4 (0.9)	13 (1.4)
무 응 답	-	-	-	-	-	-	-	1 (0.6)	-	-	1 (0.3)	-	-	1 (0.2)	1 (0.1)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0) 인터넷 이용 목적

인터넷을 어떤 목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4%가 학업관련 정보 검색을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이용 목적으로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문화정보 검색(31.1%), 주식거래 이용(6.4%), 오락·게임(5.0%), 채팅(2.4%)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볼 때, 의과대가 다른 대학 보다 학업정보 관련 검색(72.7%)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문화정보 검색(18.2%)의 응답률은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볼 때, 학년이 높아 질 수록 학업관련 정보의 응답 비율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학업관련 정보 검색과 문화정보 검색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남학생은 주식거래 이용, 성인 사이트 이용, 오락·게임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표 1-10> 인터넷 이용 목적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학업관련 정보 검색	50 (44.6)	54 (54.5)	71 (49.0)	48 (60.8)	22 (36.1)	50 (50.0)	77 (54.6)	93 (53.8)	8 (72.7)	153 (46.5)	170 (52.3)	150 (56.2)	243 (48.7)	230 (54.5)	473 (51.4)
문화정보 검색	40 (35.7)	33 (33.3)	54 (37.2)	19 (24.1)	26 (42.6)	25 (25.0)	42 (29.8)	45 (26.0)	2 (18.2)	104 (31.6)	100 (30.8)	82 (30.7)	149 (29.9)	137 (32.5)	286 (31.1)
채팅	4 (3.6)	3 (3.0)	2 (1.4)	1 (1.3)	1 (1.6)	2 (2.0)	5 (3.5)	3 (1.7)	1 (9.1)	14 (4.3)	6 (1.8)	2 (0.7)	12 (2.4)	10 (2.4)	22 (2.4)
성인사이트 이용	2 (1.8)	1 (1.0)	-	-	3 (4.9)	6 (6.0)	1 (0.7)	2 (1.2)	-	6 (1.8)	4 (1.2)	5 (1.9)	14 (2.8)	1 (0.2)	15 (1.6)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인터넷 쇼핑	-	1 (1.0)	3 (2.1)	1 (1.3)	1 (1.6)	3 (3.0)	-	1 (0.6)	-	4 (1.2)	5 (1.5)	1 (0.4)	6 (1.2)	4 (0.9)	10 (1.1)
주식거래 이용	4 (3.6)	4 (4.0)	5 (3.4)	7 (8.9)	5 (8.2)	12 (12.0)	4 (2.8)	18 (10.4)	-	31 (9.4)	20 (6.2)	8 (3.0)	42 (8.4)	17 (4.0)	59 (6.4)
오락 · 게임	8 (7.1)	2 (2.0)	10 (6.9)	2 (2.5)	2 (3.3)	2 (2.0)	10 (7.1)	10 (5.8)	-	14 (4.3)	16 (4.9)	16 (6.0)	26 (5.2)	20 (4.7)	46 (5.0)
무 응 답	4 (3.6)	1 (1.0)	-	1 (1.3)	1 (1.6)	-	2 (1.4)	1 (0.6)	-	3 (0.9)	4 (1.2)	3 (1.1)	7 (1.4)	3 (0.7)	10 (1.1)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1) 휴대폰 소유 여부

휴대폰을 소유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91.5%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해, 10명 중 9명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볼 때 의과대(100%) 학생은 전원 모두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중 공과대(86.1%)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볼 때, 2학년(92.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학년(91.8%), 3학년(90.5%)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성별로 볼 때 여학생(93.8%), 남학생(89.6%)으로 나타나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휴대폰 보유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11〉 휴대폰 소유 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예	103 (92.0)	92 (92.9)	136 (93.8)	75 (94.9)	53 (86.9)	88 (88.0)	136 (96.5)	149 (86.1)	11 (100.0)	304 (92.4)	294 (90.5)	245 (91.8)	447 (89.6)	396 (93.8)	843 (91.5)
아 니 오	9 (8.0)	7 (7.1)	9 (6.2)	4 (5.1)	8 (13.1)	10 (10.0)	5 (3.5)	24 (13.9)	-	24 (7.3)	31 (9.5)	21 (7.9)	50 (10.0)	26 (6.2)	76 (8.3)
무 응 답	-	-	-	-	-	2 (2.0)	-	-	-	1 (0.3)	-	1 (0.4)	2 (0.4)	-	2 (0.2)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2) 학비 조달방법

학비 조달방법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모님 부담이 75.1%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비를 부모님에게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장학금(13.1%), 본인 부담(8.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부모 부담이 인문대(8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의과대(81.8%)로 나타났는데 의과대는 본인 부담(18.2%)도 다른 대학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학생이 가장 많으면서 고학생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학금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대학은 해양대(26.0%)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볼 때, 모든 학년이 부모님 부담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학년 중 2학년이 부모님 부담은 가장 낮고, 본인 부담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은 부모님 부담과 장학금(13.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본인 부담(7.1%)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부모님 부담, 장학금에 의한 조달의 응답률이 더 높고, 본인 부담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12〉 학비 조달방법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부 모 부 담	93 (83.0)	69 (69.7)	109 (75.2)	58 (73.4)	48 (78.7)	63 (63.0)	108 (76.6)	135 (78.0)	9 (81.8)	244 (74.2)	248 (76.3)	200 (74.9)	359 (71.9)	333 (78.9)	692 (75.1)
장 학 금	9 (8.0)	13 (13.1)	19 (13.1)	9 (11.4)	8 (13.1)	26 (26.0)	18 (12.8)	19 (11.0)	-	40 (12.2)	45 (13.8)	36 (13.5)	62 (12.4)	59 (14.0)	121 (13.1)
본 인 부 담	9 (8.0)	10 (10.1)	13 (9.0)	6 (7.6)	5 (8.2)	8 (8.0)	9 (6.4)	15 (8.7)	2 (18.2)	32 (9.7)	23 (7.1)	22 (8.2)	59 (11.8)	18 (4.3)	77 (8.4)
친 지 도 움	-	-	-	2 (2.5)	-	-	-	-	-	1 (0.3)	-	1 (0.4)	1 (0.2)	1 (0.2)	2 (0.2)
은행용자 이용	-	2 (2.0)	2 (1.4)	2 (2.5)	-	-	3 (2.1)	-	-	4 (1.2)	3 (0.9)	2 (0.7)	6 (1.2)	3 (0.7)	9 (1.0)
기 타	1 (0.9)	5 (5.1)	1 (0.7)	2 (2.5)	-	2 (2.0)	3 (2.1)	3 (1.7)	-	7 (2.1)	5 (1.5)	5 (1.9)	9 (1.8)	8 (1.9)	17 (1.8)
무 응 답	-	-	1 (0.7)	-	-	1 (1.0)	-	1 (0.6)	-	1 (0.3)	1 (0.3)	1 (0.4)	1 (0.6)	-	3 (0.3)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3) 아르바이트 활동 경험 및 종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79.4%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해 제주대학생 10명 중 8명 꼴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의과대(90.9%)와 자연대(90.8%)가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의과대는 유흥업소 시간제 근로(45.5%)를 자연대는 가정교사(27.0%)와 유흥업소 시간제 근로(27.0%)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사범대는 44.3%의 학생이 가정교사를, 농과대(31.1%)와 해양대(31.0%)는 노무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2학년(79.4%), 4학년(80.2%), 3학년(76.6%)의 순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가정교사의 비율이 줄어들어 가정교사는 고등학교를 막 마치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근로장학생은 2학년 보다 3·4학년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노무직(37.7%), 가정교사(12.8%), 유흥업소 시간제 근로(12.4%)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고, 여학생은 유흥업소 시간제 근로(28.0%), 가정교사(22.7%), 근로장학생(13.3%)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표 1-13〉 아르바이트 활동 경험 및 종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없 다	21 (18.8)	20 (20.2)	22 (15.2)	14 (17.7)	13 (21.3)	22 (22.0)	13 (9.2)	27 (15.6)	1 (9.1)	48 (14.6)	62 (19.1)	43 (16.1)	84 (16.8)	69 (16.4)	153 (16.6)
가 정 교 사 (학원교사 포함)	29 (25.9)	9 (9.1)	11 (7.6)	35 (44.3)	3 (4.9)	4 (4.0)	38 (27.0)	30 (17.3)	1 (9.1)	49 (14.9)	58 (17.8)	53 (19.9)	64 (12.8)	96 (22.7)	160 (17.4)
근 로 장 학 생	13 (11.6)	12 (12.1)	16 (11.0)	5 (6.3)	6 (9.8)	10 (10.0)	9 (6.4)	12 (6.9)	1 (9.1)	21 (6.4)	35 (10.8)	28 (10.5)	28 (5.6)	56 (13.3)	84 (9.1)
노 무 직 (노동, 경비, 배달 등)	7 (6.3)	17 (17.2)	44 (30.3)	6 (7.6)	19 (31.1)	31 (31.0)	23 (16.3)	55 (31.8)	1 (9.1)	82 (24.9)	66 (20.3)	55 (20.6)	188 (37.7)	15 (3.6)	203 (22.0)
유흥업소 시간제 근로 (카페, 식당, 커피숍, 편의점)	27 (24.1)	25 (25.3)	24 (16.6)	8 (10.1)	7 (11.5)	18 (18.0)	38 (27.0)	28 (16.2)	5 (45.5)	74 (22.5)	62 (19.1)	44 (16.5)	62 (12.4)	118 (28.0)	180 (19.5)
일반회사 연구실 단순작업 (3대, 전자, 의료, 정보, 생명, 공)	6 (5.4)	8 (8.1)	12 (8.3)	3 (3.8)	5 (8.2)	2 (2.0)	8 (5.7)	5 (2.9)	1 (9.1)	24 (7.3)	11 (3.4)	15 (5.6)	22 (4.4)	28 (6.6)	50 (5.4)
기 타	4 (3.6)	6 (6.1)	11 (7.6)	4 (5.1)	5 (8.2)	5 (5.0)	9 (6.4)	9 (5.2)	1 (9.1)	18 (5.5)	17 (5.2)	19 (7.1)	31 (6.2)	23 (5.5)	54 (5.9)
무 응 답	5 (4.5)	2 (2.0)	5 (3.4)	4 (5.1)	3 (4.9)	8 (8.0)	3 (2.1)	7 (4.0)	-	13 (4.0)	14 (4.3)	10 (3.7)	20 (4.0)	17 (4.0)	37 (4.0)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4)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용돈 마련(62.9%)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11.5%), 학비 마련(9.2%), 자립정신 함양(4.2%) 등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분석해 보면 다른 대학 보다 의과대(80.0%)가 용돈 마련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경상대(13.8%)는 다른 대학 보다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학년이 높아 질 수록 용돈 마련의 응답 비율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년 중 2학년(13.2%)이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67.7%)이 남학생(58.8%) 보다 용돈 마련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학비 보탬(10.6%),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12.5%)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표 1-14〉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용 돈 마 련	56 (61.5)	51 (64.6)	71 (57.7)	40 (61.5)	28 (58.3)	48 (61.5)	86 (67.2)	95 (65.1)	8 (80.0)	176 (62.6)	165 (62.7)	142 (63.4)	244 (58.8)	239 (67.7)	483 (62.9)
학 비 보 탬	9 (9.9)	10 (12.7)	9 (7.3)	6 (9.2)	6 (12.5)	7 (9.0)	8 (6.3)	16 (11.0)	-	25 (8.9)	26 (9.9)	20 (8.9)	44 (10.6)	27 (7.6)	71 (9.2)
자 립 정 신	4 (4.4)	-	6 (4.9)	3 (4.6)	1 (2.1)	7 (9.0)	6 (4.7)	4 (2.7)	1 (10.0)	12 (4.3)	8 (3.0)	12 (5.4)	19 (4.6)	13 (3.7)	32 (4.2)
사 회 경 험	10 (11.0)	6 (7.6)	17 (13.8)	6 (9.2)	6 (12.5)	9 (11.5)	16 (12.5)	17 (11.6)	1 (10.0)	37 (13.2)	22 (8.4)	29 (12.9)	52 (12.5)	36 (10.2)	88 (11.5)
저 축	3 (3.3)	3 (3.8)	2 (1.6)	1 (1.5)	1 (2.1)	1 (1.3)	2 (1.6)	2 (1.4)	-	3 (1.1)	8 (3.0)	4 (1.8)	8 (1.9)	7 (2.0)	15 (2.0)
생 활 비 마 련	1 (1.1)	5 (6.3)	12 (9.8)	3 (4.6)	3 (6.3)	1 (1.3)	4 (3.1)	5 (3.4)	-	12 (4.3)	15 (5.7)	7 (3.1)	27 (6.5)	7 (2.0)	34 (4.4)
교 육 연 수 완 령 마 련	4 (4.4)	-	1 (0.8)	3 (4.6)	-	-	2 (1.6)	-	-	3 (1.1)	3 (1.1)	4 (1.8)	2 (0.5)	8 (2.3)	10 (1.3)
기 타	-	2 (2.5)	1 (0.8)	-	2 (4.2)	1 (1.3)	1 (0.8)	1 (0.7)	-	2 (0.7)	5 (1.9)	1 (0.4)	5 (1.2)	3 (0.8)	8 (1.0)
무 응 답	4 (4.4)	2 (2.5)	4 (3.3)	3 (4.6)	1 (2.1)	4 (5.1)	3 (2.3)	6 (4.1)	-	11 (3.9)	11 (4.2)	5 (2.2)	14 (3.4)	13 (3.7)	27 (3.5)
계	91 (100.0)	79 (100.0)	123 (100.0)	65 (100.0)	48 (100.0)	78 (100.0)	128 (100.0)	146 (100.0)	10 (100.0)	281 (100.0)	263 (100.0)	224 (100.0)	415 (100.0)	353 (100.0)	768 (100.0)

## 2. 학교생활에 관한 설문

### 1)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통이다(57.5%)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만족한다(19.8%), 만족하지 못하다(16.7%),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4.2%), 매우 만족한다(1.5%)의 순으로 응답을 보인 것으로 보아 제주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에 있어서 해양대(32.0%), 법정대(23.3%), 인문대(21.5%)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의 대학은 만족하지 못하다와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의 합계가 더 높아 해양대, 법정대, 인문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 보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과대(27.1%), 자연대(24.1%), 경상대(21.4%)의 경우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를 합한 응답률에 있어서 4학년(23.2%)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학년(21.2%), 2학년(19.7%)의 순으로 응답을 보여 학년이 높아 질 수록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23.8%)이 여학생(18.3%)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보아 남학생이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더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1〉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매우 만족하다	3 (2.7)	6 (6.1)	-	-	3 (4.9)	-	-	2 (1.2)	-	6 (1.8)	4 (1.2)	4 (1.5)	9 (1.8)	5 (1.2)	14 (1.5)
만 족 하 다	21 (18.8)	17 (17.2)	29 (20.0)	19 (24.1)	7 (11.5)	32 (32.0)	23 (16.3)	32 (18.5)	2 (18.2)	59 (17.9)	65 (20.0)	58 (21.7)	110 (22.0)	72 (17.1)	182 (19.8)
보 통 이 다	68 (60.7)	55 (55.6)	85 (58.6)	47 (59.5)	37 (60.7)	55 (55.0)	84 (59.6)	92 (53.2)	7 (63.6)	182 (55.3)	194 (59.7)	154 (57.7)	273 (54.7)	257 (60.9)	530 (57.5)
만족하지 못하다	15 (13.4)	18 (18.2)	28 (19.3)	8 (10.1)	9 (14.8)	10 (10.0)	29 (20.6)	35 (20.2)	2 (18.2)	67 (20.4)	48 (14.8)	39 (14.6)	79 (15.8)	75 (17.8)	154 (16.7)
전혀 만족하지 못 하 다	5 (4.5)	3 (3.0)	3 (2.1)	5 (6.3)	5 (8.2)	1 (1.0)	5 (3.5)	12 (6.9)	-	14 (4.3)	14 (4.3)	11 (4.1)	26 (5.2)	13 (3.1)	39 (4.2)
무 응 답	-	-	-	-	-	2 (2.0)	-	-	-	1 (0.3)	-	1 (0.4)	2 (0.4)	-	2 (0.2)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2) 대학생활에서 실망한 점

대학생활에서 실망한 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자기자신(36.4%)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강의(20.7%), 비소속감(18.5%), 교수와의 관계(10.1%), 교우관계(6.3%)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대학생활에서 실망한 점으로 자기자신을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존감 향상같은 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단과대학별로 의과대와 사범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자기자신, 비소속감, 강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는데 비해 의과대는 강의(36.4%), 비소속감(27.3%), 자기자신(9.1%)의 순으로 응답을 보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 보다 높게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범대는 강의(35.4%), 자기자신(35.4%), 비소속감(6.3%)의 순으로 응답을 보여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 보다 소속감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 보면 2학년은 자기자신, 비소속감, 강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고, 3·4학년은 자기자신, 강의, 비소속감의 순으로 응답을 보인 것으로 보아 학년이 높아 질 수록 소속감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여학생 모두 자기자신, 강의, 비소속감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표 2-2〉 대학생활에서 실망한 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비 소 속 감	21 (18.8)	25 (25.3)	32 (22.1)	5 (6.3)	11 (18.0)	12 (12.0)	29 (20.6)	32 (18.5)	3 (27.3)	84 (25.5)	47 (14.5)	39 (14.6)	90 (18.0)	80 (19.0)	170 (18.5)
자 기 자 신	35 (31.3)	34 (34.3)	54 (37.2)	28 (35.4)	26 (42.6)	39 (39.0)	49 (34.8)	69 (39.9)	1 (9.1)	112 (34.0)	118 (36.3)	105 (39.3)	180 (36.1)	155 (36.7)	335 (36.4)
강 의	29 (25.9)	21 (21.2)	26 (17.9)	28 (35.4)	6 (9.8)	18 (18.0)	31 (22.0)	28 (16.2)	4 (36.4)	55 (16.7)	75 (23.1)	61 (22.8)	95 (19.0)	96 (22.7)	191 (20.7)
교 우 관 계	5 (4.5)	4 (4.0)	8 (5.5)	13 (16.5)	6 (9.8)	5 (5.0)	9 (6.4)	7 (4.0)	1 (9.1)	27 (8.2)	18 (5.5)	13 (4.9)	30 (6.0)	28 (6.6)	58 (6.3)
교수와의 관계	12 (10.7)	9 (9.1)	15 (10.3)	4 (5.1)	4 (6.6)	15 (15.0)	15 (10.6)	18 (10.4)	1 (9.1)	25 (7.6)	37 (11.4)	31 (11.6)	57 (11.4)	36 (8.5)	93 (10.1)
기 타	6 (5.4)	4 (4.0)	6 (4.1)	-	6 (9.8)	6 (6.0)	7 (5.0)	11 (6.4)	-	16 (4.9)	22 (6.8)	8 (3.0)	33 (6.6)	13 (3.1)	46 (5.0)
무 응 답	4 (3.6)	2 (2.0)	4 (2.8)	1 (1.3)	2 (3.3)	5 (5.0)	1 (0.7)	8 (4.6)	1 (9.1)	10 (3.0)	8 (2.5)	10 (3.7)	14 (2.8)	14 (3.3)	28 (3.0)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3) 대학생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대학생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62.3%)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시설의 미비(13.6%), 자신에 대한 불만(9.0%), 전공에 대한 불만족(6.7%), 대인관계의 어려움(4.3%)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진로탐색 같은 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단과대학별로 볼 때, 농과대(68.9%), 인문대(67.9%), 경상대(67.6%)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이에 의과대(27.3%)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의과대의 특성상 어느 정도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에 비해 진로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학년별로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학년(15.4%)은 다른 학년에 비해 자신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 질 수록 자신에 대한 불만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60.3%) 보다 여학생(64.7%)이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높은 반면, 자신에 대한 불만은 여학생(6.2%) 보다 남학생(11.4%)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3〉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76 (67.9)	63 (63.6)	98 (67.6)	30 (38.0)	42 (68.9)	61 (61.0)	93 (66.0)	108 (62.4)	3 (27.3)	180 (54.7)	211 (64.9)	183 (68.5)	301 (60.3)	273 (64.7)	574 (62.3)
학교시설의 미비	20 (17.9)	9 (9.1)	14 (9.7)	21 (26.6)	3 (4.9)	9 (9.0)	17 (12.1)	29 (16.8)	3 (27.3)	49 (14.9)	40 (12.3)	36 (13.5)	68 (13.6)	57 (13.5)	125 (13.6)
대인관계의 어려움	1 (0.9)	7 (7.1)	7 (4.8)	9 (11.4)	3 (4.9)	2 (2.0)	5 (3.5)	4 (2.3)	2 (18.2)	20 (6.1)	15 (4.6)	5 (1.9)	17 (3.4)	23 (5.5)	40 (4.3)
자신에 대한 불만	5 (4.5)	8 (8.1)	9 (6.2)	12 (15.2)	10 (16.4)	17 (17.0)	8 (5.7)	12 (6.9)	2 (18.2)	50 (15.2)	18 (5.5)	15 (5.6)	57 (11.4)	26 (6.2)	83 (9.0)
전공에 대한 불만족	8 (7.1)	8 (8.1)	13 (9.0)	5 (6.3)	2 (3.3)	6 (6.0)	11 (7.8)	9 (5.2)	-	19 (5.8)	27 (8.3)	16 (6.0)	34 (6.8)	28 (6.6)	62 (6.7)
기 타	1 (0.9)	3 (3.0)	3 (2.1)	1 (1.3)	-	3 (3.0)	5 (3.5)	7 (4.0)	1 (9.1)	9 (2.7)	8 (2.5)	7 (2.6)	15 (3.0)	9 (2.1)	24 (2.6)
무 응답	1 (0.9)	1 (1.0)	1 (0.7)	1 (1.3)	1 (1.6)	2 (2.0)	2 (1.4)	4 (2.3)	-	2 (0.6)	6 (1.8)	5 (1.9)	7 (1.4)	6 (1.4)	13 (1.4)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4) 총학생회가 주로 해야 할 일(두가지)

총학생회가 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학생의 복지사업(77.1%)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학교운영 참여(29.0%), 면학분위기 조성(28.4%), 학내행사 주관(24.6%)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노력을 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학생의 복지사업이 각 단과대학 모두 70% 이상이 응답하여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면학분위기 조성도 20% 이상이 응답을 보여 이를 위해서도 학생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이 학생의 복지 사업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년 보다 더 높았고, 2학년은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여학생 모두 총학생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학생의 복지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그리고 학교운영 참여 등의 순서로 응답을 보였다.

〈표 2-4〉 총학생회가 주로 해야 할 일(두 가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학생의 정치참여	5 (4.5)	5 (5.1)	9 (6.2)	4 (5.1)	3 (4.9)	2 (2.0)	5 (3.5)	4 (2.3)	-	14 (4.3)	12 (3.7)	11 (4.1)	25 (5.0)	12 (2.8)	37 (4.0)
사 회 사 업	2 (1.8)	7 (7.1)	8 (5.5)		4 (6.6)	4 (4.0)	2 (1.4)	6 (3.5)	-	11 (3.3)	13 (4.0)	9 (3.4)	19 (3.8)	14 (3.3)	33 (3.6)
학생의 복지사업	96 (85.7)	73 (73.7)	104 (71.7)	60 (75.9)	46 (75.4)	79 (79.0)	108 (76.6)	135 (78.0)	9 (81.8)	243 (73.9)	260 (80.0)	207 (77.5)	379 (76.0)	331 (78.4)	710 (77.1)
학내행사 주관	27 (24.1)	15 (15.2)	30 (20.7)	23 (29.1)	12 (19.7)	30 (30.0)	44 (31.2)	44 (25.4)	2 (18.2)	84 (25.5)	91 (28.0)	52 (19.5)	99 (19.8)	128 (30.3)	227 (24.6)
면학분위기 조성	33 (29.5)	33 (33.3)	42 (29.0)	26 (32.9)	18 (29.5)	23 (23.0)	38 (27.0)	45 (26.0)	4 (36.4)	98 (29.8)	82 (25.2)	82 (30.7)	136 (27.3)	126 (29.9)	262 (28.4)
학교운영 참여	35 (31.3)	25 (25.3)	49 (33.8)	24 (30.4)	14 (23.0)	29 (29.0)	37 (26.2)	50 (28.9)	4 (36.4)	95 (28.9)	92 (28.3)	80 (30.0)	141 (28.3)	126 (29.9)	267 (29.0)
기 타	1 (0.9)	-	2 (1.4)	2 (2.5)	-	2 (2.0)	4 (2.8)	1 (0.6)	-	7 (2.1)	3 (0.9)	2 (0.7)	7 (1.4)	5 (1.2)	12 (1.3)
무 응 답	25 (22.3)	40 (40.4)	46 (31.7)	19 (24.1)	25 (41.0)	31 (31.0)	44 (31.2)	61 (35.3)	3 (27.3)	106 (32.2)	97 (29.8)	91 (34.1)	192 (38.5)	102 (24.2)	294 (31.9)
계	224 (100.0)	198 (100.0)	290 (100.0)	158 (100.0)	122 (100.0)	200 (100.0)	282 (100.0)	346 (100.0)	22 (100.0)	658 (100.0)	650 (100.0)	534 (100.0)	998 (100.0)	844 (100.0)	1,842 (100.0)

5)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통이다(52.0%)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28.0%),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9.2%), 만족한다(7.3%), 매우 만족한다(1.4%)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8.7%)보다 만족하지 못하다와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의 합계(37.8%)가 더 높아 총학생회의 활동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와 만족하지 못하다의 응답 합계가 인문대(46.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양대(23.0%)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불만족도가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와 만족하지 못하다의 응답 합계가 2학년(31.9%), 3학년(40.4%), 4학년(41.9%)의 순으로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5〉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매우 만족하다	-	5 (5.1)	2 (1.4)	-	-	6 (6.0)	-	-	-	7 (2.1)	-	6 (2.2)	10 (2.0)	3 (0.7)	13 (1.4)
만족하다	8 (7.1)	7 (7.1)	11 (7.6)	7 (8.9)	6 (9.8)	13 (13.0)	4 (2.8)	10 (5.8)	1 (9.1)	24 (7.3)	25 (7.7)	18 (6.7)	48 (9.6)	19 (4.5)	67 (7.3)
보통이다	51 (45.5)	45 (45.5)	73 (50.3)	34 (43.0)	37 (60.7)	56 (56.0)	87 (61.7)	89 (51.4)	7 (63.6)	188 (57.1)	165 (50.8)	126 (47.2)	240 (48.1)	239 (56.6)	479 (52.0)
만족하지 못하다	40 (35.7)	31 (31.3)	40 (27.6)	26 (32.9)	10 (16.4)	21 (21.0)	35 (24.8)	52 (30.1)	3 (27.3)	78 (23.7)	98 (30.2)	82 (30.7)	139 (27.9)	119 (28.2)	258 (28.0)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	12 (10.7)	10 (10.1)	19 (13.1)	8 (10.1)	7 (11.5)	2 (2.0)	14 (9.9)	18 (10.4)	-	27 (8.2)	33 (10.2)	30 (11.2)	51 (10.2)	39 (9.2)	90 (9.8)
무응답	1 (0.9)	1 (1.0)	-	4 (5.1)	1 (1.6)	2 (2.0)	1 (0.7)	4 (2.3)	-	5 (1.5)	4 (1.2)	5 (1.9)	11 (2.2)	3 (0.7)	14 (1.5)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6) 축제(대동제)행사 참가 여부

축제(대동제)행사에 어느 정도 참가하는 편입니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축제행사를 구경하는 편(58.2%)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옆에서 조금 거드는 편(16.9%), 앞으로 참여할 계획이다(11.1%), 참가한 적이 없다(7.6%), 적극적으로 참가한다(5.4%)의 순

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농과대가 옆에서 조금 거드는 편(41.0%), 적극적으로 참가한다(11.5%)의 응답률을 보여 축제 참가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었다. 반면 의과대(81.8%)는 축제행사를 구경하는 편에 다른 단과대학생들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볼 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 갈 수록 옆에서 거들거나,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4학년은 축제행사를 구경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옆에서 거들거나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가하는 비율이 높고, 여학생은 축제행사를 구경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6) 축제(대동제)행사 참가 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5 (4.5)	6 (6.1)	11 (7.6)	3 (3.8)	7 (11.5)	9 (9.0)	3 (2.1)	5 (2.9)	1 (9.1)	17 (5.2)	18 (5.5)	15 (5.6)	39 (7.8)	11 (2.6)	50 (5.4)
옆에서 조금 거드는 편이다	16 (14.3)	17 (17.2)	22 (15.2)	9 (11.4)	25 (41.0)	23 (23.0)	15 (10.6)	28 (16.2)	1 (9.1)	53 (16.1)	66 (20.3)	37 (13.9)	93 (18.6)	63 (14.9)	156 (16.9)
축제 행사를 구경하는 편이다	72 (64.3)	55 (55.6)	72 (49.7)	53 (67.1)	24 (39.3)	58 (58.0)	90 (63.8)	103 (59.5)	9 (81.8)	189 (57.4)	181 (55.7)	166 (62.2)	268 (53.7)	268 (63.5)	536 (58.2)
참가한 적이 없다	8 (7.1)	6 (6.1)	14 (9.7)	5 (6.3)	4 (6.6)	3 (3.0)	14 (9.9)	16 (9.2)	-	22 (6.7)	31 (9.5)	17 (6.4)	35 (7.0)	35 (8.3)	70 (7.6)
앞으로 참여할 것이다	10 (8.9)	14 (14.1)	24 (16.6)	8 (10.1)	1 (1.6)	7 (7.0)	19 (13.5)	19 (11.0)	-	46 (14.0)	29 (8.9)	27 (10.1)	58 (11.6)	44 (10.4)	102 (11.1)
무응답	1 (0.9)	1 (1.0)	2 (1.4)	1 (1.3)	-	-	-	2 (1.2)	-	2 (0.6)	-	5 (1.9)	6 (1.2)	1 (0.2)	7 (0.8)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7)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39.6%), 참여한 적이 없다(39.3%)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현재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19.3%로 나타나 동아리 활동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해양대(33.0%)가 동아리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고, 법정대(49.5%), 인문대(46.4%), 공과대(45.7%) 등의 순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반응하였다. 특히, 의과대는 72.7%의 학생이 과거에는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볼 때, 학년이 올라 갈 수록 현재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참여한 적이 없다는 비율은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20.2%)이 여학생(18.2%) 보다 동아리 활동에 더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남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7〉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현재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22 (19.6)	19 (19.2)	24 (16.6)	16 (20.3)	10 (16.4)	33 (33.0)	25 (17.7)	29 (16.8)	-	77 (23.4)	59 (18.2)	42 (15.7)	101 (20.2)	77 (18.2)	178 (19.3)
과거에는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35 (31.3)	30 (30.3)	57 (39.3)	34 (43.0)	28 (45.9)	48 (48.0)	65 (46.1)	60 (34.7)	8 (72.7)	125 (38.0)	134 (41.2)	106 (39.7)	189 (37.9)	176 (41.7)	365 (39.6)
참여한 적이 없다	52 (46.4)	49 (49.5)	62 (42.8)	28 (35.4)	22 (36.1)	17 (17.0)	51 (36.2)	79 (45.7)	2 (18.2)	119 (36.2)	129 (39.7)	114 (42.7)	197 (39.5)	165 (39.1)	362 (39.3)
앞으로 참여할 계획 이 다	3 (2.7)	1 (1.0)	1 (0.7)	1 (1.3)	1 (1.6)	2 (2.0)	-	3 (1.7)	1 (9.1)	6 (1.8)	3 (0.9)	4 (1.5)	10 (2.0)	3 (0.7)	13 (1.4)
무 응 답	-	-	1 (0.7)	-	-	-	-	2 (1.2)	-	2 (0.6)	-	1 (0.4)	2 (0.4)	1 (0.2)	3 (0.3)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8)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46.0%)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서(17.7%), 가입시기를 놓쳐서(12.4%), 학업에 방해가 되어서(10.6%), 다른 학내활동을 하고 싶어서(7.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분석해 보면, 법정대(60.0%), 경상대(56.3%), 해양대(52.6%)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에 응답을 했고, 의과대는 100%의 학생이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서에 응답하여 의과대생들 자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동아리를 만든다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72.7%의 학생이 과거에는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점(표 1-6)에 대한 이유를 파악한다면 의과대생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년별로 볼 때,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가입시기를 놓쳐서라는 이유가 높아 동아리 가입에 대한 학년 제한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서라는 답변은 4학년이 제일 낮아 고학년일수록 설부른 판단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더 높고 여학생은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서와 가입시기를 놓쳐서라는 남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8〉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범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가입시기를 놓쳐서	14 (25.5)	4 (8.0)	6 (9.4)	2 (6.9)	7 (30.4)	4 (21.1)	6 (11.8)	4 (4.8)	-	10 (7.9)	20 (15.2)	17 (14.3)	23 (11.0)	24 (14.2)	47 (12.4)
다른 학내활동을 하고 싶어서	4 (7.3)	1 (2.0)	4 (6.3)	-	1 (4.3)	2 (10.5)	2 (3.9)	15 (17.9)	-	8 (6.3)	12 (9.1)	9 (7.6)	17 (8.1)	12 (7.1)	29 (7.7)
학업에 방해가 되어서	7 (12.7)	4 (8.0)	2 (3.1)	7 (24.1)	2 (8.7)	1 (5.3)	6 (11.8)	11 (13.1)	-	13 (10.2)	13 (9.8)	14 (11.8)	19 (9.1)	21 (12.4)	40 (10.6)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서	7 (12.7)	8 (16.0)	8 (12.5)	5 (17.2)	1 (4.3)	2 (10.5)	18 (35.3)	15 (17.9)	3 (100.0)	23 (18.1)	25 (18.9)	19 (16.0)	32 (15.3)	35 (20.7)	67 (17.7)
필요성을 못 느껴서	17 (30.9)	30 (60.0)	36 (56.3)	14 (48.3)	11 (47.8)	10 (52.6)	17 (33.3)	39 (46.4)	-	67 (52.8)	52 (39.4)	55 (46.2)	108 (51.7)	66 (39.1)	174 (46.0)
주위의 반대로	-	1 (2.0)	-	1 (3.4)	-	-	-	-	-	2 (1.6)	-	-	1 (0.5)	1 (0.6)	2 (0.5)
기 타	2 (3.6)	1 (2.0)	6 (9.4)	-	1 (4.3)	-	1 (2.0)	-	-	2 (1.6)	5 (3.8)	4 (3.4)	4 (1.9)	7 (4.1)	11 (2.9)
무 응 답	4 (7.3)	1 (2.0)	2 (3.1)	-	-	-	1 (2.0)	-	-	2 (1.6)	5 (3.8)	1 (0.8)	5 (2.4)	3 (1.8)	8 (2.1)
계	55 (100.0)	50 (100.0)	64 (100.0)	29 (100.0)	23 (100.0)	19 (100.0)	51 (100.0)	84 (100.0)	3 (100.0)	127 (100.0)	132 (100.0)	119 (100.0)	209 (100.0)	169 (100.0)	378 (100.0)

9) 동아리 가입 이유

동아리 활동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가입 이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폭넓은 인간관계(32.6%)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다양한 경험(12.7%), 적성개발과 취미생활(10.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의과대(62.5%)와 해양대(42.0%)가 폭넓은 인간관계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볼 때,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자아발견과 인격성숙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여학생 모두 폭넓은 인간관계, 다양한 경험 적성개발과 취미생활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9〉 동아리 가입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자아발견과 인격의 성숙	7 (12.3)	3 (6.1)	2 (2.5)	7 (14.0)	1 (2.6)	5 (6.2)	2 (2.2)	10 (11.2)	-	7 (3.5)	15 (7.8)	15 (10.1)	20 (6.9)	17 (6.7)	37 (6.8)
교양지식 확대	2 (3.5)	1 (2.0)	3 (3.7)	-	1 (2.6)	3 (3.7)	1 (1.1)	4 (4.5)	-	9 (4.5)	2 (1.0)	4 (2.7)	9 (3.1)	6 (2.4)	15 (2.8)
사 회 봉 사	1 (1.8)	-	2 (2.5)	-	-	1 (1.2)	3 (3.3)	1 (1.1)	-	3 (1.5)	4 (2.1)	1 (0.7)	4 (1.4)	4 (1.6)	8 (1.5)
폭 넓은 인간관계	21 (36.8)	15 (30.6)	28 (34.6)	13 (26.0)	11 (28.9)	34 (42.0)	27 (30.0)	23 (25.8)	5 (62.5)	68 (33.7)	65 (33.7)	44 (29.7)	88 (30.3)	89 (35.2)	177 (32.6)
다양한 경험	6 (10.5)	10 (20.4)	8 (9.9)	8 (16.0)	4 (10.5)	8 (9.9)	12 (13.3)	13 (14.6)	-	24 (11.9)	24 (12.4)	21 (14.2)	36 (12.4)	33 (13.0)	69 (12.7)
주위의 권유	2 (3.5)	4 (8.2)	4 (4.9)	5 (10.0)	2 (5.3)	4 (4.9)	6 (6.7)	6 (6.7)	-	12 (5.9)	12 (6.2)	9 (6.1)	17 (5.9)	16 (6.3)	33 (6.1)
적성개발과 취미생활	3 (5.3)	4 (8.2)	7 (8.6)	9 (18.0)	3 (7.9)	8 (9.9)	11 (12.2)	12 (13.5)	-	22 (10.9)	16 (8.3)	19 (12.8)	32 (11.0)	25 (9.9)	57 (10.5)
기 타	2 (3.5)	1 (2.0)	1 (1.2)	-	1 (2.6)	-	-	-	-	-	1 (0.5)	4 (2.7)	3 (1.0)	2 (0.8)	5 (0.9)
무 응 답	13 (22.8)	11 (22.4)	26 (32.1)	8 (16.0)	15 (39.5)	18 (22.2)	28 (31.1)	20 (22.5)	3 (37.5)	57 (28.2)	54 (28.0)	31 (20.9)	81 (27.9)	61 (24.1)	142 (26.2)
계	57 (100.0)	49 (100.0)	81 (100.0)	50 (100.0)	38 (100.0)	81 (100.0)	90 (100.0)	89 (100.0)	8 (100.0)	202 (100.0)	193 (100.0)	148 (100.0)	290 (100.0)	253 (100.0)	543 (100.0)

## 10) 활동 중인 동아리 특성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중인 동아리 특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활동 중인 동아리 특성은 취미지향(29.8%)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술지향(24.2%), 봉사지향(16.3%), 사교지향(9.6%), 종교지향(7.9%), 체육지향(6.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는 종교지향(22.7%), 취미지향(18.2%), 봉사지향(18.2%)의 순으로 동아리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법정대는 사교지향(36.8%), 취미지향(36.8%)의 순으로, 경상대(33.3%)와 공과대(37.9%)는 학술지향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사범대는 학술지향(31.3%), 취미지향(31.3%)이 가장 높고, 농과대(30.0%), 해양대(36.4%)는 취미지향(3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3·4학년 모두 취미지향, 학술지향, 봉사지향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미·학술·봉사에 대한 응답은 낮아지는 데 비해 실용·체육·종교에 대한 응답률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여 모두 취미지향, 학술지향, 봉사지향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실용·이념·취미·종교에 대한 응답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학술·봉사·체육에 대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10〉 활동 중인 동아리 특성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학 술 지 향	3 (13.6)	4 (21.1)	8 (33.3)	5 (31.3)	1 (10.0)	6 (18.2)	5 (20.0)	11 (37.9)	-	21 (27.3)	13 (22.0)	9 (21.4)	26 (25.7)	17 (22.1)	43 (24.2)
사 교 지 향	1 (4.5)	7 (36.8)	-	2 (12.5)	2 (20.0)	3 (9.1)	1 (4.0)	1 (3.4)	-	10 (13.0)	4 (6.8)	3 (7.1)	10 (9.9)	7 (9.1)	17 (9.6)
실 용 지 향	2 (9.1)	-	-	-	-	1 (3.0)	-	2 (6.9)	-	1 (1.3)	2 (3.4)	2 (4.8)	2 (2.0)	3 (3.9)	5 (2.8)
봉 사 지 향	4 (18.2)	-	6 (25.0)	2 (12.5)	2 (20.0)	8 (24.2)	3 (12.0)	4 (13.8)	-	14 (18.2)	9 (15.3)	6 (14.3)	19 (18.8)	10 (13.0)	29 (16.3)
이 념 지 향	1 (4.5)	-	-	-	-	-	1 (4.0)	-	-	-	1 (1.7)	1 (2.4)	-	2 (2.6)	2 (1.1)
취 미 지 향	4 (18.2)	7 (36.8)	6 (25.0)	5 (31.3)	3 (30.0)	12 (36.4)	10 (40.0)	6 (20.7)	-	24 (31.2)	19 (32.2)	10 (23.8)	29 (28.7)	24 (31.2)	53 (29.8)
체 육 지 향	1 (4.5)	1 (5.3)	3 (12.5)	-	1 (10.0)	2 (6.1)	2 (8.0)	1 (3.4)	-	5 (6.5)	1 (1.7)	5 (11.9)	8 (7.9)	3 (3.9)	11 (6.2)
종 교 지 향	5 (22.7)	-	-	2 (12.5)	1 (10.0)	-	3 (12.0)	3 (10.3)	-	2 (2.6)	6 (10.2)	6 (14.3)	5 (5.0)	9 (11.7)	14 (7.9)
기 타	1 (4.5)	-	-	-	-	-	-	1 (3.4)	-	-	2 (3.4)	-	1 (1.0)	1 (1.3)	2 (1.1)
부 응 답	-	-	1 (4.2)	-	-	1 (3.0)	-	-	-	-	2 (3.4)	-	1 (1.0)	1 (1.3)	2 (1.1)
계	22 (100.0)	19 (100.0)	24 (100.0)	16 (100.0)	10 (100.0)	33 (100.0)	25 (100.0)	29 (100.0)	-	77 (100.0)	59 (100.0)	42 (100.0)	101 (100.0)	77 (100.0)	178 (100.0)

11) 동아리 활동의 개선해야 할 점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문성있는 활동(24.5%)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쾌적한 분위기와 공간 문제(20.1%), 동아리의 다양성(8.5%), 학교측의 관심(7.7%) 등의 순으로 동아리 활동이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 반응을 보면, 의과대(36.4%), 사범대(32.9%), 법정대(27.3%) 등의 순으로 전문성 있는

활동을 가장 큰 개선점이라고 지적하였고, 해양대(29.0%)와 공과대(23.1%)는 쾌적한 분위기와 공간 문제를 가장 큰 개선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학년별로는 2·3·4학년 모두 전문성있는 활동, 쾌적한 분위기와 공간문제(20.1%), 동아리의 다양성(8.5%), 학교측의 관심(7.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아리의 다양성과 학교측의 관심은 학년이 낮을수록 동아리 활동의 개선점이라고 많이 지적하였고, 전문성있는 활동과 쾌적한 분위기와 공간 문제는 4학년이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여학생 모두 전문성있는 활동, 쾌적한 분위기와 공간문제 등의 순서로 응답해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11〉 동아리 활동의 개선해야 할 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전문성 있는 활동	26 (23.2)	27 (27.3)	39 (26.9)	26 (32.9)	12 (19.7)	24 (24.0)	35 (24.8)	33 (19.1)	4 (36.4)	81 (24.6)	78 (24.0)	67 (25.1)	117 (23.4)	109 (25.8)	226 (24.5)
쾌적한 분위기와 공 간 문 제	21 (18.8)	15 (15.2)	22 (15.2)	17 (21.5)	11 (18.0)	29 (29.0)	29 (20.6)	40 (23.1)	1 (9.1)	65 (19.8)	63 (19.4)	57 (21.3)	93 (18.6)	92 (21.8)	185 (20.1)
동아리의 다양성	10 (8.9)	5 (5.1)	15 (10.3)	3 (3.8)	7 (11.5)	7 (7.0)	13 (9.2)	15 (8.7)	3 (27.3)	36 (10.9)	26 (8.0)	16 (6.0)	40 (8.0)	38 (9.0)	78 (8.5)
학교측의 관심	7 (6.3)	9 (9.1)	4 (2.8)	3 (3.8)	5 (8.2)	8 (8.0)	17 (12.1)	17 (9.8)	1 (9.1)	32 (9.7)	25 (7.7)	14 (5.2)	43 (8.6)	28 (6.6)	71 (7.7)
시대의 적절성	3 (2.7)	7 (7.1)	6 (4.1)	3 (3.8)	1 (1.6)	6 (6.0)	2 (1.4)	4 (2.3)	-	9 (2.7)	13 (4.0)	10 (3.7)	16 (3.2)	16 (3.8)	32 (3.5)
사회에 대한 봉사	3 (2.7)	4 (4.0)	1 (0.7)	2 (2.5)	4 (6.6)	4 (4.0)	3 (2.1)	3 (1.7)	-	6 (1.8)	10 (3.1)	8 (3.0)	16 (3.2)	8 (1.9)	24 (2.6)
무 응 답	42 (37.5)	32 (32.3)	58 (40.0)	25 (31.6)	21 (34.4)	22 (22.0)	42 (29.8)	61 (35.3)	2 (18.2)	100 (30.4)	110 (33.8)	95 (35.6)	174 (34.9)	131 (31.0)	305 (33.1)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3. 학업문제에 관한 설문

#### 1) 전공 선택 동기

현재 전공의 선택 동기가 무엇이였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38.7%)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성적수준에 맞아서(30.8%), 주위의 권유로(14.1%), 취업

전망이 밝아서(11.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에서 10명 중 4명 정도가 자신의 적성과 취미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농과대와 해양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전체 응답과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인문대(60.7%)와 의과대(54.5%)가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농과대(73.8%)와 해양대(40.0%)는 성적수준에 맞아서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에 응답점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전체응답과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고,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 볼 때, 남·여학생 모두 전체 응답과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으며, 특이한 점은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에 남학생(37.3%)보다 여학생(40.4%)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데 비해 성적수준에 맞아서에는 여학생(27.3%) 보다 남학생(33.9%)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 결과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성적수준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적성과 취미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1〉 전공 선택 동기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적성과 취미가 맞 아 서	68 (60.7)	29 (29.3)	62 (42.8)	31 (39.2)	7 (11.5)	27 (27.0)	63 (44.7)	63 (36.4)	6 (54.5)	130 (39.5)	130 (40.0)	96 (36.0)	186 (37.3)	170 (40.3)	356 (38.7)
성 적 수 준 에 맞 아 서	20 (17.9)	24 (24.2)	33 (22.8)	25 (31.6)	45 (73.8)	40 (40.0)	42 (29.8)	54 (31.2)	1 (9.1)	101 (30.7)	102 (31.4)	81 (30.3)	169 (33.9)	115 (27.3)	284 (30.8)
취업 전 망 이 밝 아 서	8 (7.1)	11 (11.1)	16 (11.0)	10 (12.7)	1 (1.6)	20 (20.0)	14 (9.9)	22 (12.7)	2 (18.2)	39 (11.9)	33 (10.2)	32 (12.0)	56 (11.2)	48 (11.4)	104 (11.3)
주위의 권유로	9 (8.0)	27 (27.3)	22 (15.2)	11 (13.9)	7 (11.5)	9 (9.0)	19 (13.5)	24 (13.9)	2 (18.2)	40 (12.2)	46 (14.2)	44 (16.5)	70 (14.0)	60 (14.2)	130 (14.1)
기 타	7 (6.3)	5 (5.1)	12 (8.3)	1 (1.3)	1 (1.6)	4 (4.0)	2 (1.4)	7 (4.0)	-	15 (4.6)	13 (4.0)	11 (4.1)	15 (3.0)	24 (5.7)	39 (4.2)
무 응 답	-	3 (3.0)	-	1 (1.3)	-	-	1 (0.7)	3 (1.7)	-	4 (1.2)	1 (0.3)	3 (1.1)	3 (0.6)	5 (1.2)	8 (0.9)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2) 전공 학과에 대한 만족도

전공 학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통이다(47.8%)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만족스러운 편이다(34.3%), 불만스러운 편이다(10.2%), 매우

만족한다(5.8%), 매우 불만이다(2.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체응답과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으며, 특히 의과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보통이다(63.6%)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만족스러운편(27.3%) 또는 매우 만족(9.1%)에 응답을 보여 전공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고 나타났다.

학년·성별로 볼 때, 전체 응답과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고, 별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 전공 학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매우 만족한다	8 (7.1)	9 (9.1)	6 (4.1)	3 (3.8)	7 (11.5)	7 (7.0)	7 (5.0)	5 (2.9)	1 (9.1)	20 (6.1)	19 (5.8)	14 (5.2)	36 (7.2)	17 (4.0)	53 (5.8)
만족스러운 편이다	36 (32.1)	34 (34.3)	64 (44.1)	28 (35.4)	11 (18.0)	37 (37.0)	45 (31.9)	58 (33.5)	3 (27.3)	108 (32.8)	107 (32.9)	101 (37.8)	184 (36.9)	132 (31.3)	316 (34.3)
보통이다	52 (46.4)	43 (43.4)	65 (44.8)	44 (55.7)	33 (54.1)	48 (48.0)	62 (44.0)	86 (49.7)	7 (63.6)	163 (49.5)	163 (50.2)	114 (42.7)	223 (44.7)	217 (51.4)	440 (47.8)
불만스러운 편이다	15 (13.4)	11 (11.1)	9 (6.2)	1 (1.3)	9 (14.8)	7 (7.0)	24 (17.0)	18 (10.4)	-	32 (9.7)	29 (8.9)	33 (12.4)	46 (9.2)	48 (11.4)	94 (10.2)
매우 불만이다	1 (0.9)	2 (2.0)	1 (0.7)	3 (3.8)	1 (1.6)	1 (1.0)	3 (2.1)	6 (3.5)	-	6 (1.8)	7 (2.2)	5 (1.9)	10 (2.0)	8 (1.9)	18 (2.0)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3) 전공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38.4%)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교과내용이 기대에 어긋나서(19.6%), 원하던 전공분야가 아니어서(11.6%), 학과 교수진에 대한 불만 때문에(10.7%) 등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사범대(50.0%)가 원하던 전공분야가 아니어서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농과대, 해양대, 공과대, 의과대가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법정대와 경상대가 교과내용이 기대에 어긋나서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에 대한 응답은 남학생(37.5%) 보다 여학생(39.3%)이

더 높고, 원하던 전공분야가 아니어서는 여학생(8.9%) 보다 남학생(14.3%)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전공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원하던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1 (6.3)	1 (7.7)	-	2 (50.0)	2 (20.0)	1 (12.5)	3 (11.1)	3 (12.5)	3 (7.9)	3 (8.3)	7 (18.4)	13 (11.6)	8 (14.3)	5 (8.9)	13 (11.6)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아서	2 (12.5)	3 (23.1)	3 (30.0)	1 (25.0)	5 (50.0)	4 (50.0)	12 (44.4)	13 (54.2)	17 (44.7)	12 (33.3)	14 (36.8)	43 (38.4)	21 (37.5)	22 (39.3)	43 (38.4)
전망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2 (12.5)	1 (7.7)	-	-	1 (10.0)	1 (12.5)	3 (11.1)	3 (12.5)	4 (10.5)	3 (8.3)	4 (10.5)	11 (9.8)	6 (10.7)	5 (8.9)	11 (9.8)
교과내용이 기대에 어긋나서	4 (25.0)	6 (46.2)	5 (50.0)	-	1 (10.0)	2 (25.0)	2 (7.4)	2 (8.3)	4 (10.5)	12 (33.3)	6 (15.8)	22 (19.6)	11 (19.6)	11 (19.6)	22 (19.6)
학교 교수진에 대한 불만 때문에	4 (25.0)	2 (15.4)	1 (10.0)	1 (25.0)	1 (10.0)	-	2 (7.4)	1 (4.2)	5 (13.2)	3 (8.3)	4 (10.5)	12 (10.7)	6 (10.7)	6 (10.7)	12 (10.7)
학업능력이 부족해서	2 (12.5)	-	-	-	-	-	3 (11.1)	2 (8.3)	2 (5.3)	3 (8.3)	2 (5.3)	7 (6.3)	2 (3.6)	5 (8.9)	7 (6.3)
학우들과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	-	-	-	-	-	1 (3.7)	-	1 (2.6)	-	-	1 (0.9)	-	1 (1.8)	1 (0.9)
기 타	-	-	1 (10.0)	-	-	-	1 (3.7)	-	2 (5.3)	-	-	2 (1.8)	1 (1.8)	1 (1.8)	2 (1.8)
무 응 답	1 (6.3)	-	-	-	-	-	-	-	-	-	1 (2.6)	1 (0.9)	1 (1.8)	-	1 (0.9)
계	16 (100.0)	13 (100.0)	10 (100.0)	4 (100.0)	10 (100.0)	8 (100.0)	27 (100.0)	24 (100.0)	38 (100.0)	36 (100.0)	38 (100.0)	112 (100.0)	56 (100.0)	56 (100.0)	112 (100.0)

4) 전공과 취업준비 학습의 비중도

평소 전공과 취업준비 학습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공(27.5%)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준비 학습(23.7%), 반반 정도(22.7%), 일정치 않다(19.7%)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가 전공(81.8%)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법정대(40.4%), 경상대(33.1%), 농과대(26.2%)는 전공보다는 취업준비 학습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전공에 대한 비중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하는데 비해 취업준비 학습은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공에 대한 비중은 남학생(24.6%) 보다 여학생(30.8%)이 더 높고, 취업준비 학습은 여학생(19.75) 보다 남학생(27.1%)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 전공과 취업준비 학습의 비중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전 공	44 (39.3)	13 (13.1)	24 (16.6)	28 (35.4)	12 (19.7)	22 (22.0)	50 (35.5)	51 (29.5)	9 (81.8)	113 (34.3)	80 (24.6)	60 (22.5)	123 (24.6)	130 (30.8)	253 (27.5)
취업준비 학습	15 (13.4)	40 (40.4)	48 (33.1)	10 (12.7)	16 (26.2)	21 (21.0)	34 (24.1)	34 (19.7)	-	47 (14.3)	77 (23.7)	94 (35.2)	135 (27.1)	83 (19.7)	218 (23.7)
반 반 정 도	25 (22.3)	21 (21.2)	33 (22.8)	20 (25.3)	11 (18.0)	26 (26.0)	27 (19.1)	44 (25.4)	2 (18.2)	68 (20.7)	77 (23.7)	64 (24.0)	111 (22.2)	98 (23.2)	209 (22.7)
일 정 치 않 다	22 (19.6)	18 (18.2)	28 (19.3)	14 (17.7)	17 (27.9)	23 (23.0)	25 (17.7)	34 (19.7)	-	73 (22.2)	70 (21.5)	38 (14.2)	95 (19.0)	86 (20.4)	181 (19.7)
둘 다 거의 하지 않는다	3 (2.7)	5 (5.1)	11 (7.6)	6 (7.6)	4 (6.6)	5 (5.0)	5 (3.5)	10 (5.8)	-	26 (7.9)	17 (5.2)	6 (2.2)	27 (5.4)	22 (5.2)	49 (5.3)
무 응 답	3 (2.7)	2 (2.0)	1 (0.7)	1 (1.3)	1 (1.6)	3 (3.0)	-	-	-	2 (0.6)	4 (1.2)	5 (1.9)	8 (1.6)	3 (0.7)	11 (1.2)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5) 학부제 실시 후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

학부제가 실시되고 난 뒤, 학생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학우들간의 결속력 부족(37.9%), 선·후배 관계 단절(25.5%), 소속감 저하(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학부와 단과대학에서 학부제 실시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연대와 의과대가 1순위로 선·후배 관계 단절을, 2순위로는 학우들간의 결속력 부족을 꼽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응답 순을 보였다. 특히, 사범대는 전공 편중으로 위화감 조성(8.9%)을 농과대는 소속감 저하(32.8%)를 다른 단과대 보다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응답 순을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선·후배 관계 단절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하는데 비해 학우들간의 결속력 부족은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성별로 보면, 학우들간의 결속력 부족에 대한 응답률은 남학생(35.3%) 보다 여학생(39.1%)이 더 높고, 선·후배 관계 단절은 여학생(20.4) 보다 남학생(20.9%)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5〉 학부제 실시 후 문제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선·후배 관계 단절	20 (17.9)	28 (28.3)	47 (32.4)	9 (11.4)	6 (9.8)	27 (27.0)	52 (36.9)	42 (24.3)	4 (36.4)	66 (20.1)	84 (25.8)	85 (31.8)	149 (29.9)	86 (20.4)	235 (25.5)
학우들간의 결속력 부족	38 (33.9)	40 (40.4)	52 (35.9)	34 (43.0)	28 (45.9)	37 (37.0)	45 (31.9)	64 (37.0)	3 (27.3)	143 (43.5)	110 (33.8)	88 (33.0)	176 (35.3)	165 (39.1)	341 (37.0)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 약화	2 (1.8)	3 (3.0)	6 (4.1)	1 (1.3)	-	1 (1.0)	3 (2.1)	6 (3.5)	-	7 (2.1)	7 (2.2)	8 (3.0)	12 (2.4)	10 (2.4)	22 (2.4)
소속감이 없다	31 (27.7)	16 (16.2)	28 (19.3)	14 (17.7)	20 (32.8)	14 (14.0)	29 (20.6)	34 (19.7)	2 (18.2)	68 (20.7)	74 (22.8)	46 (17.2)	94 (18.8)	94 (22.3)	188 (20.4)
전공 편중으로 위화감 조성	9 (8.0)	2 (2.0)	5 (3.4)	7 (8.9)	3 (4.9)	8 (8.0)	4 (2.8)	2 (1.2)	-	14 (4.3)	16 (4.9)	10 (3.7)	17 (3.4)	23 (5.5)	40 (4.3)
행정적 불편	1 (0.9)	3 (3.0)	2 (1.4)	-	-	6 (6.0)	1 (0.7)	8 (4.6)	1 (9.1)	7 (2.1)	8 (2.5)	7 (2.6)	12 (2.4)	10 (2.4)	22 (2.4)
기 타	5 (4.5)	4 (4.0)	3 (2.1)	3 (3.8)	1 (1.6)	3 (3.0)	2 (1.4)	5 (2.9)	-	7 (2.1)	9 (2.8)	10 (3.7)	17 (3.4)	9 (2.1)	26 (2.8)
부 응 답	6 (5.4)	3 (3.0)	2 (1.4)	11 (13.9)	3 (4.9)	4 (4.0)	5 (3.5)	12 (6.9)	1 (9.1)	17 (5.2)	17 (5.2)	13 (4.9)	22 (4.4)	25 (5.9)	47 (5.1)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6) 전과에 대한 의향 유무

전과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없다(73.8%), 있다(24.4%)에 응답을 보였다. 이와 같이 10명 중 3명은 자신의 전공을 바꿀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의과대(9.1%), 사범대(10.2%)가 있다에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연대(37.6%), 농과대(32.8%)가 있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25.1%)이 남학생(23.8%) 보다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6〉 전과에 대한 의향 유무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있 다	25 (22.3)	24 (24.2)	30 (20.7)	8 (10.1)	20 (32.8)	22 (22.0)	53 (37.6)	42 (24.3)	1 (9.1)	93 (28.3)	73 (22.5)	59 (22.1)	119 (23.8)	106 (25.1)	225 (24.4)
없 다	85 (75.9)	74 (74.7)	113 (77.9)	70 (88.6)	41 (67.2)	74 (74.0)	88 (62.4)	126 (72.8)	9 (81.8)	231 (70.2)	247 (76.0)	202 (75.7)	370 (74.1)	310 (73.5)	680 (73.8)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무 응 답	2 (1.8)	1 (1.0)	2 (1.4)	1 (1.3)	-	4 (4.0)	-	5 (2.9)	1 (9.1)	5 (1.5)	5 (1.5)	6 (2.2)	10 (2.0)	6 (1.4)	16 (1.7)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7) 전과의 의향 이유

전과할 의향에 대한 이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42.2%)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36.4%), 전공이 취업에 불리해서(9.3%) 등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과에 대한 의향이 가장 높은 농과대인 경우,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45.0%)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고, 자연대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47.2%)를 첫째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의과대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를 들었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응답 순을 보였고, 특이한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 보면,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에 대한 응답률은 남학생(38.7%) 보다 여학생(46.2%)이 더 높고,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는 여학생(35.8) 보다 남학생(37.0%)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 전과 의향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14 (56.0)	11 (45.8)	13 (43.3)	3 (37.5)	6 (30.0)	9 (40.9)	25 (47.2)	14 (33.3)	-	39 (41.9)	30 (41.1)	26 (44.1)	46 (38.7)	49 (46.2)	95 (42.2)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8 (32.0)	9 (37.5)	9 (30.0)	3 (37.5)	9 (45.0)	11 (50.0)	14 (26.4)	18 (42.9)	1 (100.0)	34 (36.6)	24 (32.9)	24 (40.7)	44 (37.0)	38 (35.8)	82 (36.4)
전공이 취업에 불리해서	3 (12.0)	3 (12.5)	1 (3.3)	-	3 (15.0)	2 (9.1)	6 (11.3)	3 (7.1)	-	7 (7.5)	10 (13.7)	4 (6.8)	13 (10.9)	8 (7.5)	21 (9.3)
전공이 어려워서	-	-	3 (10.0)	1 (12.5)	-	-	6 (11.3)	5 (11.9)	-	8 (8.6)	5 (6.8)	2 (3.4)	8 (6.7)	7 (6.6)	15 (6.7)
기 타	-	-	4 (13.3)	1 (12.5)	2 (10.0)	-	2 (3.8)	1 (2.4)	-	5 (5.4)	3 (4.1)	2 (3.4)	7 (5.9)	3 (2.8)	10 (4.4)
무 응 답	-	1 (4.2)	-	-	-	-	-	1 (2.4)	-	-	1 (1.4)	1 (1.7)	1 (0.8)	1 (0.9)	2 (0.9)
계	25 (100.0)	24 (100.0)	30 (100.0)	8 (100.0)	20 (100.0)	22 (100.0)	53 (100.0)	42 (100.0)	1 (100.0)	93 (100.0)	73 (100.0)	59 (100.0)	119 (100.0)	106 (100.0)	225 (100.0)

8) 복수전공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 유무

복수전공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없다(72.5%), 있다(24.3%)에 응답을 보였다. 이는 제주대학생 10명 중 7명은 복수전공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의과대의 모든 학생(100%)이 없는데 응답을 하였고, 사범대(46.8%)와 경상대(30.3%)가 있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해양대(15.0%), 공과대(16.2%)가 있다에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2학년(40.4%)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25.4%)이 남학생(23.4%) 보다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8〉 복수전공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 유무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있	30 (26.8)	25 (25.3)	44 (30.3)	37 (46.8)	17 (27.9)	15 (15.0)	28 (19.9)	28 (16.2)	-	133 (40.4)	49 (15.1)	42 (15.7)	117 (23.4)	107 (25.4)	224 (24.3)
없	76 (67.9)	71 (71.7)	98 (67.6)	40 (50.6)	43 (70.5)	80 (80.0)	111 (78.7)	138 (79.8)	11 (100.0)	190 (57.8)	264 (81.2)	214 (80.1)	368 (73.7)	300 (71.1)	668 (72.5)
부 응 답	6 (5.4)	3 (3.0)	3 (2.1)	2 (2.5)	1 (1.6)	5 (5.0)	2 (1.4)	7 (4.0)	-	6 (1.8)	12 (3.7)	11 (4.1)	14 (2.8)	15 (3.6)	29 (3.1)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9) 복수전공의 의향 이유

복수전공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공을 학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34.8%), 전공에 만족하지만 타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34.8%)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고, 그 다음으로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11.6%), 전공이 적성과 맞지 않아서(7.6%)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단과대학별로 볼 때,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는 전공을 학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를 첫째 순위로 꼽았고, 인문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는 전공에 만족하지만 타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를 첫째 이유로 꼽았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유사한 응답 순을 보였고, 특이한 점은 학년 중에 2학년이 전공이 적성과 맞지 않아서(8.2%)에 3·4학년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37.4%)이 전공을 학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남학생(32.5%) 보다 더 높았고, 전공에 만족하지만 타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는 남학생(39.3%)이 여학생(29.9%)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3-9〉 복수전공 의향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전공을 학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6 (20.0)	12 (48.0)	22 (50.0)	17 (45.9)	6 (35.3)	5 (33.3)	3 (10.7)	7 (25.0)	47 (35.3)	16 (32.7)	15 (35.7)	78 (34.8)	38 (32.5)	40 (37.4)	78 (34.8)
전공이 적성과 맞지 않아서	2 (6.7)	1 (4.0)	3 (6.8)	-	1 (5.9)	-	7 (25.0)	3 (10.7)	11 (8.3)	4 (8.2)	2 (4.8)	17 (7.6)	8 (6.8)	9 (8.4)	17 (7.6)
전공에 만족하지만 타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13 (43.3)	9 (36.0)	11 (25.0)	9 (24.3)	4 (23.5)	7 (46.7)	11 (39.3)	14 (50.0)	47 (35.3)	15 (30.6)	16 (38.1)	78 (34.8)	46 (39.3)	32 (29.9)	78 (34.8)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6 (20.0)	2 (8.0)	3 (6.8)	2 (5.4)	4 (23.5)	1 (6.7)	6 (21.4)	2 (7.1)	15 (11.3)	7 (14.3)	4 (9.5)	26 (11.6)	14 (12.0)	12 (11.2)	26 (11.6)
기 타	1 (3.3)	1 (4.0)	4 (9.1)	5 (13.5)	1 (5.9)	2 (13.3)	1 (3.6)	2 (7.1)	11 (8.3)	3 (6.1)	3 (7.1)	17 (7.6)	7 (6.0)	10 (9.3)	17 (7.6)
무 응 답	2 (6.7)	-	1 (2.3)	4 (10.8)	1 (5.9)	-	-	-	2 (1.5)	4 (8.2)	2 (4.8)	8 (3.6)	4 (3.4)	4 (3.7)	8 (3.6)
계	30 (100.0)	25 (100.0)	44 (100.0)	37 (100.0)	17 (100.0)	15 (100.0)	28 (100.0)	28 (100.0)	133 (100.0)	49 (100.0)	42 (100.0)	224 (100.0)	117 (100.0)	107 (100.0)	224 (100.0)

10) 복수전공할 계획이 없는 이유

복수전공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하고 싶지만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43.6%)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공에 만족함으로(26.9%), 관심분야가 없어서(12.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다른 대학 보다 농과대, 해양대, 의과대가 하고 싶지만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해양대, 경상대, 인문대는 전공에 만족함으로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볼 때,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전공에 만족함으로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감소함을 보였다.

성별로 볼 때, 하고 싶지만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에는 남학생(37.0%) 보다 여학생(51.7%)의 응답률이 높았고, 전공에 만족함으로에는 남학생(32.1%)이 여학생(20.7%)의 응답률이 높았다.

〈표 3-10〉 복수전공할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전 공 에 만 족 하 므 로	22 (28.9)	20 (28.2)	28 (28.6)	11 (27.5)	7 (16.3)	24 (30.0)	27 (24.3)	38 (27.5)	3 (27.3)	59 (31.1)	72 (27.3)	49 (22.9)	118 (32.1)	62 (20.7)	180 (26.9)
하고 싶지만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	31 (40.8)	27 (38.0)	43 (43.9)	16 (40.0)	23 (53.5)	40 (50.0)	48 (43.2)	58 (42.0)	5 (45.5)	86 (45.3)	124 (47.0)	81 (37.9)	136 (37.0)	155 (51.7)	291 (43.6)
관심 분야가 없 어 서	3 (3.9)	15 (21.1)	11 (11.2)	3 (7.5)	7 (16.3)	5 (6.3)	15 (13.5)	25 (18.1)	1 (9.1)	18 (9.5)	40 (15.2)	27 (12.6)	49 (13.3)	36 (12.0)	85 (12.7)
기 타	8 (10.5)	6 (8.5)	9 (9.2)	7 (17.5)	2 (4.7)	6 (7.5)	13 (11.7)	7 (5.1)	1 (9.1)	10 (5.3)	14 (5.3)	35 (16.4)	32 (8.7)	27 (9.0)	59 (8.8)
부 응 답	12 (15.8)	3 (4.2)	7 (7.1)	3 (7.5)	4 (9.3)	5 (6.3)	8 (7.2)	10 (7.2)	1 (9.1)	17 (8.9)	14 (5.3)	22 (10.3)	33 (9.0)	20 (6.7)	53 (7.9)
계	76 (100.0)	71 (100.0)	98 (100.0)	40 (100.0)	43 (100.0)	80 (100.0)	111 (100.0)	138 (100.0)	11 (100.0)	190 (100.0)	264 (100.0)	214 (100.0)	368 (100.0)	300 (100.0)	668 (100.0)

11) 수강신청시 교과목에 대한 정보

수강신청시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과목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알고 한다(45.0%)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르고 한다(43.2%), 거의 모르고 한다(7.9%), 충분히 알고 한다(2.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알고 한다와 충분히 알고 한다는 응답 합계 보다 모르고 한다와 거의 모르고 한다는 응답 합계를 합친 경우가 더 앞서는데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의과대가 모르고 하는 편이다(72.7%)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서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을 보였다. 특히 사범대(49.4%)가 알고 하는 편이다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을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모르고 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을 보였으며, 모르고 하는 편이다는 남학생(40.7%) 보다 여학생(46.2%) 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11〉 수강교과목에 대한 정보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충분히 알고 있다	2 (1.8)	6 (6.1)	5 (3.4)	2 (2.5)	1 (1.6)	2 (2.0)	3 (2.1)	3 (1.7)	1 (9.1)	7 (2.1)	5 (1.5)	13 (4.9)	18 (3.6)	7 (1.7)	25 (2.7)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알고 하는 편이다	50 (44.6)	45 (45.5)	70 (48.3)	39 (49.4)	29 (47.5)	45 (45.0)	59 (41.8)	76 (43.9)	1 (9.1)	121 (36.8)	165 (50.8)	128 (47.9)	225 (45.1)	189 (44.8)	414 (45.0)
모르고 하는 편이다	48 (42.9)	39 (39.4)	57 (39.3)	29 (36.7)	29 (47.5)	44 (44.0)	72 (51.1)	72 (41.6)	8 (72.7)	161 (48.9)	134 (41.2)	103 (38.6)	203 (40.7)	195 (46.2)	398 (43.2)
거의 모르고 한다	10 (8.9)	9 (9.1)	13 (9.0)	5 (6.3)	2 (3.3)	6 (6.0)	6 (4.3)	21 (12.1)	1 (9.1)	35 (10.6)	16 (4.9)	22 (8.2)	46 (9.2)	27 (6.4)	73 (7.9)
무 응 답	2 (1.8)	-	-	4 (5.1)	-	3 (3.0)	1 (0.7)	1 (0.6)	-	5 (1.5)	5 (1.5)	1 (0.4)	7 (1.4)	4 (0.9)	11 (1.2)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2. 수강신청을 정정하는 이유

수강신청을 정정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시간표 조정을 위해(29.8%)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강의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17.7%), 학점취득을 쉽게 하려고(9.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볼 때,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로 볼 때,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표 조정을 위해(29.8%)에는 4학년(32.6%)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강의방식이 맘에 들지 않아서는 3학년(20.3%)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볼 때,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표 조정을 위해서는 남학생(27.3%) 보다 여학생(32.6%)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2〉 수강신청을 정정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시간표 조정을 위해	43 (38.4)	35 (35.4)	40 (27.6)	24 (30.4)	15 (24.6)	23 (23.0)	47 (33.3)	45 (26.0)	2 (18.2)	102 (31.0)	85 (26.2)	87 (32.6)	136 (27.3)	138 (32.7)	274 (29.8)
수강인원이 많아	3 (2.7)	10 (10.1)	10 (6.9)	2 (2.5)	4 (6.6)	6 (6.0)	5 (3.5)	7 (4.0)	1 (9.1)	21 (6.4)	15 (4.6)	12 (4.5)	33 (6.6)	15 (3.6)	48 (5.2)
강의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15 (13.4)	19 (19.2)	33 (22.8)	6 (7.6)	10 (16.4)	15 (15.0)	28 (19.9)	36 (20.8)	1 (9.1)	47 (14.3)	66 (20.3)	50 (18.7)	86 (17.2)	77 (18.2)	163 (17.7)
폐강되어	-	3 (3.0)	6 (4.1)	3 (3.8)	2 (3.3)	2 (2.0)	8 (5.7)	5 (2.9)	1 (9.1)	7 (2.1)	11 (3.4)	12 (4.5)	21 (4.2)	9 (2.1)	30 (3.3)
학점 취득을 쉽게 하려고	15 (13.4)	10 (10.1)	17 (11.7)	6 (7.6)	3 (4.9)	8 (8.0)	10 (7.1)	15 (8.7)	1 (9.1)	32 (9.7)	37 (11.4)	16 (6.0)	35 (7.0)	50 (11.8)	85 (9.2)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과 제 물 이 부담스러워서	5 (4.5)	4 (4.0)	2 (1.4)	6 (7.6)	2 (3.3)	4 (4.0)	8 (5.7)	3 (1.7)	1 (9.1)	13 (4.0)	12 (3.7)	10 (3.7)	15 (3.0)	20 (4.7)	35 (3.8)
기 타	1 (0.9)	2 (2.0)	2 (1.4)	1 (1.3)	-	1 (1.0)	1 (0.7)	4 (2.3)	-	6 (1.8)	5 (1.5)	1 (0.4)	8 (1.6)	4 (0.9)	12 (1.3)
부 응 답	30 (26.8)	16 (16.2)	35 (24.1)	31 (39.2)	25 (41.0)	41 (41.0)	34 (24.1)	58 (33.5)	4 (36.4)	101 (30.7)	94 (28.9)	79 (29.6)	165 (33.1)	109 (25.8)	274 (29.8)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3) 수강신청시 불만사항 및 문제점(두 가지)

수강신청시 불만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전정보의 부족함(53.1%)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교양과목 선택의 폭이 좁다(44.8%), 수강과목 내용이 기대와 다르다(40.7%), 수강과목 인원배정 문제(24.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로 볼 때,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양과목 선택의 폭이 좁다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볼 때,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교양과목 선택의 폭이 좁다는 남학생(41.9%) 보다 여학생(48.3%)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사전 정보부족은 남학생(53.9%)이 여학생(52.1%)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13> 수강신청시 불만사항 및 문제점(두 가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교양과목 선택의 폭이 좁다(개설과목 부족)	58 (51.8)	48 (48.5)	61 (42.1)	31 (39.2)	23 (37.7)	38 (38.0)	71 (50.4)	75 (43.4)	8 (72.7)	135 (41.0)	150 (46.2)	128 (47.9)	209 (41.9)	204 (48.3)	413 (44.8)
사전 정보 부족	53 (47.3)	49 (49.5)	78 (53.8)	37 (46.8)	34 (55.7)	61 (61.0)	69 (48.9)	103 (59.5)	5 (45.5)	184 (55.9)	160 (49.2)	145 (54.3)	269 (53.9)	220 (52.1)	489 (53.1)
컴퓨터로 접속이 어 렵 다	10 (8.9)	9 (9.1)	16 (11.0)	8 (10.1)	6 (9.8)	16 (16.0)	17 (12.1)	28 (16.2)	4 (36.4)	65 (19.8)	31 (9.5)	18 (6.7)	65 (13.0)	49 (11.6)	114 (12.4)
수 강 과 목 인원배정 문제	19 (17.0)	33 (33.3)	31 (21.4)	18 (22.8)	20 (32.8)	27 (27.0)	28 (19.9)	48 (27.7)	1 (9.1)	82 (24.9)	73 (22.5)	70 (26.2)	136 (27.3)	89 (21.1)	225 (24.4)
수강과목 내용이 기대와 다르다	53 (47.3)	38 (38.4)	63 (43.4)	39 (49.4)	22 (36.1)	37 (37.0)	65 (46.1)	54 (31.2)	4 (36.4)	115 (35.0)	148 (45.5)	112 (41.9)	189 (37.9)	186 (44.1)	375 (40.7)
무 응 답	31 (27.7)	21 (21.2)	41 (28.3)	25 (31.6)	17 (27.9)	21 (21.0)	32 (22.7)	38 (22.0)	-	77 (23.4)	88 (27.1)	61 (22.8)	130 (26.1)	96 (22.7)	226 (24.5)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658 (100.0)	650 (100.0)	534 (100.0)	998 (100.0)	844 (100.0)	1,842 (100.0)

14)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

교수의 강의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나 과목에 따라 다르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체로 불만족스러우나 만족스러운 과목도 있다(32.6%), 전체적으로 불만스럽다(5.1%)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의과대가 대체로 불만족스러우나 만족스러운 과목도 있다(54.5%), 대체로 만족하나 과목에 따라 다르다(45.5%) 순으로 나온 것을 제외하고 다른 대학에서는 모두 전체 응답결과 같은 순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나 과목에 따라 다르다에 응답률은 해양대(71.0%)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연대(63.1%), 법정대(6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2·3·4학년에서 모두 대체로 만족하나 과목에 따라 다르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체로 만족하나 과목에 따라 다르다는 남학생(61.5%)이 여학생(59.2%)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대체로 불만족스러우나 만족스러운 과목도 있다는 남학생(30.1%) 보다 여학생(35.5%)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14〉 강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매우 만족하다	1 (0.9)	3 (3.0)	1 (0.7)	1 (1.3)	2 (3.3)	3 (3.0)	1 (0.7)	2 (1.2)	-	4 (1.2)	6 (1.8)	4 (1.5)	12 (2.4)	2 (0.5)	14 (1.5)
대체로 만족하나 과목에 따라 다르다	61 (54.5)	60 (60.6)	85 (58.6)	49 (62.0)	36 (59.0)	71 (71.0)	89 (63.1)	101 (58.4)	5 (45.5)	201 (61.1)	191 (58.8)	165 (61.8)	307 (61.5)	250 (59.2)	557 (60.5)
대체로 불만족스러우나 만족스러운 과목도 있다	44 (39.3)	28 (28.3)	56 (38.6)	21 (26.6)	19 (31.1)	24 (24.0)	44 (31.2)	58 (33.5)	6 (54.5)	106 (32.2)	111 (34.2)	83 (31.1)	150 (30.1)	150 (35.5)	300 (32.6)
전체적으로 불만스럽다	6 (5.4)	7 (7.1)	3 (2.1)	6 (7.6)	4 (6.6)	2 (2.0)	7 (5.0)	12 (6.9)	-	17 (5.2)	15 (4.6)	15 (5.6)	28 (5.6)	19 (4.5)	47 (5.1)
무응답	-	1 (1.0)	-	2 (2.5)	-	-	-	-	-	1 (0.3)	2 (0.6)	-	2 (0.4)	1 (0.2)	3 (0.3)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5) 교수와 한 학기당 상담횟수

한 학기 중 교수님과의 상담횟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혀 없다(71.2%)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학기당 1~2회(22.4%), 학기당 3~4회(4.8%)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이 상담하는 기회를 별로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혀 없다가 인문대(76.8%), 농과대(75.4%), 사범대(74.7%) 등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고, 해양대(62.0%)가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해양대는 다른 대학 보다 학기당 1~2회(30.0%), 학기당 3~4회(8.0%)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전혀없다가에 대한 응답률은 감소함을 보이고, 학기당 1~2회는 증가함을 보여 고학년이 될수록 교수와의 상담횟수가 많아짐을 짐작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전혀 없다가에 대한 응답률은 남학생(67.1%) 보다 여학생(76.1%)이 더 높고, 학기당 1~2회와 학기당 3~4회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5〉 교수와 한 학기당 상담횟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전 혀 없 다	86 (76.8)	73 (73.7)	105 (72.4)	59 (74.7)	46 (75.4)	62 (62.0)	94 (66.7)	123 (71.1)	8 (72.7)	258 (78.4)	235 (72.3)	163 (61.0)	335 (67.1)	321 (76.1)	656 (71.2)
학기당 1~2회	19 (17.0)	22 (22.2)	31 (21.4)	13 (16.5)	12 (19.7)	30 (30.0)	39 (27.7)	37 (21.4)	3 (27.3)	54 (16.4)	74 (22.8)	78 (29.2)	124 (24.8)	82 (19.4)	206 (22.4)
학기당 3~4회	7 (6.3)	3 (3.0)	4 (2.8)	4 (5.1)	2 (3.3)	8 (8.0)	5 (3.5)	11 (6.4)	-	14 (4.3)	9 (2.8)	21 (7.9)	29 (5.8)	15 (3.6)	44 (4.8)
학기당 5~6회	-	-	1 (0.7)	-	1 (1.6)	-	1 (0.7)	1 (0.6)	-	2 (0.6)	1 (0.3)	1 (0.4)	3 (0.6)	1 (0.2)	4 (0.4)
학기당 7회 이상	-	1 (1.0)	3 (2.1)	2 (2.5)	-	-	2 (1.4)	1 (0.6)	-	1 (0.3)	4 (1.2)	4 (1.5)	8 (1.6)	1 (0.2)	9 (1.0)
무 응 답	-	-	1 (0.7)	1 (1.3)	-	-	-	-	-	-	2 (0.6)	-	-	2 (0.5)	2 (0.2)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6) 교수와의 상담내용

교수와의 상담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진로문제(17.0%)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학업문제(15.3%), 개인적 신상문제(5.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자연대가 학업문제(19.1%), 진로문제(17.7%)의 순으로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대학에서는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했다. 구체적으로 진로문제에는 의과대(27.3%)와 해양대(20.0%)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학업문제에는 자연대(19.1%), 의과대(18.2%) 등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은 진로문제(12.2%) 보다 학업문제(15.2%)에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3·4학년은 이 반대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특히 진로문제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으며, 특이한 점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학업문제, 진로문제, 개인적 신상문제에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응답이 높은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교수들과 학업, 진로, 개인 등의 문제로 상담을 한 경험이 없음을 나타낸다.

〈표 3-16〉 교수와의 상담내용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학 업 문 제	20 (17.9)	11 (11.1)	18 (12.4)	10 (12.7)	9 (14.8)	16 (16.0)	27 (19.1)	28 (16.2)	2 (18.2)	50 (15.2)	46 (14.2)	45 (16.9)	81 (16.2)	60 (14.2)	141 (15.3)
진 로 문 제	17 (15.2)	18 (18.2)	26 (17.9)	12 (15.2)	8 (13.1)	20 (20.0)	25 (17.7)	28 (16.2)	3 (27.3)	40 (12.2)	55 (16.9)	62 (23.2)	98 (19.6)	59 (14.0)	157 (17.0)
개인적 신상문제	2 (1.8)	5 (5.1)	6 (4.1)	4 (5.1)	4 (6.6)	11 (11.0)	6 (4.3)	9 (5.2)	-	17 (5.2)	15 (4.6)	15 (5.6)	33 (6.6)	14 (3.3)	47 (5.1)
사회현상 문제	-	-	-	-	1 (1.6)	1 (1.0)	-	-	-	1 (0.3)	1 (0.3)	-	2 (0.4)	-	2 (0.2)
기 타	3 (2.7)	4 (4.0)	3 (2.1)	6 (7.6)	1 (1.6)	3 (3.0)	4 (2.8)	7 (4.0)	-	12 (3.6)	6 (1.8)	13 (4.9)	17 (3.4)	14 (3.3)	31 (3.4)
무 응 답	70 (62.5)	61 (61.6)	92 (63.4)	47 (59.5)	38 (62.3)	49 (49.0)	79 (56.0)	101 (58.4)	6 (54.5)	209 (63.5)	202 (62.2)	132 (49.4)	268 (53.7)	275 (65.2)	543 (59.0)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17) 지도교수로 선택하고 싶은 교수

지도교수로 선택하고 싶은 교수는 어떤 교수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학생문제에 관심이 많은 교수(47.4%)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훌륭한 인품을 갖춘 교수(21.5%), 전공분야에 실력이 많은 교수(13.9%), 학문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수(12.3%) 등의 순서로 응답률을 나타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나타냈으며, 특히 학생문제에 관심이 많은 교수에는 자연대(57.4%), 경상대(50.5%), 법정대(50.0%) 순으로 응답을 보였으며, 훌륭한 인품을 갖춘 교수에는 해양대(28.0%), 공과대(24.3%), 사범대(24.1%)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학문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수에는 사범대(17.7%), 농과대(13.1%), 경상대(13.1%)의 순으로 응답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나타냈으며, 학생문제에 관심이 많은 교수에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보이고 있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교수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나타냈으며 학생문제에 관심이 많은 교수, 전공 분야에 실력이 많은 교수, 학문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3-17〉 지도교수로 선택하고 싶은 교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학생문제에 관심이 많은 교수	50 (44.6)	50 (50.5)	74 (51.0)	29 (36.7)	30 (49.2)	44 (44.0)	81 (57.4)	75 (43.4)	4 (36.4)	145 (44.1)	150 (46.2)	142 (53.2)	240 (48.1)	197 (46.7)	437 (47.4)
훌륭한 인품을 갖춘 교수	27 (24.1)	19 (19.2)	26 (17.9)	19 (24.1)	11 (18.0)	28 (28.0)	24 (17.0)	42 (24.3)	2 (18.2)	74 (22.5)	79 (24.3)	45 (16.9)	97 (19.4)	101 (23.9)	198 (21.5)
학문지도에 최선을 다 하는 교수	14 (12.5)	11 (11.1)	19 (13.1)	14 (17.7)	8 (13.1)	8 (8.0)	16 (11.3)	22 (12.7)	1 (9.1)	41 (12.5)	37 (11.4)	35 (13.1)	64 (12.8)	49 (11.6)	113 (12.3)
전공분야에 실력이 많은 교수	17 (15.2)	16 (16.2)	19 (13.1)	13 (16.5)	6 (9.8)	16 (16.0)	12 (8.5)	26 (15.0)	3 (27.3)	55 (16.7)	39 (12.0)	34 (12.7)	73 (14.6)	55 (13.0)	128 (13.9)
저술 학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교수	-	-	1 (0.7)	-	1 (1.6)	1 (1.0)	4 (2.8)	1 (0.6)	-	4 (1.2)	2 (0.6)	2 (0.7)	6 (1.2)	2 (0.5)	8 (0.9)
사회 정치활동에 적극적인 교수	3 (2.7)	1 (1.0)	2 (1.4)	2 (2.5)	2 (3.3)	-	2 (1.4)	-	1 (9.1)	3 (0.9)	8 (2.5)	2 (0.7)	5 (1.0)	8 (1.9)	13 (1.4)
무 응 답	1 (0.9)	2 (2.0)	4 (2.8)	2 (2.5)	3 (4.9)	3 (3.0)	2 (1.4)	7 (4.0)	-	7 (2.1)	10 (3.1)	7 (2.6)	14 (2.8)	10 (2.4)	24 (2.6)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4. 행정서비스 및 학교발전에 관한 설문

##### 1) 행정직원의 친절도

학교 행정직원이 친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51.5%)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친절한 편이다(29.0%), 불친절한 편이다(12.2%), 매우 친절하다(1.6%)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체응답과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으며 다른 대학에 비해 해양대(38.0%), 공과대(37.0%)가 친절한 편이다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의과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불친절한 편이다(27.3%)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과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고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그저 그렇다, 친절한 편이다, 매우 친절하다에 답한 응답자는 감소하는데 비해 불친절한 편이다, 매우 불친절하다에는 응답률이 증가함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친절한 편이다와 매우 친절하다는 응답률의 합계가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 불친절한 편이다와 매우 불친절하다는 응답률의 합계는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 행정직원의 친절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매우 친절하다	4 (3.6)	1 (1.0)	1 (0.7)	1 (1.3)	2 (3.3)	2 (2.0)	2 (1.4)	2 (1.2)	-	7 (2.1)	5 (1.5)	3 (1.1)	10 (2.0)	5 (1.2)	15 (1.6)
친절한 편이다	24 (21.4)	24 (24.2)	38 (26.2)	15 (19.0)	17 (27.9)	38 (38.0)	45 (31.9)	64 (37.0)	2 (18.2)	104 (31.6)	92 (28.3)	71 (26.6)	162 (32.5)	105 (24.9)	267 (29.0)
그저 그렇다	59 (52.7)	41 (41.4)	88 (60.7)	46 (58.2)	33 (54.1)	52 (52.0)	64 (45.4)	86 (49.7)	5 (45.5)	176 (53.5)	169 (52.0)	129 (48.3)	247 (49.5)	227 (53.8)	474 (51.5)
불친절한 편이다	15 (13.4)	17 (17.2)	13 (9.0)	10 (12.7)	6 (9.8)	8 (8.0)	26 (18.4)	14 (8.1)	3 (27.3)	27 (8.2)	41 (12.6)	44 (16.5)	46 (9.2)	66 (15.6)	112 (12.2)
매우 불친절하다	10 (8.9)	15 (15.2)	5 (3.4)	6 (7.6)	3 (4.9)	-	4 (2.8)	7 (4.0)	1 (9.1)	15 (4.6)	16 (4.9)	20 (7.5)	32 (6.4)	19 (4.5)	51 (5.5)
무 응 답	-	1 (1.0)	-	1 (1.3)	-	-	-	-	-	-	2 (0.6)	-	2 (0.4)	-	2 (0.2)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2) 행정서비스 중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

학교 행정서비스 중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직원의 행정 편의주의(29.3%)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별로 없다(27.7%), 불친절(17.7%), 시간 지연(12.9%)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단과대학별로 볼 때, 전체응답과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으며 다른 대학에 비해 의과대(54.5%), 사범대(36.7%)가 직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인문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불친절(26.8%)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과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고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시간 지연에 답한 응답자는 감소하는데 비해 불친절, 직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에는 응답률이 증가함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과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고 불합리한 제도과 직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의

응답률의 합계는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 불친절의 응답률 합계는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 행정서비스 중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시 간 지 연	16 (14.3)	16 (16.2)	17 (11.7)	7 (8.9)	10 (16.4)	19 (19.0)	17 (12.1)	15 (8.7)	2 (18.2)	48 (14.6)	41 (12.6)	30 (11.2)	67 (13.4)	52 (12.3)	119 (12.9)
불 친 절	30 (26.8)	21 (21.2)	26 (17.9)	15 (19.0)	6 (9.8)	10 (10.0)	34 (24.1)	21 (12.1)	-	54 (16.4)	55 (16.9)	54 (20.2)	64 (12.8)	99 (23.5)	163 (17.7)
불합리한 제도	6 (5.4)	6 (6.1)	8 (5.5)	5 (6.3)	4 (6.6)	7 (7.0)	8 (5.7)	20 (11.6)	2 (18.2)	24 (7.3)	24 (7.4)	18 (6.7)	43 (8.6)	23 (5.5)	66 (7.2)
직 원 들 의 행정 편의주의	27 (24.1)	30 (30.3)	43 (29.7)	29 (36.7)	18 (29.5)	27 (27.0)	41 (29.1)	49 (28.3)	6 (54.5)	79 (24.0)	97 (29.8)	94 (35.2)	154 (30.9)	116 (27.5)	270 (29.3)
별 로 없 다	27 (24.1)	21 (21.2)	46 (31.7)	18 (22.8)	16 (26.2)	31 (31.0)	38 (27.0)	57 (32.9)	1 (9.1)	102 (31.0)	93 (28.6)	60 (22.5)	144 (28.9)	111 (26.3)	255 (27.7)
기 타	1 (0.9)	2 (2.0)	1 (0.7)	2 (2.5)	3 (4.9)	2 (2.0)	1 (0.7)	3 (1.7)	-	9 (2.7)	5 (1.5)	1 (0.4)	7 (1.4)	8 (1.9)	15 (1.6)
무 응 답	5 (4.5)	3 (3.0)	4 (2.8)	3 (3.8)	4 (6.6)	4 (4.0)	2 (1.4)	8 (4.6)	-	13 (4.0)	10 (3.1)	10 (3.7)	20 (4.0)	13 (3.1)	33 (3.6)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3)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학교 내 학생 편의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통이다(51.2%)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만족한다(22.3%), 만족하지 못하다(19.8%),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5.3%), 매우 만족한다(1.2%)의 순으로 응답을 보인 것으로 보아 제주대학생의 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에 있어서 법정대(30.3%), 해양대(26.0%), 의과대(27.3%)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공과대(30.7%), 자연대(29.1%)가 만족하지 못하다와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의 응답률 합계가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 보다 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 보면,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를 합한 응답률이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하고, 만족하지 못하다와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의 응답률 합계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보여 학년이 올라 갈 수록 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를 합한 응답률은 남학생(29.3%)이 여학생(16.6%) 보

다 더 높고, 만족하지 못하다와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의 응답률 합계는 남학생(21.0%) 보다 여학생(29.9%)이 더 높게 나와 여학생이 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이 더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3〉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매우 만족하다	2 (1.8)	2 (2.0)	1 (0.7)	-	-	2 (2.0)	1 (0.7)	3 (1.7)	-	3 (0.9)	2 (0.6)	6 (2.2)	8 (1.6)	3 (0.7)	11 (1.2)
만 족 하 다	19 (17.0)	28 (28.3)	29 (20.0)	19 (24.1)	16 (26.2)	26 (26.0)	28 (19.9)	37 (21.4)	3 (27.3)	87 (26.4)	68 (20.9)	50 (18.7)	138 (27.7)	67 (15.9)	205 (22.3)
보 통 이 다	66 (58.9)	42 (42.4)	89 (61.4)	37 (46.8)	28 (45.9)	53 (53.0)	71 (50.4)	79 (45.7)	7 (63.6)	162 (49.2)	167 (51.4)	143 (53.6)	247 (49.5)	225 (53.3)	472 (51.2)
만족하지 못하다	22 (19.6)	23 (23.2)	19 (13.1)	15 (19.0)	11 (18.0)	16 (16.0)	33 (23.4)	42 (24.3)	1 (9.1)	54 (16.4)	71 (21.8)	57 (21.3)	79 (15.8)	103 (24.4)	182 (19.8)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	3 (2.7)	4 (4.0)	7 (4.8)	8 (10.1)	5 (8.2)	3 (3.0)	8 (5.7)	11 (6.4)	-	21 (6.4)	17 (5.2)	11 (4.1)	26 (5.2)	23 (5.5)	49 (5.3)
무 응 답	-	-	-	-	1 (1.6)	-	-	1 (0.6)	-	2 (0.6)	-	-	1 (0.2)	1 (0.2)	2 (0.2)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4) 가장 불만족스러운 편의시설

학교 내 가장 불만족스러운 편의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통학버스(27.0%)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식당(21.1%), 체육시설(12.8%), 서점(11.0%) 등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분석을 하여 보면, 통학버스는 인문대(48.2%)가, 식당은 의과대(27.3%)가, 체육시설은 공과대(20.8%)가, 서점은 경상대(14.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는데 서점에 대한 응답률이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통학버스, 식당,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4학년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는데, 특히 통학버스는 남학생(19.8%) 보다 여학생(35.5%)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체육시설은 남학생(20.4%)이 여학생(3.8%)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4〉 가장 불만족스러운 편의시설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식 당	10 (8.9)	21 (21.2)	29 (20.0)	18 (22.8)	13 (21.3)	27 (27.0)	34 (24.1)	39 (22.5)	3 (27.3)	69 (21.0)	69 (21.2)	56 (21.0)	107 (21.4)	87 (20.6)	194 (21.1)
통 학 버 스	54 (48.2)	33 (33.3)	40 (27.6)	21 (26.6)	11 (18.0)	19 (19.0)	38 (27.0)	32 (18.5)	1 (9.1)	88 (26.7)	86 (26.5)	75 (28.1)	99 (19.8)	150 (35.5)	249 (27.0)
기 숙 사	1 (0.9)	2 (2.0)	5 (3.4)	1 (1.3)	2 (3.3)	3 (3.0)	5 (3.5)	3 (1.7)	1 (9.1)	10 (3.0)	8 (2.5)	5 (1.9)	16 (3.2)	7 (1.7)	23 (2.5)
체 육 시 설	10 (8.9)	9 (9.1)	14 (9.7)	6 (7.6)	8 (13.1)	14 (14.0)	20 (14.2)	36 (20.8)	1 (9.1)	44 (13.4)	38 (11.7)	36 (13.5)	102 (20.4)	16 (3.8)	118 (12.8)
통 신 시 설 (공중전화 등)	9 (8.0)	3 (3.0)	10 (6.9)	10 (12.7)	6 (9.8)	3 (3.0)	6 (4.3)	10 (5.8)	1 (9.1)	25 (7.6)	18 (5.5)	15 (5.6)	31 (6.2)	27 (6.4)	58 (6.3)
은 행	1 (0.9)	-	1 (0.7)	-	-	-	1 (0.7)	-	-	1 (0.3)	-	2 (0.7)	2 (0.4)	1 (0.2)	3 (0.3)
매 점	2 (1.8)	5 (5.1)	-	6 (7.6)	3 (4.9)	2 (2.0)	3 (2.1)	3 (1.7)	-	8 (2.4)	11 (3.4)	5 (1.9)	8 (1.6)	16 (3.8)	24 (2.6)
복 사 실	1 (0.9)	2 (2.0)	1 (0.7)	3 (3.8)	1 (1.6)	3 (3.0)	1 (0.7)	2 (1.2)	-	5 (1.5)	5 (1.5)	4 (1.5)	9 (1.8)	5 (1.2)	14 (1.5)
서 점	9 (8.0)	11 (11.1)	21 (14.5)	7 (8.9)	5 (8.2)	12 (12.0)	13 (9.2)	22 (12.7)	1 (9.1)	35 (10.6)	42 (12.9)	24 (9.0)	44 (8.8)	57 (13.5)	101 (11.0)
휴 게 실	7 (6.3)	7 (7.1)	14 (9.7)	3 (3.8)	2 (3.3)	5 (5.0)	7 (5.0)	7 (4.0)	1 (9.1)	17 (5.2)	15 (4.6)	21 (7.9)	29 (5.8)	24 (5.7)	53 (5.8)
우 체 국	3 (2.7)	2 (2.0)	-	1 (1.3)	2 (3.3)	1 (1.0)	2 (1.4)	1 (0.6)	1 (9.1)	3 (0.9)	3 (0.9)	7 (2.6)	6 (1.2)	7 (1.7)	13 (1.4)
기 타	1 (0.9)	1 (1.0)	6 (4.1)	-	3 (4.9)	5 (5.0)	5 (3.5)	9 (5.2)	-	9 (2.7)	14 (4.3)	7 (2.6)	20 (4.0)	10 (2.4)	30 (3.3)
무 응 답	4 (3.6)	3 (3.0)	4 (2.8)	3 (3.8)	5 (8.2)	6 (6.0)	6 (4.3)	9 (5.2)	1 (9.1)	15 (4.6)	16 (4.9)	10 (3.7)	26 (5.2)	15 (3.6)	41 (4.5)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5) 도서관 이용 목적

도서관은 주로 어떤 목적에서 이용하는가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서적대출 및 열람(64.4%)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시험공부(17.8%), 평소공부(14.1%)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서적대출 및 열람에 대해서 의과대(81.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평소공부와 시험공부에는 경상대(31.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즉 경상대 학생들은 다양한 목적(서적대출·시험공부·평소

공부)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서적대출 및 열람에 대한 응답률이 감소하고, 평소공부에는 4학년(24.7%)이 가장 응답률이 높고, 시험공부에는 3학년(20.0%)이 가장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는데, 특히 서적대출 및 열람은 남학생(57.3%)보다 여학생(72.7%)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평소공부와 시험공부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여학생들이 도서관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대학생활 중 사고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비해서, 남학생들은 취직시험 등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당면한 과제에 대한 부담이 앞서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5〉 도서관 이용 목적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일반적 독서를 위한 장소로	3 (2.7)	4 (4.0)	2 (1.4)	2 (2.5)	1 (1.6)	4 (4.0)	1 (0.7)	3 (1.7)	1 (0.9)	10 (3.0)	6 (1.8)	5 (1.9)	15 (3.0)	6 (1.4)	21 (2.3)
서적 및 각종 연구자료를 대출 또는 열람하기 위해	80 (71.4)	64 (64.6)	55 (37.9)	57 (72.2)	33 (54.1)	62 (62.0)	113 (80.1)	120 (69.4)	9 (81.8)	226 (68.7)	219 (67.4)	148 (55.4)	286 (57.3)	307 (72.7)	593 (64.4)
평소에 공부하기 위해서	12 (10.7)	15 (15.2)	46 (31.7)	11 (13.9)	7 (11.5)	12 (12.0)	6 (4.3)	21 (12.1)	-	34 (10.3)	30 (9.2)	66 (24.7)	86 (17.2)	44 (10.4)	130 (14.1)
학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13 (11.6)	16 (16.2)	40 (27.6)	9 (11.4)	19 (31.1)	19 (19.0)	21 (14.9)	26 (15.0)	1 (9.1)	57 (17.3)	65 (20.0)	42 (15.7)	102 (20.4)	62 (14.7)	164 (17.8)
무 응 답	4 (3.6)	-	2 (1.4)	-	1 (1.6)	3 (3.0)	-	3 (1.7)	-	2 (0.6)	5 (1.5)	6 (2.2)	10 (2.0)	3 (0.7)	13 (1.4)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6) 우리 대학의 미래전망

앞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전망에 대한 응답률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수준(52.0%)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밝은 편이다(22.6%), 어두운 편이다(20.3%), 아주 어둡다(2.2%), 아주 밝다(2.0%)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아주 밝다와 밝은 편이다의 응답률 합계가 해양대(40.0%), 의과대(36.4%), 사범대(3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상대(29.7%)가 어두운 편이다와 아주 어둡다의 응답률 합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는데 밝은 편이다에 응답률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하고, 어두운 편이다의 응답률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는데 아주 밝다와 밝은 편이다의 응답률 합계가 여학생(21.8%) 보다 남학생(26.8%)이 더 높고, 어두운 편이다와 아주 어둡다의 응답률 합계는 남학생(25.0%)이 여학생(19.4%) 보다 더 높게 나왔다.

〈표 4-6〉 우리 대학의 미래전망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아주 밝다	1 (0.9)	6 (6.1)	4 (2.8)	2 (2.5)	2 (3.3)	1 (1.0)	1 (0.7)	1 (0.6)	-	9 (2.7)	3 (0.9)	6 (2.2)	15 (3.0)	3 (0.7)	18 (2.0)
밝은 편이다	18 (16.1)	14 (14.1)	26 (17.9)	25 (31.6)	14 (23.0)	39 (39.0)	31 (22.0)	37 (21.4)	4 (36.4)	82 (24.9)	79 (24.3)	47 (17.6)	119 (23.8)	89 (21.1)	208 (22.6)
현재 수준	64 (57.1)	60 (60.6)	70 (48.3)	31 (39.2)	36 (59.0)	52 (52.0)	75 (53.2)	87 (50.3)	4 (36.4)	170 (51.7)	165 (50.8)	144 (53.9)	236 (47.3)	243 (57.6)	479 (52.0)
어두운 편이다	25 (22.3)	16 (16.2)	42 (29.0)	18 (22.8)	9 (14.8)	7 (7.0)	28 (19.9)	39 (22.5)	3 (27.3)	59 (17.9)	70 (21.5)	58 (21.7)	109 (21.8)	78 (18.5)	187 (20.3)
아주 어둡다	3 (2.7)	3 (3.0)	1 (0.7)	2 (2.5)	-	-	3 (2.1)	8 (4.6)	-	7 (2.1)	6 (1.8)	7 (2.6)	16 (3.2)	4 (0.9)	20 (2.2)
무 응답	1 (0.9)	-	2 (1.4)	1 (1.3)	-	1 (1.0)	3 (2.1)	1 (0.6)	-	2 (0.6)	2 (0.6)	5 (1.9)	4 (0.8)	5 (1.2)	9 (1.0)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7) 학교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시급한 문제(세가지)

학교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진로 및 취업지도 확대(54.7%)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습환경 시설개선 및 확충(28.4%), 우수 교수진의 확보(37.8%), 후생복지 시설개선 및 확충(28.4%), 장학제도의 확대 및 개선(27.9%)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다른 대학 보다 진로 및 취업지도 확대에 법정대(62.6%), 해양대(62.0%), 자연대(61.7%)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학습환경 시설개선 및 확충은 인문대(58.9%)가 우수 교수진의 확보는 의과대(54.5%), 후생복지 시설개선 및 확충은 농과대(39.3%), 장학제도의 확대 및 개선에는 사범대(45.6%)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진로 및 취업지도 확대와 학습환경 시설개선 및 확충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응답률이 증가했고, 장학제도의 확대 및 개선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함을 보인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진로 및 취업지도 확대와 우수 교수진의 확보, 학습환경 시설개선 및 확충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후생복지 시설개선 및 확충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7〉 학교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시급한 문제(세가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학습환경 시설 개선 및 확충	66 (58.9)	49 (49.5)	62 (42.8)	42 (53.2)	23 (37.7)	37 (37.0)	62 (44.0)	87 (50.3)	5 (45.5)	145 (44.1)	157 (48.3)	131 (49.1)	218 (43.7)	215 (50.9)	433 (47.0)
후생복지 시설 개선 및 확충	32 (28.6)	29 (29.3)	43 (29.7)	29 (36.7)	24 (39.3)	27 (27.0)	34 (24.1)	40 (23.1)	4 (36.4)	85 (25.8)	105 (32.3)	72 (27.0)	147 (29.5)	115 (27.3)	262 (28.4)
교내 전구성원의 자부심 고취	17 (15.2)	14 (14.1)	32 (22.1)	12 (15.2)	18 (29.5)	18 (18.0)	26 (18.4)	33 (19.1)	-	68 (20.7)	49 (15.1)	53 (19.9)	106 (21.2)	64 (15.2)	170 (18.5)
장 학 제 도 의 확대 및 개선	30 (26.8)	29 (29.3)	38 (26.2)	36 (45.6)	14 (23.0)	17 (17.0)	44 (31.2)	45 (26.0)	4 (36.4)	97 (29.5)	94 (28.9)	66 (24.7)	132 (26.5)	125 (29.6)	257 (27.9)
우수 교수진의 확 보	47 (42.0)	41 (41.4)	67 (46.2)	28 (35.4)	19 (31.1)	31 (31.0)	50 (35.5)	59 (34.1)	6 (54.5)	120 (36.5)	129 (39.7)	99 (37.1)	176 (35.3)	172 (40.8)	348 (37.8)
진로 및 취업 지 도 확 대	66 (58.9)	62 (62.6)	84 (57.9)	29 (36.7)	28 (45.9)	62 (62.0)	87 (61.7)	82 (47.4)	4 (36.4)	175 (53.2)	180 (55.4)	149 (55.8)	259 (51.9)	245 (58.1)	504 (54.7)
입학시 우수한 학생의 유치	6 (5.4)	12 (12.1)	18 (12.4)	8 (10.1)	3 (4.9)	13 (13.0)	16 (11.3)	22 (12.7)	1 (9.1)	29 (8.8)	33 (10.2)	37 (13.9)	55 (11.0)	44 (10.4)	99 (10.7)
각종 연구소 및 연구지원의 활성화	14 (12.5)	12 (12.1)	21 (14.5)	15 (19.0)	11 (18.0)	25 (25.0)	24 (17.0)	48 (27.7)	5 (45.5)	68 (20.7)	60 (18.5)	47 (17.6)	103 (20.6)	72 (17.1)	175 (19.0)
교수와 학생의 신뢰 회복	19 (17.0)	14 (14.1)	26 (17.9)	11 (13.9)	11 (18.0)	24 (24.0)	30 (21.3)	38 (22.0)	2 (18.2)	72 (21.9)	57 (17.5)	46 (17.2)	104 (20.8)	71 (16.8)	175 (19.0)
학생의 자율적인 면 학 분 위 기	20 (17.9)	21 (21.2)	29 (20.0)	20 (25.3)	15 (24.6)	28 (28.0)	35 (24.8)	40 (23.1)	2 (18.2)	87 (26.4)	72 (22.2)	51 (19.1)	119 (23.8)	91 (21.6)	210 (22.8)
무 응 답	19 (17.0)	14 (14.1)	15 (10.3)	7 (8.9)	17 (27.9)	18 (18.0)	15 (10.6)	25 (14.5)	-	41 (12.5)	39 (12.0)	50 (18.7)	78 (15.6)	52 (12.3)	130 (14.1)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987 (100.0)	975 (100.0)	801 (100.0)	1,497 (100.0)	1,266 (100.0)	2,763 (100.0)

8) 효과적인 학교 홍보를 위한 방법은(세가지)

효과적인 학교 홍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 순위별로 3개를 선택하라는 대한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대중매체의 이용(73.4%)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교생 대상의 행사와 대회 개최(67.4%), 고교 교사 및 학생 전학 유치(47.8%) 등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는데, 특히 의과대의 90.9% 학

생이 대중매체의 이용을 효과적인 학교 홍보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년별·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4-8〉 효과적인 학교 홍보를 위한 방법(세가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대 중 매 체 의 이 용	80 (71.4)	75 (75.8)	100 (69.0)	56 (70.9)	43 (70.5)	78 (78.0)	101 (71.6)	133 (76.9)	10 (90.9)	245 (74.5)	236 (72.6)	195 (73.0)	364 (72.9)	312 (73.9)	676 (73.4)	
운 동 팀 에 대 한 지 원	17 (15.2)	21 (21.2)	27 (18.6)	11 (13.9)	11 (18.0)	19 (19.0)	37 (26.2)	42 (24.3)	4 (36.4)	71 (21.6)	74 (22.8)	44 (16.5)	125 (25.1)	64 (15.2)	189 (20.5)	
고 교 생 대 상 의 행 사 와 대 회 개 최	72 (64.3)	66 (66.7)	102 (70.3)	62 (78.5)	34 (55.7)	63 (63.0)	105 (74.5)	110 (63.6)	7 (63.6)	230 (69.9)	217 (66.8)	174 (65.2)	313 (62.7)	308 (73.0)	621 (67.4)	
고 교 교 사 및 학 생 견 학 유 지	53 (47.3)	40 (40.4)	69 (47.6)	40 (50.6)	28 (45.9)	54 (54.0)	68 (48.2)	84 (48.6)	4 (36.4)	151 (45.9)	167 (51.4)	122 (45.7)	229 (45.9)	211 (50.0)	440 (47.8)	
재 학 생 의 보 교 파 견	38 (33.9)	32 (32.3)	39 (26.9)	19 (24.1)	12 (19.7)	26 (26.0)	25 (17.7)	32 (18.5)	3 (27.3)	88 (26.7)	79 (24.3)	59 (22.1)	107 (21.4)	119 (28.2)	226 (24.5)	
교 수 진 의 고 교 방 문 강 연	28 (25.0)	37 (37.4)	42 (29.0)	23 (29.1)	20 (32.8)	30 (30.0)	37 (26.2)	55 (31.8)	4 (36.4)	101 (30.7)	90 (27.7)	85 (31.8)	166 (33.3)	110 (26.1)	276 (30.0)	
기 타	6 (5.4)	3 (3.0)	5 (3.4)	3 (3.8)	1 (1.6)	2 (2.0)	8 (5.7)	8 (4.6)	1 (9.1)	16 (4.9)	8 (2.5)	13 (4.9)	19 (3.8)	18 (4.3)	37 (4.0)	
무 응 답	42 (37.5)	23 (23.2)	51 (35.2)	23 (29.1)	34 (55.7)	28 (28.0)	42 (29.8)	55 (31.8)	-	85 (25.8)	104 (32.0)	109 (40.8)	174 (34.9)	124 (29.4)	298 (32.4)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987 (100.0)	975 (100.0)	801 (100.0)	1,497 (100.0)	1,266 (100.0)	2,763 (100.0)	

### 5. 진로 및 취업대책에 관한 설문

#### 1) 대학 졸업 후 계획

대학 졸업 후 계획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취업(61.0%)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11.1%), 결정 못함(10.3%), 창업 및 개인사업(10.3%), 해외유학(4.9%)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취업에는 의과대(81.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법정대(71.7%), 경상대(70.3%)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은 인문대(10.7%)가, 결정 못함은 공과대(14.5%)가, 창업 및 개인사업은 농과대(6.6%)가, 해외유학은 인문대(10.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다. 특히, 취업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응답률이 증가함을 보였고, 창업 및 개인사업, 결정 못함, 해외유학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응답률이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취업, 대학원 진학, 창업 및 개인사업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해외유학, 결정 못함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1〉 대학 졸업 후 계획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취업	56 (50.0)	72 (72.7)	102 (70.3)	47 (59.5)	37 (60.7)	54 (54.0)	82 (58.2)	103 (59.5)	9 (81.8)	175 (53.2)	205 (63.1)	182 (68.2)	315 (63.1)	247 (58.5)	562 (61.0)
대학원 진학	17 (15.2)	6 (6.1)	11 (7.6)	4 (5.1)	7 (11.5)	11 (11.0)	20 (14.2)	26 (15.0)	-	40 (12.2)	32 (9.8)	30 (11.2)	56 (11.2)	46 (10.9)	102 (11.1)
해외유학	12 (10.7)	4 (4.0)	2 (1.4)	2 (2.5)	3 (4.9)	8 (8.0)	8 (5.7)	6 (3.5)	-	25 (7.6)	13 (4.0)	7 (2.6)	20 (4.0)	25 (5.9)	45 (4.9)
해외연수	5 (4.5)	1 (1.0)	7 (4.8)	-	2 (3.3)	4 (4.0)	2 (1.4)	2 (1.2)	-	12 (3.6)	10 (3.1)	1 (0.4)	9 (1.8)	14 (3.3)	23 (2.5)
고시준비	2 (1.8)	2 (2.0)	3 (2.1)	13 (16.5)	-	4 (4.0)	2 (1.4)	-	2 (18.2)	12 (3.6)	7 (2.2)	9 (3.4)	11 (2.2)	17 (4.0)	28 (3.0)
창업 및 개인사업	2 (1.8)	5 (5.1)	7 (4.8)	-	4 (6.6)	6 (6.0)	4 (2.8)	8 (4.6)	-	15 (4.6)	14 (4.3)	7 (2.6)	30 (6.0)	6 (1.4)	36 (3.9)
사회/정치단체 참여	1 (0.9)	-	1 (0.7)	1 (1.3)	-	1 (1.0)	2 (1.4)	-	-	3 (0.9)	3 (0.9)	-	2 (0.4)	4 (0.9)	6 (0.7)
결정 못함	15 (13.4)	8 (8.1)	8 (5.5)	8 (10.1)	7 (11.5)	8 (8.0)	16 (11.3)	25 (14.5)	-	39 (11.9)	35 (10.8)	21 (7.9)	44 (8.8)	51 (12.1)	95 (10.3)
기타	1 (0.9)	1 (1.0)	3 (2.1)	-	-	2 (2.0)	4 (2.8)	2 (1.2)	-	4 (1.2)	4 (1.2)	5 (1.9)	8 (1.6)	5 (1.2)	13 (1.4)
무응답	1 (0.9)	-	1 (0.7)	4 (5.1)	1 (1.6)	2 (2.0)	1 (0.7)	1 (0.6)	-	4 (1.2)	2 (0.6)	5 (1.9)	4 (0.8)	7 (1.7)	11 (1.2)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2) 직업선택의 기준

직업선택의 주요기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공 및 적성 계발(29.4%)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직업의 전문성(22.4%), 장래 전망(21.5%) 등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했으며, 특히 전공 및 적성 계발에는 의과대(45.5%), 사범대(43.0%)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직업의

전문성은 의과대(27.3%)와 인문대(30.4%)가, 장래 전망은 농과대(27.%)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다. 특히, 전공 및 적성 계발,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인식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응답률이 증가함을 보였고, 직업의 전문성, 보수, 원만한 대인관계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응답률이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보수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직업의 전문성, 전공 및 적성 계발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2〉 직업선택의 기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보 수	11 (9.8)	14 (14.1)	16 (11.0)	9 (11.4)	8 (13.1)	8 (8.0)	11 (7.8)	22 (12.7)	1 (9.1)	41 (12.5)	35 (10.8)	24 (9.0)	68 (13.6)	32 (7.6)	100 (10.9)
사 회 적 지 위	1 (0.9)	11 (11.1)	6 (4.1)	1 (1.3)	4 (6.6)	2 (2.0)	4 (2.8)	5 (2.9)	-	7 (2.1)	14 (4.3)	13 (4.9)	23 (4.6)	11 (2.6)	34 (3.7)
직업의 전문성	34 (30.4)	18 (18.2)	28 (19.3)	17 (21.5)	9 (14.8)	24 (24.0)	34 (24.1)	39 (22.5)	3 (27.3)	83 (25.2)	69 (21.2)	54 (20.2)	89 (17.8)	117 (27.7)	206 (22.4)
전공 및 적성 계발	39 (34.8)	20 (20.2)	34 (23.4)	34 (43.0)	16 (26.2)	25 (25.0)	47 (33.3)	51 (29.5)	5 (45.5)	93 (28.3)	96 (29.5)	82 (30.7)	129 (25.9)	142 (33.6)	271 (29.4)
사 회 적 인 식	1 (0.9)	8 (8.1)	9 (6.2)	-	2 (3.3)	7 (7.0)	4 (2.8)	6 (3.5)	-	9 (2.7)	14 (4.3)	14 (5.2)	22 (4.4)	15 (3.6)	37 (4.0)
원만한 대인관계	1 (0.9)	1 (1.0)	10 (6.9)	1 (1.3)	-	8 (8.0)	3 (2.1)	4 (2.3)	-	15 (4.6)	8 (2.5)	5 (1.9)	21 (4.2)	7 (1.7)	28 (3.0)
장 래 전 망	20 (17.9)	21 (21.2)	34 (23.4)	8 (10.1)	17 (27.9)	24 (24.0)	34 (24.1)	39 (22.5)	1 (9.1)	63 (19.1)	75 (23.1)	60 (22.5)	125 (25.1)	73 (17.3)	198 (21.5)
사 회 공 헌 도	-	4 (4.0)	2 (1.4)	1 (1.3)	-	-	-	2 (1.2)	1 (9.1)	3 (0.9)	4 (1.2)	3 (1.1)	4 (0.8)	6 (1.4)	10 (1.1)
시 간 적 여 유	3 (2.7)	2 (2.0)	4 (2.8)	3 (3.8)	4 (6.6)	1 (1.0)	1 (0.7)	5 (2.9)	-	7 (2.1)	10 (3.1)	6 (2.2)	13 (2.6)	10 (2.4)	23 (2.5)
무 응 답	2 (1.8)	-	2 (1.4)	5 (6.3)	1 (1.6)	1 (1.0)	3 (2.1)	-	-	8 (2.4)	-	6 (2.2)	5 (1.0)	9 (2.1)	14 (1.5)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3) 취업을 대비하여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과 예정인 것

취업을 대비하여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과 예정인 것 두가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어학공부(60.9%)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37.0%), 컴퓨터

(31.9%), 전공공부(31.5%) 등의 순으로 응답을 나타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공공부에 의과대(72.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다른 대학은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다. 특히 어학공부에는 경상대(70.3%), 법정대(69.7%), 인문대(67.9%)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고, 자격증 취득(37.0%)은 자연대(47.5%), 농과대(44.3%), 경상대(42.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컴퓨터는 공과대(37.6%)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컴퓨터는 남학생(35.7%)이 여학생(27.5%)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어학공부, 자격증 취득, 전공공부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3〉 취업을 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과 예정인 것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전 공 공 부	48 (42.9)	19 (19.2)	25 (17.2)	54 (68.4)	8 (13.1)	27 (27.0)	39 (27.7)	62 (35.8)	8 (72.7)	110 (33.4)	98 (30.2)	82 (30.7)	148 (29.7)	142 (33.6)	290 (31.5)
어 학 공 부	76 (67.9)	69 (69.7)	102 (70.3)	27 (34.2)	33 (54.1)	61 (61.0)	77 (54.6)	109 (63.0)	7 (63.6)	197 (59.9)	202 (62.2)	162 (60.7)	282 (56.5)	279 (66.1)	561 (60.9)
상 식 공 부	6 (5.4)	4 (4.0)	9 (6.2)	2 (2.5)	6 (9.8)	5 (5.0)	4 (2.8)	10 (5.8)	-	16 (4.9)	17 (5.2)	13 (4.9)	26 (5.2)	20 (4.7)	46 (5.0)
컴 퓨 터	32 (28.6)	31 (31.3)	37 (25.5)	21 (26.6)	23 (37.7)	32 (32.0)	51 (36.2)	65 (37.6)	2 (18.2)	110 (33.4)	107 (32.9)	77 (28.8)	178 (35.7)	116 (27.5)	294 (31.9)
자 격 증 취 득	29 (25.9)	36 (36.4)	62 (42.8)	16 (20.3)	27 (44.3)	41 (41.0)	67 (47.5)	61 (35.3)	2 (18.2)	119 (36.2)	129 (39.7)	93 (34.8)	184 (36.9)	157 (37.2)	341 (37.0)
복수전공·부전공	8 (7.1)	2 (2.0)	6 (4.1)	11 (13.9)	1 (1.6)	3 (3.0)	6 (4.3)	3 (1.7)	-	16 (4.9)	17 (5.2)	7 (2.6)	17 (3.4)	23 (5.5)	40 (4.3)
취업정보 수집	9 (8.0)	8 (8.1)	12 (8.3)	6 (7.6)	10 (16.4)	6 (6.0)	14 (9.9)	8 (4.6)	-	18 (5.5)	23 (7.1)	32 (12.0)	42 (8.4)	31 (7.3)	73 (7.9)
기 타	4 (3.6)	1 (1.0)	2 (1.4)	-	2 (3.3)	2 (2.0)	-	2 (1.2)	-	5 (1.5)	2 (0.6)	6 (2.2)	10 (2.0)	3 (0.7)	13 (1.4)
무 응 답	12 (10.7)	28 (28.3)	35 (24.1)	21 (26.6)	12 (19.7)	23 (23.0)	24 (17.0)	26 (15.0)	3 (27.3)	67 (20.4)	55 (16.9)	62 (23.2)	111 (22.2)	73 (17.3)	184 (20.0)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4) 취업을 위한 대비 정도

취업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관심만 가지고 있다(43.6%)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정보수집 중이다(37.7%),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13.2%)의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는데 특히,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농과대(52.5%), 자연대(50.4%)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보수집 중이라는 해양대(46.0%)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법정대(27.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는데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함을 보이며,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정보수집 중이라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4〉 취업을 위한 대비 정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구 체 적 으 로 하 고 있 다	11 (9.8)	27 (27.3)	21 (14.5)	13 (16.5)	10 (16.4)	6 (6.0)	15 (10.6)	18 (10.4)	1 (9.1)	17 (5.2)	36 (11.1)	69 (25.8)	69 (13.8)	53 (12.6)	122 (13.2)
정 보 수 집 중 이 다	40 (35.7)	34 (34.3)	62 (42.8)	26 (32.9)	17 (27.9)	46 (46.0)	51 (36.2)	66 (38.2)	5 (45.5)	109 (33.1)	131 (40.3)	107 (40.1)	206 (41.3)	141 (33.4)	347 (37.7)
관 심 만 가 지 고 있 다	54 (48.2)	34 (34.3)	55 (37.9)	31 (39.2)	32 (52.5)	42 (42.0)	71 (50.4)	78 (45.1)	5 (45.5)	179 (54.4)	143 (44.0)	80 (30.0)	194 (38.9)	208 (49.3)	402 (43.6)
하 고 있 지 않 다	4 (3.6)	2 (2.0)	5 (3.4)	4 (5.1)	1 (1.6)	4 (4.0)	4 (2.8)	9 (5.2)	-	19 (5.8)	10 (3.1)	4 (1.5)	23 (4.6)	10 (2.4)	33 (3.6)
무 응 답	3 (2.7)	2 (2.0)	2 (1.4)	5 (6.3)	1 (1.6)	2 (2.0)	-	2 (1.2)	-	5 (1.5)	5 (1.5)	7 (2.6)	7 (1.4)	10 (2.4)	17 (1.8)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5) 취업준비를 위해 가장 중시하는 요소

본인의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어학실력(45.2%)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전공공부(23.7%), 자격증 취득(14.1%), 인간관계(5.5%), PC 사용능력(5.0%) 등의 순으로 응답을 나타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어학실력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법정대(58.6%)와 경상대(57.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전공공부는 사범대(63.3%)와 의과대(54.6%)가, 자격증 취득은 자연대(23.4%)가, 인간관계는 의과대(9.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보였는데 전공공부는 2학년이 가장 높고, 어학실력은 2학년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함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어학실력은 남학생(46.9%)이 여학생(43.1%)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전공공부는 남학생(21.6%) 보다 여학생(26.1%)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5〉 취업준비를 위해 가장 중시하는 요소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전 공 공 부	36 (32.1)	18 (18.2)	13 (9.0)	50 (63.3)	4 (6.6)	21 (21.0)	28 (19.9)	42 (24.3)	6 (54.5)	86 (26.1)	72 (22.2)	60 (22.5)	108 (21.6)	110 (26.1)	218 (23.7)
어 학 실 력	45 (40.2)	58 (58.6)	84 (57.9)	17 (21.5)	30 (49.2)	42 (42.0)	55 (39.0)	83 (48.0)	2 (18.2)	130 (39.5)	157 (48.3)	129 (48.3)	234 (46.9)	182 (43.1)	416 (45.2)
부전공 및 복수전공	3 (2.7)	3 (3.0)	1 (0.7)	4 (5.1)	-	3 (3.0)	3 (2.1)	3 (1.7)	-	9 (2.7)	9 (2.8)	2 (0.7)	13 (2.6)	7 (1.7)	20 (2.2)
PC 사용능력	6 (5.4)	6 (6.1)	4 (2.8)	2 (2.5)	10 (16.4)	5 (5.0)	8 (5.7)	5 (2.9)	-	17 (5.2)	11 (3.4)	18 (6.7)	25 (5.0)	21 (5.0)	46 (5.0)
자격증 취득	10 (8.9)	10 (10.1)	24 (16.6)	1 (1.3)	11 (18.0)	14 (14.0)	33 (23.4)	25 (14.5)	2 (18.2)	53 (16.1)	46 (14.2)	31 (11.6)	65 (13.0)	65 (15.4)	130 (14.1)
인 간 관 계	6 (5.4)	2 (2.0)	12 (8.3)	1 (1.3)	5 (8.2)	6 (6.0)	9 (6.4)	9 (5.2)	1 (9.1)	18 (5.5)	19 (5.8)	14 (5.2)	36 (7.2)	15 (3.6)	51 (5.5)
아르바이트 경험	-	1 (1.0)	-	1 (1.3)	-	2 (2.0)	1 (0.7)	2 (1.2)	-	1 (0.3)	4 (1.2)	2 (0.7)	4 (0.8)	3 (0.7)	7 (0.8)
연수나 여행경험	1 (0.9)	1 (1.0)	2 (1.4)	-	-	2 (2.0)	1 (0.7)	1 (0.6)	-	5 (1.5)	1 (0.3)	2 (0.7)	4 (0.8)	4 (0.9)	8 (0.9)
동아리 활동	1 (0.9)	-	-	-	-	-	1 (0.7)	-	-	1 (0.3)	1 (0.3)	-	-	2 (0.5)	2 (0.2)
발 표 능 력	1 (0.9)	-	3 (2.1)	1 (1.3)	-	2 (2.0)	-	-	-	3 (0.9)	2 (0.6)	2 (0.7)	3 (0.6)	4 (0.9)	7 (0.8)
무 응 답	3 (2.7)	-	2 (1.4)	2 (2.5)	1 (1.6)	3 (3.0)	2 (1.4)	3 (1.7)	-	6 (1.8)	3 (0.9)	7 (2.6)	7 (1.4)	9 (2.1)	16 (1.7)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6) 취업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취업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취업정보의 부족(29.6%)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적성에 대한 확신의 부족(28.3%), 사회·경제적인 구직난(14.7%), 취업시험 준비의 어려움(12.8%) 등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취업정보의 부족은 공과대(35.8%), 해양대(34.0%), 자연대(34.0%) 등의 순으로 응답을 했고, 적성에 대한 확신의 부족(36.4%)과 사회·경제적인 구직난(27.3%)은 의과대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취업시험 준비의 어려움은 법정대(26.3%)와 사범대(21.5%)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취업정보의 부족은 3학년(33.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며, 적성에 대한 확신 부족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함을 보이는데 비해, 사회·경제적인 구직난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취업정보의 부족과 사회·경제적인 구직난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적성에 대한 확신의 부족은 남학생(24.4%) 보다 여학생(32.9%)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6〉 취업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것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적성에 대한 확신 부족	32 (28.6)	26 (26.3)	35 (24.1)	27 (34.2)	19 (31.1)	31 (31.0)	42 (29.8)	45 (26.0)	4 (36.4)	102 (31.0)	90 (27.7)	69 (25.8)	122 (24.4)	139 (32.9)	261 (28.3)
취업정보의 부족	32 (28.6)	23 (23.2)	47 (32.4)	11 (13.9)	14 (23.0)	34 (34.0)	48 (34.0)	62 (35.8)	2 (18.2)	87 (26.4)	109 (33.5)	77 (28.8)	153 (30.7)	120 (28.4)	273 (29.6)
취업시험 준비 어려움	11 (9.8)	26 (26.3)	18 (12.4)	17 (21.5)	9 (14.8)	10 (10.0)	15 (10.6)	11 (6.4)	1 (9.1)	38 (11.6)	49 (15.1)	31 (11.6)	60 (12.0)	58 (13.7)	118 (12.8)
사회·경제적 구직난	21 (18.8)	18 (18.2)	19 (13.1)	10 (12.7)	10 (16.4)	12 (12.0)	15 (10.6)	27 (15.6)	3 (27.3)	39 (11.9)	40 (12.3)	56 (21.0)	89 (17.8)	46 (10.9)	135 (14.7)
학과 교수의 관심 배려 부족	2 (1.8)	1 (1.0)	-	-	-	1 (1.0)	-	1 (0.6)	-	3 (0.9)	1 (0.3)	1 (0.4)	3 (0.6)	2 (0.5)	5 (0.5)
부모와 의견차	9 (8.0)	2 (2.0)	16 (11.0)	3 (3.8)	6 (9.8)	2 (2.0)	7 (5.0)	11 (6.4)	1 (9.1)	34 (10.3)	15 (4.6)	8 (3.0)	33 (6.6)	24 (5.7)	57 (6.2)
취업준비를 안하고 있다	3 (2.7)	2 (2.0)	6 (4.1)	7 (8.9)	2 (3.3)	6 (6.0)	8 (5.7)	14 (8.1)	-	16 (4.9)	16 (4.9)	16 (6.0)	29 (5.8)	19 (4.5)	48 (5.2)
무응답	2 (1.8)	1 (1.0)	4 (2.8)	4 (5.1)	1 (1.6)	4 (4.0)	6 (4.3)	2 (1.2)	-	10 (3.0)	5 (1.5)	9 (3.4)	10 (2.0)	14 (3.3)	24 (2.6)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7) 진로선택시 어려운 점

진로선택시 어려움 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진로정보의 부족(39.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적성에 대한 확신 부족(26.7%), 진로에 대한 준비의 어려움(25.4%)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진로정보의 부족은 다른 대학 보다 공과대(46.8%)와 의과대(39.0%)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적성에 대한 확신 부족은 자연대(30.5%)와 해양대(30.0%)가, 진로에 대한 준비의 어려움은 법정대(34.3%)와 사범대(30.4%)가 다른 대학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진로정보의 부족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보이고 있고, 진로정보의 부족은 3학년(43.1%)이, 적성에 대한 확신의 부족은 2학년(29.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진로정보의 부족은 남학생(40.5%)이 여학생(37.2%)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적성에 대한 확신의 부족은 남학생(23.6%) 보다 여학생(30.3%)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7〉 진로선택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진로에 대한 준비의 어려움	33 (29.5)	34 (34.3)	30 (20.7)	24 (30.4)	15 (24.6)	18 (18.0)	35 (24.8)	42 (24.3)	3 (27.3)	77 (23.4)	81 (24.9)	76 (28.5)	122 (24.4)	112 (26.5)	234 (25.4)
진로 정보의 부족	44 (39.3)	33 (33.3)	57 (39.3)	22 (27.8)	19 (31.1)	40 (40.0)	58 (41.1)	81 (46.8)	5 (45.5)	125 (38.0)	140 (43.1)	94 (35.2)	202 (40.5)	157 (37.2)	359 (39.0)
적성에 대한 확신 부족	26 (23.2)	22 (22.2)	44 (30.3)	20 (25.3)	18 (29.5)	30 (30.0)	43 (30.5)	40 (23.1)	3 (27.3)	97 (29.5)	80 (24.6)	69 (25.8)	118 (23.6)	128 (30.3)	246 (26.7)
본인의 관심 부족	3 (2.7)	4 (4.0)	6 (4.1)	3 (3.8)	6 (9.8)	7 (7.0)	1 (0.7)	6 (3.5)	-	17 (5.2)	9 (2.8)	10 (3.7)	31 (6.2)	5 (1.2)	36 (3.9)
기 타	4 (3.6)	5 (5.1)	4 (2.8)	1 (1.3)	2 (3.3)	3 (3.0)	1 (0.7)	1 (0.6)	-	8 (2.4)	6 (1.8)	7 (2.6)	13 (2.6)	8 (1.9)	21 (2.3)
무 응 답	2 (1.8)	1 (1.0)	4 (2.8)	9 (11.4)	1 (1.6)	2 (2.0)	3 (2.1)	3 (1.7)	-	5 (1.5)	9 (2.8)	11 (4.1)	13 (2.6)	12 (2.8)	25 (2.7)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8) 취업하는데 문제점

실제 취업하는데 있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어학실력 부족(36.4%)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개인의 노력 부족(31.4%), 취업분야 전문지식(10.1%) 등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어학실력 부족은 경상대(47.6%)와 법정대(45.5%)가, 개인의 노력 부족은 사범

대(40.5%)가, 취업분야 전문지식은 의과대(18.2%)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어학실력 부족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보이는데 비해, 개인의 노력 부족, 취업분야 전문지식, 컴퓨터 사용 미숙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어학실력 부족은 남학생(40.1%)이 여학생(32.0%)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개인의 노력 부족, 취업분야 전문지식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능력 부족과 노력 부족에 대해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을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어학능력 부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취업정보를 신속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표 5-8〉 취업하는데 문제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어학실력 부족	30 (26.8)	45 (45.5)	69 (47.6)	13 (16.5)	23 (37.7)	37 (37.0)	46 (32.6)	69 (39.9)	3 (27.3)	101 (30.7)	123 (37.8)	111 (41.6)	200 (40.1)	135 (32.0)	335 (36.4)
개인의 노력 부족	42 (37.5)	33 (33.3)	32 (22.1)	32 (40.5)	18 (29.5)	34 (34.0)	42 (29.8)	54 (31.2)	2 (18.2)	109 (33.1)	107 (32.9)	73 (27.3)	132 (26.5)	157 (37.2)	289 (31.4)
컴퓨터 사용 미숙	2 (1.8)	5 (5.1)	3 (2.1)	3 (3.8)	3 (4.9)	4 (4.0)	6 (4.3)	6 (3.5)	-	14 (4.3)	12 (3.7)	6 (2.2)	24 (4.8)	8 (1.9)	32 (3.5)
일반 상식 부족	2 (1.8)	3 (3.0)	7 (4.8)	-	1 (1.6)	3 (3.0)	2 (1.4)	-	-	8 (2.4)	7 (2.2)	3 (1.1)	11 (2.2)	7 (1.7)	18 (2.0)
현실적 기술의 부족	4 (3.6)	2 (2.0)	-	3 (3.8)	5 (8.2)	5 (5.0)	8 (5.7)	8 (4.6)	1 (9.1)	17 (5.2)	10 (3.1)	9 (3.4)	26 (5.2)	10 (2.4)	36 (3.9)
인맥 부족	3 (2.7)	1 (1.0)	6 (4.1)	1 (1.3)	1 (1.6)	2 (2.0)	2 (1.4)	5 (2.9)	1 (9.1)	7 (2.1)	9 (2.8)	6 (2.2)	11 (2.2)	11 (2.6)	22 (2.4)
취업분야 전문지식 부족	12 (10.7)	1 (1.0)	15 (10.3)	12 (15.2)	4 (6.6)	7 (7.0)	19 (13.5)	21 (12.1)	2 (18.2)	38 (11.6)	32 (9.8)	23 (8.6)	42 (8.4)	51 (12.1)	93 (10.1)
취업분야의 사전정보 부족	12 (10.7)	6 (6.1)	5 (3.4)	11 (13.9)	2 (3.3)	4 (4.0)	11 (7.8)	6 (3.5)	1 (9.1)	19 (5.8)	16 (4.9)	23 (8.6)	31 (6.2)	27 (6.4)	58 (6.3)
기 타	1 (0.9)	3 (3.0)	1 (0.7)	-	3 (4.9)	1 (1.0)	2 (1.4)	1 (0.6)	-	6 (1.8)	1 (0.3)	5 (1.9)	10 (2.0)	2 (0.5)	12 (1.3)
무 응답	4 (3.6)	-	7 (4.8)	4 (5.1)	1 (1.6)	3 (3.0)	3 (2.1)	3 (1.7)	1 (9.1)	10 (3.0)	8 (2.5)	8 (3.0)	12 (2.4)	14 (3.3)	26 (2.8)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9) 취업시 영향요인

취업시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외국어 실력(45.2%)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전공분야(26.3%), 개인적 연줄(8.1%)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의과대(9.1%)와 사범대(17.7%)를 제외하면 모든 대학의 30% 이상의 학생이 외국어 실력에 응답률을 나타냈고, 특히 경상대(61.4%), 법정대(58.6%)가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외국어 실력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보이는데 비해, 출신학교, 학교성적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외국어 실력과 출신학교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전공분야와 개인적 연줄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9〉 취업시 영향요인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외국어 실력	39 (34.8)	58 (58.6)	89 (61.4)	14 (17.7)	30 (49.2)	45 (45.0)	60 (42.6)	80 (46.2)	1 (9.1)	140 (42.6)	148 (45.5)	128 (47.9)	235 (47.1)	181 (42.9)	416 (45.2)
전공분야	41 (36.6)	12 (12.1)	17 (11.7)	49 (62.0)	8 (13.1)	25 (25.0)	35 (24.8)	49 (28.3)	6 (54.5)	88 (26.7)	83 (25.5)	71 (26.6)	121 (24.2)	121 (28.7)	242 (26.3)
출신학교	5 (4.5)	6 (6.1)	11 (7.6)	-	3 (4.9)	10 (10.0)	11 (7.8)	17 (9.8)	-	24 (7.3)	23 (7.1)	16 (6.0)	40 (8.0)	23 (5.5)	63 (6.8)
학교성적	5 (4.5)	5 (5.1)	8 (5.5)	6 (7.6)	4 (6.6)	4 (4.0)	11 (7.8)	5 (2.9)	3 (27.3)	28 (8.5)	17 (5.2)	6 (2.2)	29 (5.8)	22 (5.2)	51 (5.5)
개인적 연줄	14 (12.5)	7 (7.1)	14 (9.7)	3 (3.8)	6 (9.8)	9 (9.0)	10 (7.1)	11 (6.4)	1 (9.1)	19 (5.8)	32 (9.8)	24 (9.0)	32 (6.4)	43 (10.2)	75 (8.1)
외 모	2 (1.8)	1 (1.0)	2 (1.4)	1 (1.3)	-	1 (1.0)	1 (0.7)	2 (1.2)	-	4 (1.2)	3 (0.9)	3 (1.1)	3 (0.6)	7 (1.7)	10 (1.1)
출신지역	1 (0.9)	1 (1.0)	1 (0.7)	1 (1.3)	2 (3.3)	2 (2.0)	1 (0.7)	1 (0.6)	-	5 (1.5)	2 (0.6)	3 (1.1)	7 (1.4)	3 (0.7)	10 (1.1)
기 타	2 (1.8)	9 (9.1)	-	2 (2.5)	4 (6.6)	2 (2.0)	11 (7.8)	7 (4.0)	-	17 (5.2)	12 (3.7)	8 (3.0)	23 (4.6)	14 (3.3)	37 (4.0)
무 응답	3 (2.7)	-	3 (2.1)	3 (3.8)	4 (6.6)	2 (2.0)	1 (0.7)	1 (0.6)	-	4 (1.2)	5 (1.5)	8 (3.0)	9 (1.8)	8 (1.9)	17 (1.8)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0) 전공과 희망직업의 관련 정도

전공과 희망직업의 관련 정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조금 관련된다(34.7%)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많이 관련된다(32.2%), 아주 많이 관련된다(17.4%), 전혀 관련 없다(14.3%)의 순으로 응답을 나타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의과대가 아주 많이 관련된다(63.6%)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조금 관련된다는 농과대(42.6%), 법정대(39.4%)가, 많이 관련된다는 경상대(40.0%)와 해양대(36.0%)가, 전혀 관련 없다는 농과대(26.2%)와 자연대(21.3%)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아주 많이 관련된다는 2학년(21.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조금 관련된다. 많이 관련된다(32.2%), 전혀 관련없다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4학년으로 갈수록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많이 관련되다와 조금 관련된다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아주 많이 관련되다와 전혀 관련 없다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10〉 전공과 희망직업의 관련 정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아주 많이 관련된다	23 (20.5)	12 (12.1)	15 (10.3)	34 (43.0)	2 (3.3)	12 (12.0)	26 (18.4)	29 (16.8)	7 (63.6)	72 (21.9)	45 (13.8)	43 (16.1)	74 (14.8)	86 (20.4)	160 (17.4)
많이 관련된다	35 (31.3)	33 (33.3)	58 (40.0)	27 (34.2)	16 (26.2)	36 (36.0)	35 (24.8)	54 (31.2)	3 (27.3)	101 (30.7)	108 (33.2)	88 (33.0)	169 (33.9)	128 (30.3)	297 (32.2)
조금 관련된다	35 (31.3)	39 (39.4)	53 (36.6)	12 (15.2)	26 (42.6)	39 (39.0)	49 (34.8)	67 (38.7)	-	109 (33.1)	119 (36.6)	92 (34.5)	182 (36.5)	138 (32.7)	320 (34.7)
전혀 관련없다	16 (14.3)	15 (15.2)	16 (11.0)	3 (3.8)	16 (26.2)	12 (12.0)	30 (21.3)	23 (13.3)	1 (9.1)	43 (13.1)	51 (15.7)	38 (14.2)	69 (13.8)	63 (14.9)	132 (14.3)
무응답	3 (2.7)	-	3 (2.1)	3 (3.8)	1 (1.6)	1 (1.0)	1 (0.7)	-	-	4 (1.2)	2 (0.6)	6 (2.2)	5 (1.0)	7 (1.7)	12 (1.3)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1)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

취업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친구, 선·후배, 친지(49.6%)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PC통신(49.5%), 신문, 방송(32.6%), 교수나 학과 사무실(15.0%) 등의 순으로 응답을 나타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친구, 선·후배, 친지에는 사범대(58.2%), 자연대(55.3%), 의과대(54.5%)가, PC통신은 자연대(56.7%), 공과대(50.3%)가, 신문, 방송은 인문대(42.0%)와 법정대(41.4%)가, 교수나 학과 사무실은 의과대(36.4%)와 사범대(22.8%)가 다른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친구, 선·후배, 친지, 학교 취업지도 부서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함을 나타냈고, PC통신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나타냈으며, 특히 친구, 선·후배, 친지, PC통신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5-11〉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학교 취업지도부	8 (7.1)	8 (8.1)	7 (4.8)	5 (6.3)	3 (4.9)	9 (9.0)	4 (2.8)	4 (2.3)	-	22 (6.7)	15 (4.6)	11 (4.1)	29 (5.8)	19 (4.5)	48 (5.2)
신문·방송	47 (42.0)	41 (41.4)	46 (31.7)	19 (24.1)	24 (39.3)	28 (28.0)	34 (24.1)	58 (33.5)	3 (27.3)	118 (35.9)	99 (30.5)	83 (31.1)	165 (33.1)	135 (32.0)	300 (32.6)
P C 통 신	56 (50.0)	44 (44.4)	73 (50.3)	37 (46.8)	29 (47.5)	46 (46.0)	80 (56.7)	87 (50.3)	4 (36.4)	145 (44.1)	154 (47.4)	157 (58.8)	238 (47.7)	218 (51.7)	456 (49.5)
친구·선후배·친지	54 (48.2)	42 (42.4)	67 (46.2)	46 (58.2)	25 (41.0)	48 (48.0)	78 (55.3)	91 (52.6)	6 (54.5)	179 (54.4)	165 (50.8)	113 (42.3)	224 (44.9)	233 (55.2)	457 (49.6)
교 수 나 학과 사무실	17 (15.2)	12 (12.1)	24 (16.6)	18 (22.8)	9 (14.8)	14 (14.0)	21 (14.9)	19 (11.0)	4 (36.4)	43 (13.1)	54 (16.6)	41 (15.4)	62 (12.4)	76 (18.0)	138 (15.0)
전문 취업정보지	6 (5.4)	12 (12.1)	16 (11.0)	4 (5.1)	6 (9.8)	13 (13.0)	24 (17.0)	24 (13.9)	2 (18.2)	35 (10.6)	45 (13.8)	27 (10.1)	63 (12.6)	44 (10.4)	107 (11.6)
노동부 산하기관	2 (1.8)	2 (2.0)	1 (0.7)	1 (1.3)	3 (4.9)	4 (4.0)	1 (0.7)	2 (1.2)	-	5 (1.5)	6 (1.8)	5 (1.9)	14 (2.8)	2 (0.5)	16 (1.7)
취업설명회나 소개서	2 (1.8)	4 (4.0)	3 (2.1)	1 (1.3)	2 (3.3)	3 (3.0)	2 (1.4)	3 (1.7)	-	6 (1.8)	10 (3.1)	4 (1.5)	12 (2.4)	8 (1.9)	20 (2.2)
기 타	2 (1.8)	1 (1.0)	5 (3.4)	1 (1.3)	3 (4.9)	2 (2.0)	5 (3.5)	4 (2.3)	-	9 (2.7)	8 (2.5)	6 (2.2)	15 (3.0)	8 (1.9)	23 (2.5)
무 응 답	30 (26.8)	32 (32.3)	48 (33.1)	26 (32.9)	18 (29.5)	33 (33.0)	33 (23.4)	54 (31.2)	3 (27.3)	96 (29.2)	94 (28.9)	87 (32.6)	176 (35.3)	101 (23.9)	277 (30.1)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12) 취업자료실 이용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취업자료실의 이용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자료의 부족

(29.4%)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이용한 적 없음(28.4%), 있는지 알 수 없음(13.7%) 등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자료의 부족은 의과대(63.6%)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용한 적 없음은 의과대(36.4%)와 경상대(35.9%)가, 있는지 알 수 없음은 해양대(19.0%)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자료의 부족은 3학년(32.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이용한 적 없음, 있는지 알 수 없음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함을 보이고 있고, 형식적 활동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나타냈으며, 특히 자료의 부족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5-12〉 취업자료실 이용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형식적 활동	11 (9.8)	10 (10.1)	8 (5.5)	5 (6.3)	5 (8.2)	9 (9.0)	11 (7.8)	14 (8.1)	-	25 (7.6)	25 (7.7)	23 (8.6)	36 (7.2)	37 (8.8)	73 (7.9)
자료의 부족	30 (26.8)	27 (27.3)	42 (29.0)	26 (32.9)	16 (26.2)	30 (30.0)	43 (30.5)	50 (28.9)	7 (63.6)	82 (24.9)	105 (32.3)	84 (31.5)	150 (30.1)	121 (28.7)	271 (29.4)
행정서비스 부족	4 (3.6)	10 (10.1)	11 (7.6)	7 (8.9)	6 (9.8)	12 (12.0)	11 (7.8)	13 (7.5)	-	25 (7.6)	22 (6.8)	27 (10.1)	47 (9.4)	27 (6.4)	74 (8.0)
있는지 알 수 없다	13 (11.6)	16 (16.2)	11 (7.6)	8 (10.1)	9 (14.8)	19 (19.0)	18 (12.8)	32 (18.5)	-	55 (16.7)	45 (13.8)	26 (9.7)	75 (15.0)	51 (12.1)	126 (13.7)
이용한 적 없다	39 (34.8)	26 (26.3)	52 (35.9)	19 (24.1)	19 (31.1)	21 (21.0)	38 (27.0)	44 (25.4)	4 (36.4)	98 (29.8)	92 (28.3)	72 (27.0)	123 (24.6)	139 (32.9)	262 (28.4)
관심 없다	11 (9.8)	6 (6.1)	14 (9.7)	8 (10.1)	4 (6.6)	7 (7.0)	13 (9.2)	14 (8.1)	-	29 (8.8)	25 (7.7)	23 (8.6)	47 (9.4)	30 (7.1)	77 (8.4)
무응답	4 (3.6)	4 (4.0)	7 (4.8)	6 (7.6)	2 (3.3)	2 (2.0)	7 (5.0)	6 (3.5)	-	15 (4.6)	11 (3.4)	12 (4.5)	21 (4.2)	17 (4.0)	38 (4.1)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3) 취업정보실에서 보완되어야 할 정보

취업정보실에서 제공하는 보완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회사별 채용일정 및 전형정보(20.8%)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입사시험에 관한 정보(18.7%), 구인정보(16.7%)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회사별 채용일정 및 전형정보는 자연대(24.1%), 인문대(24.1%), 해양대(24.0%)의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고, 입사시험에 관한 정보는 의과대(27.3%)와 농과대(26.2%)가 구인정보는 의과대(36.4%)와 해양대(23.0%)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입사시험에 관한 정보, 기업정보는 3학년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회사별 채용일정 및 전형정보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나타냈으며, 특히 구인과 기업정보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회사별 채용일정 및 전형정보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5-13〉 취업정보실에 보완되어야 할 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기 업 정 보	8 (7.1)	12 (12.1)	13 (9.0)	4 (5.1)	5 (8.2)	8 (8.0)	13 (9.2)	22 (12.7)	-	31 (9.4)	33 (10.2)	21 (7.9)	54 (10.8)	31 (7.3)	85 (9.2)
구 인 정 보	13 (11.6)	18 (18.2)	27 (18.6)	10 (12.7)	8 (13.1)	23 (23.0)	25 (17.7)	26 (15.0)	4 (36.4)	57 (17.3)	42 (12.9)	55 (20.6)	93 (18.6)	61 (14.5)	154 (16.7)
회사별 채용일정 및 전형정보	27 (24.1)	18 (18.2)	30 (20.7)	13 (16.5)	10 (16.4)	24 (24.0)	34 (24.1)	34 (19.7)	2 (18.2)	45 (13.7)	76 (23.4)	71 (26.6)	95 (19.0)	97 (23.0)	192 (20.8)
전년도 취업사례	5 (4.5)	7 (7.1)	7 (4.8)	10 (12.7)	4 (6.6)	4 (4.0)	8 (5.7)	12 (6.9)	-	18 (5.5)	23 (7.1)	16 (6.0)	31 (6.2)	26 (6.2)	57 (6.2)
입 사 시 험 에 관 한 정 보	21 (18.8)	20 (20.2)	21 (14.5)	13 (16.5)	16 (26.2)	20 (20.0)	28 (19.9)	30 (17.3)	3 (27.3)	60 (18.2)	65 (20.0)	47 (17.6)	90 (18.0)	82 (19.4)	172 (18.7)
기 타	7 (6.3)	4 (4.0)	11 (7.6)	4 (5.1)	3 (4.9)	4 (4.0)	7 (5.0)	5 (2.9)	-	21 (6.4)	13 (4.0)	11 (4.1)	26 (5.2)	19 (4.5)	45 (4.9)
무 응 답	31 (27.7)	20 (20.2)	36 (24.8)	25 (31.6)	15 (24.6)	17 (17.0)	26 (18.4)	44 (25.4)	2 (18.2)	97 (29.5)	73 (22.5)	46 (17.2)	110 (22.0)	106 (25.1)	216 (23.5)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14)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점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취업정보 확대(24.6%)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실무 위주의 전공과목 개설(24.2%), 취업관련 과목 개설(12.9%) 등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취업정보 확대는 의과대(36.4%)와 인문대(29.5%)가 실무 위주의 전공과목 개설은 공과대(28.3%), 사범대(27.8%), 법정대(27.3%)가, 취업관련 과목 개설은 법정대(16.2%)와 해



양대(16.0%)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취업정보 확대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보였고, 실무 위주의 전공과목 개설과 취업관련 과목 개설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함을 보이다가 4학년이 되면서 감소함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을 했으며, 특히 취업정보 확대, 실무 위주의 전공과목 개설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14〉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취업정보 확대	33 (29.5)	22 (22.2)	38 (26.2)	16 (20.3)	14 (23.0)	23 (23.0)	33 (23.4)	44 (25.4)	4 (36.4)	75 (22.8)	79 (24.3)	73 (27.3)	126 (25.3)	101 (23.9)	227 (24.6)
취업관련 과목 개설	20 (17.9)	27 (27.3)	35 (24.1)	22 (27.8)	10 (16.4)	21 (21.0)	38 (27.0)	49 (28.3)	1 (9.1)	87 (26.4)	69 (21.2)	67 (25.1)	115 (23.0)	108 (25.6)	223 (24.2)
실무 위주의 전공과목 개설	12 (10.7)	16 (16.2)	19 (13.1)	8 (10.1)	9 (14.8)	16 (16.0)	20 (14.2)	19 (11.0)		42 (12.8)	48 (14.8)	29 (10.9)	64 (12.8)	55 (13.0)	119 (12.9)
어학시설 확대	14 (12.5)	6 (6.1)	12 (8.3)	7 (8.9)	7 (11.5)	18 (18.0)	16 (11.3)	20 (11.6)	1 (9.1)	42 (12.8)	33 (10.2)	26 (9.7)	59 (11.8)	42 (10.0)	101 (11.0)
정기적인 진로교육 실시	6 (5.4)	8 (8.1)	13 (9.0)	6 (7.6)	3 (4.9)	10 (10.0)	11 (7.8)	12 (6.9)	2 (18.2)	28 (8.5)	28 (8.6)	15 (5.6)	39 (7.8)	32 (7.6)	71 (7.7)
취업관련 세미나 및 강연회	10 (8.9)	9 (9.1)	8 (5.5)	6 (7.6)	7 (11.5)	5 (5.0)	10 (7.1)	12 (6.9)	1 (9.1)	21 (6.4)	27 (8.3)	20 (7.5)	35 (7.0)	33 (7.8)	68 (7.4)
적극적인 학교 홍보	5 (4.5)	4 (4.0)	5 (3.4)	2 (2.5)	3 (4.9)	3 (3.0)	3 (2.1)	8 (4.6)	1 (9.1)	7 (2.1)	14 (4.3)	13 (4.9)	20 (4.0)	14 (3.3)	34 (3.7)
기 타	2 (1.8)	2 (2.0)	2 (1.4)	1 (1.3)	1 (1.6)	1 (1.0)	-	-	-	2 (0.6)	3 (0.9)	4 (1.5)	7 (1.4)	2 (0.5)	9 (1.0)
무 응 답	10 (8.9)	5 (5.1)	13 (9.0)	11 (13.9)	7 (11.5)	3 (3.0)	10 (7.1)	9 (5.2)	1 (9.1)	25 (7.6)	24 (7.4)	20 (7.5)	34 (6.8)	35 (8.3)	69 (7.5)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6. 학생생활연구소에 관한 설문

### 1) 학생생활연구소 이용경험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예(12.3%), 아니오(85.6%)의 응답률을 보여 10명 중 1명 정도만이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의과대(45.5%)가 학생생활연구소의 이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

로 사범대(26.6%), 인문대(17.9%), 경상대(12.4%), 자연대(11.3%), 해양대(10.0%), 농과대(9.8%), 공과대(6.4%)의 순으로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보면,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한 경험율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학년(9.4%), 3학년(11.1%), 4학년(17.2%)의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한 경험율은 남학생(9.8%) 보다 여학생(15.2%)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1〉 학생생활연구소 이용경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예	20 (17.9)	6 (6.1)	18 (12.4)	21 (26.6)	6 (9.8)	10 (10.0)	16 (11.3)	11 (6.4)	5 (45.5)	31 (9.4)	36 (11.1)	46 (17.2)	49 (9.8)	64 (15.2)	113 (12.3)
아 니 오	88 (78.6)	93 (93.9)	124 (85.5)	54 (68.4)	53 (86.9)	88 (88.0)	123 (87.2)	159 (91.9)	6 (54.5)	291 (88.4)	283 (87.1)	214 (80.1)	440 (88.2)	348 (82.5)	788 (85.6)
무 응 답	4 (3.6)	-	3 (2.1)	4 (5.1)	2 (3.3)	2 (2.0)	2 (1.4)	3 (1.7)	-	7 (2.1)	6 (1.8)	7 (2.6)	10 (2.0)	10 (2.4)	20 (2.2)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2)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이유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서(28.9%)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못느껴서(18.9%), 이용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16.6%), 위치를 몰라서(6.7%), 시간이 없어서(2.8%)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서는 자연대(35.5%), 경상대(33.8%), 법정대(31.3%)가, 이용할 필요성을 못느껴서는 법정대(26.3%), 인문대(22.3%), 공과대(20.8%)가, 이용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는 의과대(27.3%), 해양대(21.0%)가, 위치를 몰라서(6.7%)는 법정대(10.1%), 해양대(10.0%)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서에 대한 응답률을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함을 보이고 있고, 이용할 필요성을 못느껴서는 3학년(21.5%)이, 이용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는 4학년(19.5%)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특히, 이용할 필요성을 못느껴서는 남학생(21.4%)이 여학생(15.6%)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이용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

라서는 남학생(15.2%) 보다 여학생(18.2%)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응답이 많은 이유는 학교내 기관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보거나, 학생생활연구소의 기능을 알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

〈표 6-2〉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이용하고 싶으나 생활부 해야 하는지 몰라서	18 (16.1)	15 (15.2)	26 (17.9)	14 (17.7)	12 (19.7)	21 (21.0)	21 (14.9)	23 (13.3)	3 (27.3)	52 (15.8)	49 (15.1)	52 (19.5)	76 (15.2)	77 (18.2)	153 (16.6)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어서	25 (22.3)	26 (26.3)	23 (15.9)	10 (12.7)	12 (19.7)	14 (14.0)	26 (18.4)	36 (20.8)	1 (9.1)	62 (18.8)	70 (21.5)	41 (15.4)	107 (21.4)	66 (15.6)	173 (18.8)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서	26 (23.2)	31 (31.3)	49 (33.8)	14 (17.7)	17 (27.9)	28 (28.0)	50 (35.5)	49 (28.3)	2 (18.2)	104 (31.6)	95 (29.2)	67 (25.1)	141 (28.3)	125 (29.6)	266 (28.9)
위치를 몰라서	5 (4.5)	10 (10.1)	8 (5.5)	4 (5.1)	2 (3.3)	10 (10.0)	10 (7.1)	13 (7.5)	-	27 (8.2)	17 (5.2)	18 (6.7)	40 (8.0)	22 (5.2)	62 (6.7)
시간이 없어서	2 (1.8)	2 (2.0)	2 (1.4)	4 (5.1)	2 (3.3)	3 (3.0)	4 (2.8)	7 (4.0)	-	4 (1.2)	14 (4.3)	8 (3.0)	15 (3.0)	11 (2.6)	26 (2.8)
기 타	1 (0.9)	1 (1.0)	2 (1.4)	3 (3.8)	-	5 (5.0)	5 (3.5)	11 (6.4)	-	12 (3.6)	10 (3.1)	6 (2.2)	11 (2.2)	17 (4.0)	28 (3.0)
무 응 답	35 (31.3)	14 (14.1)	35 (24.1)	30 (38.0)	16 (26.2)	19 (19.0)	25 (17.7)	34 (19.7)	5 (45.5)	68 (20.7)	70 (21.5)	75 (28.1)	109 (21.8)	104 (24.6)	213 (23.1)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3) 원하는 프로그램

학생생활연구소의 프로그램 중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진로선택 및 지도 프로그램(53.9%)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기표현력 향상 및 자기주장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26.0%), 성격이해와 자아성장 프로그램(22.1%), 교우·이성·인간관계 문제 프로그램(20.0%), 학습방법에 대한 프로그램(14.9%),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13.0%),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12.3%), 성상담 프로그램(4.9%), 심리극(3.4%),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2.8%), 또래상담자 프로그램(2.7%)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진로선택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은 법정대(67.7%), 자연대(63.1%), 인문대(59.8%), 경상대(55.9%), 해양대(53.0%)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자기표현력 향상 및 자기주장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은 자연대(29.1%)가, 성격이해와 자아성장 프로그램은 의과대(45.5%), 인문대(31.3%)가, 교우·이성·인간관계 문제 프로그램은 의과대(36.4%)와 사범대(30.4%)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학습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은 법정대(23.2%)가, 스트

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은 농과대(16.2%)가,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은 의과대(36.4%)와 사범대(19.0%)가 다른 대학 보다 비교적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지도 관련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56.0%)과 자기표현력 향상 및 자기주장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26.8%)은 3학년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격이해와 자아성장 프로그램(28.1%),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14.2%)은 4학년이, 교우·이성·인간관계 문제 프로그램(22.8%)과 학습방법에 대한 프로그램(16.7%)은 1학년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보면, 진로선택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 자기표현력 향상 및 자기주장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성격이해와 자아성장 프로그램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교우·이성·인간관계 문제 프로그램, 학습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6-3〉 원하는 프로그램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성격이해와 자아 성장 프로그램	67 (59.8)	67 (67.7)	81 (55.9)	27 (34.2)	25 (41.0)	53 (53.0)	89 (63.1)	84 (48.6)	3 (27.3)	167 (50.8)	182 (56.0)	147 (55.1)	257 (51.5)	239 (56.6)	496 (53.9)
의사소통 훈련 프 로 그 램	31 (27.7)	28 (28.3)	37 (25.5)	14 (17.7)	16 (26.2)	21 (21.0)	41 (29.1)	48 (27.7)	3 (27.3)	84 (25.5)	87 (26.8)	68 (25.5)	114 (22.8)	125 (29.6)	239 (26.0)
진로선택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	35 (31.3)	14 (14.1)	26 (17.9)	20 (25.3)	13 (21.3)	20 (20.0)	33 (23.4)	38 (22.0)	5 (45.5)	67 (20.4)	62 (19.1)	75 (28.1)	94 (18.8)	110 (26.1)	204 (22.1)
학 습 방 법 에 대한 프로그램	20 (17.9)	14 (14.1)	29 (20.0)	24 (30.4)	14 (23.0)	24 (24.0)	23 (16.3)	32 (18.5)	4 (36.4)	75 (22.8)	62 (19.1)	47 (17.6)	105 (21.0)	79 (18.7)	184 (20.0)
교우·이성·인간 관계 문제 프로그램	12 (10.7)	8 (8.1)	26 (17.9)	15 (19.0)	8 (13.1)	8 (8.0)	14 (9.9)	18 (10.4)	4 (36.4)	50 (15.2)	37 (11.4)	26 (9.7)	60 (12.0)	53 (12.6)	113 (12.3)
성상담 프로그램	13 (11.6)	23 (23.2)	19 (13.1)	9 (11.4)	8 (13.1)	16 (16.0)	21 (14.9)	28 (16.2)	-	55 (16.7)	43 (13.2)	39 (14.6)	80 (16.0)	57 (13.5)	137 (14.9)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	1 (0.9)	5 (5.1)	9 (6.2)	4 (5.1)	5 (8.2)	8 (8.0)	4 (2.8)	9 (5.2)	-	12 (3.6)	17 (5.2)	16 (6.0)	36 (7.2)	9 (2.1)	45 (4.9)
또 래 상 담 자 양성 프로그램	10 (8.9)	14 (14.1)	15 (10.3)	11 (13.9)	10 (16.4)	16 (16.0)	15 (10.6)	28 (16.2)	1 (9.1)	42 (12.8)	40 (12.3)	38 (14.2)	69 (13.8)	51 (12.1)	120 (13.0)
심리극(싸이코 드라마) 프 로 그 램	3 (2.7)	1 (1.0)	3 (2.1)	7 (8.9)	1 (1.6)	3 (3.0)	5 (3.5)	2 (1.2)	-	10 (3.0)	10 (3.1)	5 (1.9)	16 (3.2)	9 (2.1)	25 (2.7)
도덕성 함양 프 로 그 램	4 (3.6)	5 (5.1)	4 (2.8)	3 (3.8)	3 (4.9)	3 (3.0)	4 (2.8)	5 (2.9)	-	10 (3.0)	16 (4.9)	5 (1.9)	14 (2.8)	17 (4.0)	31 (3.4)
신규대학원생 및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2 (1.8)	1 (1.0)	4 (2.8)	2 (2.5)	5 (8.2)	5 (5.0)	1 (0.7)	6 (3.5)	-	7 (2.1)	11 (3.4)	8 (3.0)	22 (4.4)	4 (0.9)	26 (2.8)
무 응 답	26 (23.2)	18 (18.2)	37 (25.5)	22 (27.8)	14 (23.0)	23 (23.0)	32 (22.7)	48 (27.7)	2 (18.2)	79 (24.0)	83 (25.5)	60 (22.5)	131 (26.3)	91 (21.6)	222 (24.1)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4) 받고 싶은 심리검사

받고 싶은 심리검사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진로 적성검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다면적 인성검사(14.8%), MBTI 성격 유형검사(12.9%), 자아개념검사(11.2%), 지능검사(6.8%), 표준화 성격검사(6.1%)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진로 적성검사는 법정대(57.6%), 자연대(53.2%), 공과대(43.9%)의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고, 다면적 인성검사는 사범대(21.5%)와 해양대(20.0%)가, MBTI 성격 유형검사는 의과대(18.2%)와 해양대(18.0%)가, 자아개념검사는 의과대(36.4%)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진로 적성검사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증가함을 나타냈고, 다면적 인성검사, MBTI 성격유형검사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함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진로 적성검사와 MBTI 성격유형검사, 자아개념검사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표준화 성격검사와 지능검사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4〉 받고 싶은 심리검사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MBTI 성격 유형검사	18 (16.1)	10 (10.1)	22 (15.2)	13 (16.5)	9 (14.8)	18 (18.0)	11 (7.8)	16 (9.2)	2 (18.2)	45 (13.7)	41 (12.6)	33 (12.4)	57 (11.4)	62 (14.7)	119 (12.9)
표준화 성격검사	4 (3.6)	10 (10.1)	5 (3.4)	8 (10.1)	2 (3.3)	8 (8.0)	5 (3.5)	14 (8.1)	-	21 (6.4)	23 (7.1)	12 (4.5)	41 (8.2)	15 (3.6)	56 (6.1)
다면적 인성검사	19 (17.0)	10 (10.1)	21 (14.5)	17 (21.5)	8 (13.1)	20 (20.0)	17 (12.1)	22 (12.7)	2 (18.2)	53 (16.1)	47 (14.5)	36 (13.5)	74 (14.8)	62 (14.7)	136 (14.8)
진로 적성검사	49 (43.8)	57 (57.6)	56 (38.6)	25 (31.6)	25 (41.0)	33 (33.0)	75 (53.2)	76 (43.9)	3 (27.3)	124 (37.7)	144 (44.3)	131 (49.1)	200 (40.1)	199 (47.2)	399 (43.3)
지능 검사	4 (3.6)	4 (4.0)	13 (9.0)	2 (2.5)	8 (13.1)	8 (8.0)	13 (9.2)	11 (6.4)	-	24 (7.3)	20 (6.2)	19 (7.1)	49 (9.8)	14 (3.3)	63 (6.8)
자아개념검사	12 (10.7)	7 (7.1)	17 (11.7)	7 (8.9)	6 (9.8)	9 (9.0)	16 (11.3)	25 (14.5)	4 (36.4)	45 (13.7)	31 (9.5)	27 (10.1)	54 (10.8)	49 (11.6)	103 (11.2)
무 응 답	6 (5.4)	1 (1.0)	11 (7.6)	7 (8.9)	3 (4.9)	4 (4.0)	4 (2.8)	9 (5.2)	-	17 (5.2)	19 (5.8)	9 (3.4)	24 (4.8)	21 (5.0)	45 (4.9)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5) 학생생활연구소 활동 중 가장 원하는 것

학생생활연구소 활동 중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다양한 성격 및 적성검사(38.5%)에 대하여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취업면접에 따른 특강

(18.2%),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활동(10.4%), 개인상담(9.7%), 정신건강에 관한 워크샵 및 심포지엄(8.8%), 집단상담(3.5%), 교수와의 대화(2.3%), 성분화상담(1.5%), 선배와의 대화(1.5%)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다양한 성격 및 적성검사는 자연대(44.0%)가, 취업면접에 따른 특강은 법정대(25.3%)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활동은 의과대(27.3%)가 개인상담은 인문대(14.3%)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다양한 성격 및 적성검사는 3학년(40.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은 4학년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활동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감소함을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다양한 성격 및 적성검사는 남학생(35.1%) 보다 여학생(42.7%)의 응답률이 높고,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활동과 개인상담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6-5〉 학생생활연구소 활동 중 가장 원하는 것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개 인 상 담	16 (14.3)	6 (6.1)	11 (7.6)	9 (11.4)	6 (9.8)	8 (8.0)	12 (8.5)	20 (11.6)	1 (9.1)	30 (9.1)	29 (8.9)	30 (11.2)	53 (10.6)	36 (8.5)	89 (9.7)
집 단 상 담	5 (4.5)	5 (5.1)	3 (2.1)	7 (8.9)	1 (1.6)	3 (3.0)	3 (2.1)	5 (2.9)	-	10 (3.0)	10 (3.1)	12 (4.5)	15 (3.0)	17 (4.0)	32 (3.5)
다양한 성격 및 적 성 검 사	40 (35.7)	37 (37.4)	59 (40.7)	27 (34.2)	24 (39.3)	40 (40.0)	62 (44.0)	62 (35.8)	4 (36.4)	123 (37.4)	131 (40.3)	101 (37.8)	175 (35.1)	180 (42.7)	355 (38.5)
성분화 상담	1 (0.9)	2 (2.0)	1 (0.7)	1 (1.3)	1 (1.6)	4 (4.0)	1 (0.7)	3 (1.7)	-	5 (1.5)	6 (1.8)	3 (1.1)	10 (2.0)	4 (0.9)	14 (1.5)
정신건강에 관한 워크샵 및 심포지엄	11 (9.8)	5 (5.1)	9 (6.2)	11 (13.9)	7 (11.5)	6 (6.0)	8 (5.7)	22 (12.7)	2 (18.2)	29 (8.8)	28 (8.6)	24 (9.0)	46 (9.2)	35 (8.3)	81 (8.8)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활동	14 (12.5)	14 (14.1)	10 (6.9)	9 (11.4)	8 (13.1)	11 (11.0)	13 (9.2)	14 (8.1)	3 (27.3)	45 (13.7)	33 (10.2)	18 (6.7)	61 (12.2)	35 (8.3)	96 (10.4)
선배와의 대화	3 (2.7)	2 (2.0)	1 (0.7)	-	1 (1.6)	2 (2.0)	3 (2.1)	1 (4.6)	1 (9.1)	11 (3.3)	1 (0.3)	2 (0.7)	9 (1.8)	5 (1.2)	14 (1.5)
교수와의 대화	-	1 (1.0)	4 (2.8)	2 (2.5)	-	3 (3.0)	3 (2.1)	8 (4.6)	-	11 (3.3)	3 (0.9)	7 (2.6)	15 (3.0)	6 (1.4)	21 (2.3)
취업면접에 따른 특강	16 (14.3)	25 (25.3)	33 (22.8)	9 (11.4)	11 (18.0)	17 (17.0)	31 (22.0)	26 (15.0)	-	44 (13.4)	70 (21.5)	54 (20.2)	87 (17.4)	81 (19.2)	168 (18.2)
무 응 답	6 (5.4)	2 (2.0)	14 (9.7)	4 (5.1)	2 (3.3)	6 (6.0)	5 (3.5)	12 (6.9)	-	21 (6.4)	14 (4.3)	16 (6.0)	28 (5.6)	23 (5.5)	51 (5.5)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6) 원하는 특강 분야

가장 원하는 특강 분야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성격 및 대인관계(27.1%)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취업면접 준비(26.4%), 효과적인 학습방법(13.7%), 스트레스 대처(10.7%), 정신건강(7.2%), 이성교제와 결혼(6.9%), 올바른 성의식(3.1%)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성격 및 대인관계는 의과대(63.6%)가, 취업면접 준비는 경상대(33.8%)와 법정대(32.3%)가, 효과적인 학습방법은 법정대(19.2%)와 자연대(16.3%)가 다른 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성격 및 대인관계(29.8%)와 효과적인 학습방법(14.9%)는 2학년이, 스트레스 대처(12.0%)와 이성교제와 결혼(8.6%)은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건강과 취업면접 준비는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응답률이 증가함을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이성교제와 결혼과 효과적인 학습방법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성격 및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6-6〉 원하는 특강 분야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2	3	4	남	여	
성격 및 대인관계	40 (35.7)	19 (19.2)	42 (29.0)	25 (31.6)	15 (24.6)	20 (20.0)	34 (24.1)	48 (27.7)	7 (63.6)	98 (29.8)	78 (24.0)	74 (27.7)	121 (24.2)	129 (30.6)	250 (27.1)
이성교제와 결혼	6 (5.4)	9 (9.1)	10 (6.9)	4 (5.1)	5 (8.2)	7 (7.0)	12 (8.5)	10 (5.8)	1 (9.1)	22 (6.7)	28 (8.6)	14 (5.2)	44 (8.8)	20 (4.7)	64 (6.9)
스트레스 대처	10 (8.9)	10 (10.1)	8 (5.5)	13 (16.5)	8 (13.1)	18 (18.0)	11 (7.8)	20 (11.6)	1 (9.1)	37 (11.2)	39 (12.0)	23 (8.6)	56 (11.2)	43 (10.2)	99 (10.7)
효과적인 학습방법	18 (16.1)	19 (19.2)	13 (9.0)	12 (15.2)	6 (9.8)	11 (11.0)	23 (16.3)	24 (13.9)	-	49 (14.9)	44 (13.5)	33 (12.4)	72 (14.4)	54 (12.8)	126 (13.7)
정 신 건 강	11 (9.8)	6 (6.1)	6 (4.1)	10 (12.7)	7 (11.5)	6 (6.0)	11 (7.8)	9 (5.2)	-	19 (5.8)	22 (6.8)	25 (9.4)	32 (6.4)	34 (8.1)	66 (7.2)
올바른 성의식	1 (0.9)	3 (3.0)	7 (4.8)	2 (2.5)	3 (4.9)	7 (7.0)	2 (1.4)	4 (2.3)	-	11 (3.3)	12 (3.7)	6 (2.2)	17 (3.4)	12 (2.8)	29 (3.1)
취업면접 준비	21 (18.8)	32 (32.3)	49 (33.8)	9 (11.4)	15 (24.6)	27 (27.0)	44 (31.2)	44 (25.4)	2 (18.2)	73 (22.2)	89 (27.4)	81 (30.3)	132 (26.5)	111 (26.3)	243 (26.4)
무 응 답	5 (4.5)	1 (1.0)	10 (6.9)	4 (5.1)	2 (3.3)	4 (4.0)	4 (2.8)	14 (8.1)	-	20 (6.1)	13 (4.0)	11 (4.1)	25 (5.0)	19 (4.5)	44 (4.8)
계	112 (100.0)	99 (100.0)	145 (100.0)	79 (100.0)	61 (100.0)	100 (100.0)	141 (100.0)	173 (100.0)	11 (100.0)	329 (100.0)	325 (100.0)	267 (100.0)	499 (100.0)	422 (100.0)	921 (100.0)

##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실태와 의식구조 등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현실을 이해하여 학교 당국의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수행, 그리고 학생지도와 교육 개선의 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그 목적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총 7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은 제주대학교 재학생 921명이다.

그리고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해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 기준을 위주로 빈도수와 백분율(%)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생활에 관한 설문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졸업 후 진로문제(65.5%)를 지적하는 것에 비해, 방과 후 시간은 주로 무계획하게 보내거나(16.9%), 교우관계(16.3%), 취미생활(15.5%) 등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달 동안 보는 교양도서의 양은 없거나(30.2%), 또는 평균 1권(44.3%)에 그쳤으며, 학기 중 83.6%(10명 중 8명 꼴로)의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로 보아 졸업 후 진로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시간을 계획적으로 보내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며, 학교측에서는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학생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주대학생 70.5%의 학생(10명 중 7명 꼴로)이 이성과 사귀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학교 친구들과 간의 대화에서 주된 화제 거리는 이성 및 친구(30.9%), 미래의 진로(26.1%)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민거리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 71.2%의 학생이 의논상대로 친구를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선배(11.7%)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동료상담 훈련 같은 전문적인 상담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제주대학생 10명 중 6명 꼴로(60.9%)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목적은 학업관련 정보 검색(51.4%)으로 나타났다. 또한 91.5%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해, 휴대폰이 대학생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조달방법은 부모님 부담이 75.1%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비를 부모님에게 의존함을 알 수 있었고, 용돈 마련(62.9%)을 위해 79.4%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학비는



부모님에게, 용돈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학교생활에 관한 설문

제주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 수준(57.7%)이며, 대학생활에서 실망한 점은 자기 자신(36.4%)과 강의(20.7%), 비소속감(18.5%) 등을 들었다. 대학생활에서 실망한 점으로 자기자신을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 자존감 향상 같은 상담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생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62.3%)이라고 지적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겠다.

총학생회가 주로 해야 할 일을 학생의 복지사업(77.1%)이라고 지적한 점과,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52.0%)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제주대학생들은 총학생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축제(대동제)행사 때는 축제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구경하는 학생(58.2%)이 가장 많아, 축제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39.6%)와 참여한 적이 없다(39.3%)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필요성을 못 느껴서(46.0%)라고 했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동아리 가입 이유를 폭넓은 인간관계(32.6%)라고 지적했다. 활동 중인 동아리는 취미지향(29.8%), 학술지향(24.2%), 봉사지향(16.3%)의 특성을 많이 띠고 있었다.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전문성 있는 활동(24.5%)과 쾌적한 분위기와 공간 문제(20.1%)를 들고 있다.

## 3. 학업문제에 관한 설문

현재 전공의 선택 동기를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38.7%)와 성적수준에 맞아서(30.8%)라고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 결과에서 제주대학생 10명 중 4명 정도가 자신의 적성과 취미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47.8%)으로 나타났고,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는 이유를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38.4%)와 교과내용이 기대에 어긋나서(19.6%)를 꼽고 있다.

학부제가 실시되고 난 뒤, 학생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을 학우들간의 결속력 부족(37.9%), 선·후배 관계 단절(25.5%), 소속감 저하(20.4%)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학부와 단과대학에서 학부제 실시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전과를 할 의향에 대해서는 제주대학생 10명 중 7명(73.8%)은 자신의 전공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했으며, 전과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전과할 의향의 이유를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42.2%)와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36.4%)를 들고 있다.

72.5%가 복수전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72.5%)고 응답하였으며, 복수전공을 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그 이유를 전공의 학문적인 보완(34.8%)과 전공에 만족하지만 타 학분에 관심이 많아서(34.8%)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복수전공 계획이 없는 이유를 하고 싶지만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43.6%)와 전공에 만족함으로(26.9%)를 들었다.

수강신청시 교과목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40.5%가 알고 한다고 했고, 43.2%가 모르고 한다고 응답하여,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수강신청을 정정하는 이유를 시간표 조정을 위해(29.8%)와 강의방식이 맘에 들지 않아서(17.7%)를 들고 있고, 수강신청시 불만사항이나 문제점을 사전정보의 부족함(53.1%)과 교양과목 선택의 폭이 좁다(44.8%)를 지적하고 있다.

교수의 강의는 대체로 만족하나 과목에 따라 다르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교수와의 상담내용은 진로문제(17.0%), 학업문제(15.3%), 개인적 신상문제(5.1%) 등이었으나, 한 학기 중 교수와의 상담횟수는 전혀 없다(71.2%)로 나타나 학생과 교수간의 거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도교수로 선택하고 싶은 교수는 학생문제에 관심이 많은 교수(47.4%)와 훌륭한 인품을 갖춘 교수(21.5%), 전공분야에 실력이 많은 교수(13.9%), 학문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수(12.3%)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이 결과에서 학생들은 교수의 전공에 대한 실력이나 학문지도 보다는 학생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교수를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4. 행정서비스 및 학교발전에 관한 설문

학교 행정직원의 친절성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51.5%)로 응답하고 있고, 학교 행정서비스 중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 직원의 행정 편의주의(29.3%)를 들고 있다.

학교 내 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51.2%)라고 응답했고, 학교 내 가장 불만족스러운 편의시설로 통학버스(27.0%), 식당(21.1%), 체육시설(12.8%), 서점(11.0%) 등을 들고 있다.

도서관은 주로 서적대출 및 열람(64.4%), 시험공부(17.8%), 평소공부(14.1%)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전망을 현재 수준(52.0%), 또는 밝은 편이다(22.6%), 어두운 편이다(20.3%)라고 응답해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교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진로 및 취업지도 확대(54.7%)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효과적인 학교 홍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대중매체의 이용(73.4%)과 고교생 대상의 행사와 대회 개최(67.4%), 고교 교사 및 학생 견학 유치(47.8%)를 들고 있다.

#### 5. 진로 및 취업대책에 관한 설문

대학 졸업 후 계획은 취업(61.0%)과 대학원 진학(11.1%)을 주로 많이 들고 있고, 직업선택의 주요기

준은 전공 및 적성 계발(29.4%), 직업의 전문성(22.4%), 장래 전망(21.5%) 등을 들었다. 취업을 대비하여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학공부, 자격증 취득, 컴퓨터, 전공공부 등 이었다.

취업을 위해서 관심만 가지고 있다(43.6%)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어학실력(45.2%)과 전공공부(23.7%), 자격증 취득(14.1%)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취업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취업정보의 부족(29.6%)과 적성에 대한 확신의 부족(28.3%)을 지적하고 있으며, 진로선택시 어려움 점을 진로정보의 부족(39.0%)과 적성에 대한 확신 부족(26.7%), 진로에 대한 준비의 어려움(25.4%)의 순으로 들고 있어 이에 대한 도움을 학교측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실제 취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어학실력 부족(36.4%)과 개인의 노력 부족(31.4%)을 들고 있고, 취업시 외국어 실력(45.2%)과 전공분야(26.3%)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전공과 희망직업은 조금 관련된다(34.7%)와 많이 관련된다(32.2%)라고 응답하여, 비교적 전공과 희망직업은 상관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취업에 대한 정보는 친구, 선·후배, 친지(49.6%) 또는 PC통신(49.5%)과 신문, 방송(32.6%)에서 많이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취업자료실의 이용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료의 부족(29.4%)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정보실에서 제공하는 보완되어야 할 정보로 회사별 채용일정 및 전형정보를 들고 있고,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점으로 취업정보 확대(24.6%), 실무 위주의 전공 과목 개설(24.2%), 취업관련 과목 개설(12.9%), 정기적인 진로교육 실시(11.0%)를 들고 있다.

## 6. 학생생활연구소에 관한 설문

제주대학생이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한 경험은 10명 중 1명 정도였다.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서(28.9%)와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18.9%), 이용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16.6%)를 들고 있다. 이 결과에서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하는 일과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생활연구소의 프로그램 중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로 선택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53.9%), 자기표현력 향상 및 자기주장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26.0%), 성격이해와 자아성장 프로그램(22.1%), 교우·이성·인간관계 분제 프로그램(20.0%), 학습방법에 대한 프로그램(14.9%),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13.0%),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12.3%) 등을 들고 있다.

받고 싶은 심리검사로 진로 적성검사(43.3%), 다면적 인성검사(14.8%), MBTI 성격 유형검사(12.9%), 자아개념검사(11.2%) 등을 들었고, 학생생활연구소 활동 중 가장 원하는 것으로 다양한 성격 및 적성검사(38.5%)를 들었다.

가장 원하는 특강 분야로는 성격 및 대인관계(27.1%), 취업면접 준비(26.4%), 효과적인 학습방법(13.7%)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생활연구소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과 함께,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심리검사·다양한 상담활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다.

## 참 고 문 헌

- 김두화(2000). '1999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1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종규 외(1998). '졸업예정자의 대학생활 및 취업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3호,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2000). '2000학년도 졸업생의 취업의식에 대한 실태 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5호,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권혜진 외(2000). '신입생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4집,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 구희산 외(1995). '학생생활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6집,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1996). '대학생활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7집,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 류진혜 외(1998). '취업의식 조사를 통한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대학생활연구 제16호,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박경하 외(1999). '대학생활에 관한 실태 및 의식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3집,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 이경아 외(1999).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의식조사', 연세상담연구 제15권,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 엄명용 외(1997). '21세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학생생활연구 창간호, 인제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동진 외(1997). '1997학년도 가야대생 취업의식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창간호, 가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명숙(2000). '대학생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7호, 한경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 유 외(1996). '경영대학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의식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6집,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태원 외(1996).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6집,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유봉현 외(1989). '충북대학교 재학생들의 의식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3집,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윤성근 외(2000).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연계성', 학생생활연구 제15호, 경희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 조기정 외(1999). '목포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의식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2집, 목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최인환 외(1998). '대학생활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9집,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1999). '대학생활 실태 및 의식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1집,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 허 연 외(2000). '신입생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7집,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1999). '재학생 실태 및 의식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6집,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 황상민 외(1997). '학교이미지, 대학생활 그리고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인식조사', 대학생활연구 제6호, 세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abstract>

## **A Survey on the Consciousness of Students at Cheju National University**

**Kim, Doo-Hwa · Kim, Kyung-Soon**

Information about the actual conditions and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their opinions and attitude to the general campus life becomes a basic material to help them enjoy a desirable campus life and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plan of the school authorities.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in providing fundamental data to be reflected o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nd performing the main policies of the school authorities understanding the realities of college students and also on the direction of student guidance and educational improvement through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and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921 college students at Cheju National University, and as a way of selecting a sample the 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 was executed dividing them in a fixed ratio depending on the number of students in each department in order to maintain equivalent sampling.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eventy questions of the following six areas in total: individual life, school life, study problems, administrative service and school development, career and employment measures, and finally questions on the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

For data analysis, the statistical method of SPSS was used to analyze it according to the frequency and percentages based on each college, year, and sex.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s :

### **1. Questions on individual life**

The most important matter to the college student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is their concerns about career after graduation(65.5%). With this result, it's implied that they think their career after graduation is important but few students spend their time on a plan for their career. Students need to recognize it themselves, and the school needs to prepare a time management program so that students can use their time with efficiency.

### **2. Questions on school life**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ampus life is a normal level(57.5%), and their disappointments in the campus life are themselves(36.4%) and lectures(20.7%). The fact that the main reason of their disappointment is themselves suggests that it's necessary to enhance such a counseling program as improving self-esteem.

### 3. Questions on study problems

The motives of selecting their present major are mainly their aptitude and interest(38.7%) and their scores(30.8%).30.8%). The degree of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is a normal level(47.8%), and the reasons of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are their different aptitude and interest(38.4%) and its curriculum different from their expectation(19.6%).

### 4. Questions on the administrative service and school development

The kindness of the administrative staff of school is so so(51.5%), and what students feel uncomfortable about the administrative service is the staff's act of their administrative convenience(29.3%). The most urgent matter to develop the university was to extend career and employment guidance(54.7%), and the effective ways of school publicity were using mass media(73.4%), holding events and contests for high school students(67.4%), and enticing high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to visit(47.8%).

### 5. Questions on career and employment measures

Their plan after graduation is mainly to become employed(61.0%) or to enter a graduate school(11.1%). Most of the students have only an interest in becoming employed(43.6%), and the elements which they think are most important to become employed are their language ability(45.2%), studying their major(23.7%), and acquiring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s(14.1%). Besides, the information that the Employment Information Center needs to offer is the recruitment schedule of each company and the information of its tests. Concerned with becoming employed, they expect the school to extend employment information(24.6%), to open practical subjects in their major(24.2%), to open employment-related subjects(12.9%), and to give career education regularly(11.0%)

### 6. Questions on the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

Only one out of ten students has experienced using the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 The reasons why they haven't used it are because they don't know what it's for(28.9%), because they haven't felt it necessary(18.9%), and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use it even though they want to(16.6).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publicity of the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s works and its use need to be increased. To maximize its use, a survey of programs that students want, psychological tests, and various counseling activities needs to be carried out along with a more active publicity strategy.